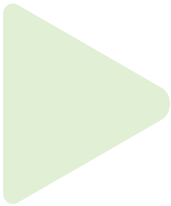


정답 친해 자습서

중등 국어 3-2



갈래 펼치기



주장하는 글

● 본문 006쪽

1 (1) ○ (2) × 2 (1) 서론 (2) 논증 3 ⑤

1 (1) 주장하는 글이란 글쓴이의 주장이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전개하여 독자를 설득할 목적으로 쓴 글을 말한다.

(2) 대상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주로 제공하는 글은 설명하는 글이다. 주장하는 글은 글쓴이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쳐 독자를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1) 주장하는 글의 '서론'에서는 주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글을 쓰는 목적이나 동기, 글에서 다룰 문제나 화제를 제시한다.

(2) '논증'이란 뒷받침하는 근거나 이유를 제시하여 주장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논증 방식에는 귀납, 연역, 유추 등이 있다.

참고 자료

귀납과 연역의 예

귀납	• 말은 심장이 있다. 개도 심장이 있다. 사람도 심장이 있다.	구체적 사실
	• 말과 개, 사람은 포유동물이다.	구체적 사실
	• 따라서 모든 포유동물은 심장이 있다.	일반적 원리
연역	• 모든 포유동물은 심장이 있다.	일반적 원리
	• 사람은 포유동물이다.	구체적 사실
	• 따라서 사람은 심장이 있다.	구체적 사실

3 주장하는 글은 글쓴이의 주장이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전개하여 독자를 설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 글이다. 따라서 주장의 합리성과 실현 가능성, 근거의 객관성과 신빙성 등을 따지며 읽어야 한다. 감동을 줄 수 있는 화제는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요소이다.



토론

● 본문 007쪽

1 ④ 2 (1) 논제 (2) 토론 규칙 (3) 토론자 3 논박하기
4 ②

1 토론은 찬성과 반대의 입장으로 나뉘는 논제에 대하여 각 토론자가 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내세우고, 상대방의 주장이나 근거가 부당함을 증명하는 말하기 활동이다. 따라서 보고자(어떤 일에 관한 내용이나 결과를 알리는 사람)는 토론이 이루어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

2 (1) '논제'란 토론을 통해 논하고자 하는 주제를 가리킨다.

(2) 토론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토론자의 발언 시간이나 발언 순서 등을 토론 규칙으로 정해 두어야 한다.

(3) 토론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마련하여 논리적으로 말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

3 논박하기는 토론에서 상대방의 주장과 근거를 분석하여, 상대방의 주장과 근거가 지닌 논리적 허점을 비판하고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입증하는 말하기이다.

4 토론에서 상대방의 주장과 근거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믿을 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장하고 있는 지(신뢰성), 주장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지(타당성), 어느 한쪽의 이념이나 가치관에 치우치지 않았는지(공정성) 등을 따져 보아야 한다.



향가

● 본문 008쪽

1 ② 2 설화, 역사 3 ③

1 10구체 향가는 '4구 - 4구 - 2구'의 3장으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3장 구성은 후대의 시조 형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향가가 발전하여 시조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답안 이유 ① 향가는 초기 형태인 4구체, 과도기적 형태인 8구체, 가장 정제되고 세련된 형태인 10구체의 형식으로 나뉜다.

③, ④ 현전하는 향가는 개인적 소망을 기원하거나 나라의 안녕 등을 기원하는 주술적 성격의 작품과 불교적 신앙심을 노래하거나 불교적 이상향을 추구하는 불교적 성격의 작품이 많다. 이러한 내용의 특성상 향가는 당시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승려나 화랑 등이 주로 창작하였다.

⑤ 향가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표기하는 방식인 향찰로 표기하였다.

2 『삼국유사』에는 총 14수의 향가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 작품들은 그 배경이 되는 설화나 역사적 사실과 함께 기록되어 전승되고 있다.

3 우리나라 최초의 정형화된 서정시인 향가가 후대에 나타난 시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있지만, 우리 시에 나타나는 운율의 토대를 형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샘의 풀이

우리나라의 시나 민요 등에서 3음보와 4음보가 자주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러한 운율이 언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지 알기는 어렵다. 향가가 나타나기 이전 시대부터 불리던 민요나 동요도 있기 때문이지. 또한 노래의 분위기나 사람의 정서에 따라 운율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운율의 형식이 고정되었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시

● 본문 009쪽

1 ⑤ 2 (1) × (2) ○ (3) ○ 3 우아미, 비장미

1 서사란 사건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이나 인물의 행동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차례로 이야기하는 서술 방법을 말한다. 시에서 서사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시에 꼭 있어야 하는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서사적 요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갈래는 소설이다.

2 (1) 말하는 이의 감각적 체험이 언어에 의해 환기되어 나타나는 느낌은 회화적 요소에 해당한다. 정서적 요소는 시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나 심리적 반응을 의미한다.

(2) 문학 작품에는 어떤 대상에 대해 아름답다거나 추하다거나, 숭고하다거나, 비장하다거나 하는 등의 심미적 인식이 담겨 있다.

(3) 작가와 독자, 독자와 독자는 문학 작품을 통해 심미적 인식을 공유함으로써, 우리가 사는 세계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삶의 의미를 성찰할 수 있다.

3 ‘우아미’는 친근하지만 기품이 있으며 현실이나 자연에 순응하는 아름다움으로, 고전적인 기품과 맛을 드러내는 미의식을 말한다. ‘비장미’는 자신의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현실적 여건에 의해 좌절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움을 말하며, 현실 세계를 비극적으로 인식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미의식이다.



소설

● 본문 010쪽

1 ② 2 ④ 3 ②

1 소설은 현실 세계에서 있음직한 일을 작가가 상상하여 꾸며 쓴 글이다. 현실에서 실제 일어났던 일을 소설의 제재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소설은 그것을 사실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쌤의 풀이

소설은 현실 세계에서 실제 일어났던 일을 제재로 활용하기도 해. 예를 들어 역사 소설은 역사적인 사건이나 인물을 소재로 이야기를 전개하지. 하지만 아무리 실제 일어났던 일이나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을 다루더라도, 그것은 작가가 독자에게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이라 할 수 있어. 또한 작가가 그 사건이나 인물을 소설에 담아내는 과정에서 각색이 이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 사건이나 인물을 사실적으로만 기록했다고는 볼 수 없단다.

2 소설에서 시대나 계절, 낮과 밤 등 인물의 행동이나 사건이 벌어지는 구체적인 때를 시간적 배경이라고 한다.

오답인 이유 ① 나라나 지역, 지상이나 지하, 시골이나 도시 등 구체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장소를 공간적 배경이라고 한다.

② 날씨, 지진과 같은 자연 현상이나 구름, 바람 등의 자연물을 이용하는 것을 자연적 배경이라고 한다.

③, ⑤ 인물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현실 및 역사적 상황을 사회적 배경이라고 한다.

3 소설에서 배경은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인물의 성격과 태도, 의식의 형성에 영향을 준다. 또한 인물의 행동이나 사건을 사실적으로 보이게 하며, 인물의 심리와 사건이 전개될 방향을 암시하는 역할을 한다. 배경 자체가 작품 전체의 주제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기도 하지만, 인물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지는 않는다.



쌤의 풀이

비가 오면 다소 우울해지기도 하고, 눈이 내리면 괜히 설레기도 하는 것처럼, 배경은 인물의 생각이나 정서에 영향을 미친단다. 그렇기에 소설의 배경을 살펴보면 인물이 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거야.



연설

● 본문 011쪽

1 연설, 설득 2 (1) ○ (2) ○ 3 ③

1 ‘연설’이란 여러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 등을 말하는 공식적 말하기이다.

2 (1) 청중의 나이나 성별, 지식수준 등에 따라 관심사나 흥미, 연설에서 얻고자 하는 바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청중이 연설의 내용을 이해하는 정도도 달라질 수도 있다.

(2) 연설을 할 때 청중의 관심사와 요구를 분석하면, 연설의 주제 및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청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연설을 준비하여 청중의 공감을 보다 쉽게 이끌어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중에게 자신의 생각을 보다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다.

3 연설에서는 연설자가 자신의 됴됨이나 전문성을 바탕으로 청중이 연설에 신뢰를 갖게 하는 ‘인성적 설득 전략’, 주장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청중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이성적 설득 전략’, 청중의 감정에 호소하여 설득하는 ‘감성적 설득 전략’을 활용한다. 연설의 결론 부분에서 앞으로의 과제나 전망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연설의 내용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문제를 해결하는 힘

(1) 능동적으로 해결하며 읽기

확인 문제

● 018~023쪽

- 019쪽 | 1 ④ 2 ⑤ 3 ④
 021쪽 | 4 ② 5 ③ 6 미세 플라스틱
 023쪽 | 7 ③ 8 ④ 9 지금까지 사람들이 만
 들어 낸 모든 플라스틱 쓰레기는 썩지 않고 이
 지구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 10 ①

1 글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앞뒤 문맥을 고려하여 의미를 파악하거나 사전에서 뜻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오답인 이유 ① 글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에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주위 사람에게 단어의 의미를 물어보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② 단어의 의미를 자유롭게 상상할 경우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③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비슷한 의미를 지닌 다른 단어도 찾아볼 수 없다.

⑤ 글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모르는 단어의 의미를 찾지 않고 무시하는 것은 글을 읽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2 '서론 ②'에서 플라스틱은 매우 가벼운 데다 모양을 변형하기 쉽고 다양한 빛깔로 만들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모양이 잘 변형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3 '본론 ①'의 '재활용되지 않은 플라스틱 쓰레기는 태우거나 매립장에 묻는데, 이는 그나마 수거된 플라스틱 쓰레기에 국한된 이야기이다. 수거되지 않은 플라스틱은 산과 들에 아무렇게나 묻히거나 어딘가를 떠돌아다니다 바다로 흘러들어 간다.'로 볼 때, 수거된 플라스틱 쓰레기는 재활용되거나, 재활용되지 않은 것은 태우거나 매립장에 묻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과 들에 함부로 묻히거나 바다로 흘러들어 가는 것은 수거되지 않은 플라스틱 쓰레기이다.

오답인 이유 ① '본론 ①'에서 수거된 플라스틱 쓰레기는 재활용되거나, 재활용되지 않은 것은 소각되거나 매립장에 묻힌다고 하였다. 또한 수거되지 않은 플라스틱 쓰레기는 산과 들에 아무렇게나 묻히거나 어딘가를 떠돌아다니다 바다로 흘러들어 간다고 하였다.

② '본론 ①'에서 재활용률이 70 퍼센트 정도로 비교적 높은 편인 페트병은 다시 페트병으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화학 솜이나 노곤 등으로 만들어진다고 하였다.

③, ⑤ '본론 ①'에서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의 양이 그리 많지 않다는 내용을 제시하면서, 그 이유로 버려지는 플라스틱의 재질과 종류가 다양하여 선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들었

다. 또한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세척되지 않은 채 버려지는 용기류가 많아 재활용을 하더라도 플라스틱 함지나 정화조처럼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4 이 글에서는 엘버트로스, 붉은바다거북, 뱀머리돌고래 등의 사례를 들어 플라스틱이 동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는 것을 보여 준다.

5 '본론 ③'에서 바다거북이 살아서 자신이 태어났던 바닷가를 다시 찾아올 확률은 5,000분의 1에 지나지 않으며, 플라스틱은 이렇게 낮은 바다거북의 생존율을 더 낮추는 원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플라스틱이 붉은바다거북의 생존율을 5,000분의 1로 낮추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6 **배경지식** 글을 읽을 때에는 글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배경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 <보기>에서는 5 밀리미터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으로, 플라스틱 제품이 부서지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이 글을 읽을 때 배경지식으로 제시되는 '미세 플라스틱'에 관한 내용이다.

7 이 글은 독자를 설득할 목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들어 글쓴이의 주장이나 의견을 논리적으로 드러낸 주장하는 글이다. 이러한 글은 글쓴이의 주장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파악하며 읽어야 한다.

오답인 이유 ① 글쓴이의 생각과 경험에 공감하는 것은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적절한 자세이다.

② 중심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은 사건 중심의 글을 읽을 때 적절한 자세이다.

④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토의의 특성이다.

⑤ 글에서 활용한 설명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찾는 것은 주장하는 글을 읽는 자세와 관련이 없다.

8 이 글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을 포함한 모든 플라스틱이 썩지 않고 이 지구 어딘가에서 동물과 인간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즉 플라스틱의 크기가 커서 오랫동안 분해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플라스틱 자체는 잘게 부서지기는 하지만 성분이 분해가 잘되지 않는 것이다.

오답인 이유 ①, ② '본론 ⑤'의 '홍물스럽게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는 자연 경관을 해쳐 관광 산업에도 피해를 주며, 선박의 안전도 위협한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③ '본론 ⑤'의 '플라스틱 쓰레기는 바다를 떠다니다가 잘게 부서져 새와 바다거북, 돌고래와 같은 동물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⑤ '본론 ⑤'의 '사람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미세 플라스틱은 물고기의 내장이나 싱싱한 굴 속에도 유입되어 우리의 식탁에 오른다. 결국은 우리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것이다.'를 통해 알 수 있다.

9 서술형 글쓰이는 ‘결론 ①’에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만들어 낸 모든 플라스틱 쓰레기는 썩지 않고 이 지구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며 잘 썩지 않는 플라스틱의 폐해를 단적으로 드러내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0 글쓰이는 이 글의 마지막 문단에서 플라스틱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생활하기는 어렵지만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다면 줄여야 하며, 특히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은 더욱 선택하지 말자고 주장하고 있다.



샘의 풀이

주장하는 글(논설문)의 주장을 파악하려면 우선 주장하는 글(논설문)의 구성 단계를 생각해 보고, 각 단계에서 어떤 내용을 주로 다루는지를 떠올려 보면 도움이 될 거야. 주장하는 글(논설문)은 대부분 ‘서론-본론-결론’으로 구성이 되지. 서론에서는 우선 글쓰이가 생각하는 문제(논제)가 제기돼. 본론에서는 이에 대한 글쓰이의 입장을 담은 주장을 드러내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다양하게 제시하지. 물론 본론에서도 글쓰이의 주장을 파악할 수 있기는 하지만, 결론에서 글쓰이의 주장을 찾는 것이 더 명확하고 쉽다. 왜냐하면 결론은 본론에서 풀어냈던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기능을 하거든. 특히 결론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주장을 단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독자에게 중요 내용을 재확인시켜 글을 쓴 목적을 달성하려는 경우가 많단다. 그러니 앞으로 글쓰이의 주장을 파악하는 문제가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주장하는 글(논설문)의 결론 부분을 확인해 보렴.

소단원 평가



038~041쪽

- 01 ⑤** **02 ②** **03 ⑤** **04** 플라스틱은 잘 썩지 않는 물질이다. **05 ①** **06 ②** **07 ②**
- 08 ⑤** **09** • (새, 바다거북, 돌고래와 같은) 동물들에게 해를 끼친다. • 자연 경관을 해쳐 관광 산업에도 피해를 준다. • 선박의 안전을 위협한다. • 사람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미세 플라스틱은 동물에 유입되어 그것을 먹는 우리의 건강까지 위협한다.
- 10 ①** **11 ③** **12** (1) 동의한다. (2) 적정 기술은 현대 사회에서 턱없이 부족한 에너지 자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 (1) 동의하지 않는다. (2) 적정 기술의 사례를 보면 실패한 경우도 있고, 우리 삶과는 관련이 없는 기술이 많다. 그리고 현재 부족한 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찾는 것이 더 시급하기 때문이다. **13 ③**

01 (라)에서 수거한 것 중 재활용되지 않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태우거나 매립장에 묻는다는 내용이 나와 있기는 하나, 플라스틱을 매립하거나 소각했을 때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전자 제품, 주방 용품, 생활용품 등에 플라스틱이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에서 페트병, 요거트병, 블록, 비닐봉지, 스티로폼 외에도 플라스틱의 종류가 다양하다고 하였다. 또한 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합지, 정화조, 화학 솜, 노끈 등을 만든다고 하였다.

② (라)에서 플라스틱의 종류가 다양하여 재질별로 선별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세척되지 않은 채 버려지는 용기류가 많고, 재활용을 하더라도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만들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③ (다)에서 플라스틱이 분해되려면 500년 혹은 그 이상이 걸리며, 어떤 전문가들은 분해되는 기간을 정확히 알 수 없다고도 말한다고 하였다.

④ (나)에서 플라스틱은 매우 가볍고 모양을 변형하기 쉬우며, 다양한 빛깔로도 만들 수 있는 데다 절연성이 뛰어나다고 하였다.

02 (나)에서는 플라스틱이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게 된 까닭을 밝히기 위해 플라스틱의 여러 장점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어지는 글에서는 플라스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플라스틱에 대한 긍정적 견해를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오답인 이유 ①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을까?’, ‘과연 플라스틱이 없는 생활을 상상할 수 있을까?’와 같은 질문을 던지며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독자의 주의를 환기한다.

③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플라스틱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플라스틱이 잘 썩지 않는 물질이라는 데 있다.’라는 부분에서 잘 썩지 않는 플라스틱의 특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 때문에 플라스틱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뒷부분에서 이와 관련된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④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의 양은 그리 많지 않다.’라고 언급하며 플라스틱 재활용에 대한 기존의 통념을 반박하고 있다.

⑤ 바대로 떠내려 간 플라스틱이 앨버트로스에게 해를 끼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플라스틱 처리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낸다.

03 (마)의 ‘작게 부서진 플라스틱 조각들’에 해당하는 것이 <보기>에서 설명하는 ‘미세 플라스틱’이다. 또한 (마)에서 플라스틱 조각을 삼키고 영양실조로 죽은 앨버트로스의 사례를 이해하기 위해서 <보기>의 ‘강과 바다의 생물들은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하여 먹고 위장 장애 및 영양실조 등의 문제를 겪으면서 서서히 죽어 간다.’라는 내용을 배경지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04 서술형 (다)에서 플라스틱이 분해되는 데 500년 혹은 그 이상이 걸린다고 하며, 어떤 전문가가 플라스틱이 분해되는 기간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한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플라스틱은 잘 썩지 않는 특성을 지닌 물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잘 썩지 않는다.' 또는 '분해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05 ㉠이 가리키는 내용은 앞의 문장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은 사람들이 플라스틱을 재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플라스틱 제품을 편하게 쓰고 쉽게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06 주장하는 글을 읽을 때에는, 글쓴이의 주장이 타당하고 합리적인지 판단하며 읽어야 한다.

샘의 풀이

독자는 글을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를 만나기도 하고, 의미가 모호한 문장을 만나기도 해. 또한 글 속에 숨어 있는 주제나 중심 생각을 추론해 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글쓴이의 주장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판단하면서 읽기도 해야 하지. 그래서 독자가 글을 읽는 과정은 글에 나타난 정보를 바탕으로 독자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이 과정에서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문맥을 살피거나 사전 찾아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고, 의미가 애매한 문장을 만나면 글에 나타난 정보를 단서로 배경지식을 활용해서 문장의 의미를 파악해야 해. 그 후에 글의 구성 단계별로 중심 생각을 정리하며 글쓴이의 생각이나 주제를 파악해야 하는 거야. 또한 주장하는 글(논설문)에서 글쓴이의 주장을 파악하여 그 주장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판단하며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해.

07 주장하는 글(논설문)에서 글쓴이의 주장은 결론 부분에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 글의 결론 부분은 (라)이고, (라)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 한다(ㄱ)'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ㄴ)'라는 글쓴이의 주장이 나타난다.

08 ㉡은 잘 썩지 않는 플라스틱의 처리 실태를 단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독자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09  (다)에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동물들에게 해를 끼치고, 자연 경관을 해쳐 관광 산업에도 피해를 주며, 선박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하였다. 또한 사람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미세 플라스틱은 동물에 유입되어 그것을 먹는 우리의 건강까지 위협한다고 하였다.

평가 기준	확인 ☒
동물, 관광 산업, 선박, 인간의 측면으로 나누어 썼다.	☐
각각 한 문장으로 썼다.	☐

10 이 글에서는 적정 기술의 효용에 대한 긍정적 측면을 다루고 있지만 적정 기술의 한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오답인 이유 ② (가)에서 적정 기술의 개념과 장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③ (나)~(라)에서 적정 기술이 적용된 발명품인 향아리 냉장고, 라이프 스트로, 큐 드럼을 나열하고 있다.

④ 글의 마지막 부분인 (아)에서 적정 기술을 개발하여 현대 사회의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하자는 글쓴이의 제안이 나타나 있다.

⑤ (바)~(사)에서 적정 기술이 적용된 건축물인 서남아시아의 흙벽돌 집, 이글루의 구조와 이 건축물에 사용된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11 (마)의 '이와 같은 적정 기술은 사실 오늘날에 새롭게 등장한 것은 아니다. 적정 기술은 아주 오래전부터 세계 곳곳에서 활용되어 왔던 기술로, 인간이 끊임없이 과학적으로 사고하고 탐구한 결과물이다.'로 볼 때, 적정 기술은 최신 과학 기술을 집대성한 결과물이 아닌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기술임을 알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나)의 냉장고가 없는 지역이나 냉장고가 있더라도 전기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은 지역의 사람들을 위한 향아리 냉장고, (라)의 오염된 물을 마셔야 하는 지역의 사람들을 위한 라이프 스트로, 멀리까지 가서 식수를 구해 와야 하는 지역의 사람들을 위한 큐 드럼 등으로 볼 때, 적정 기술은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유용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② (가)의 '유한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적정 기술이다.'로 볼 때, 적정 기술은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④ (가)의 '적정 기술은 한 공동체의 문화·정치·환경적인 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된 기술을 일컫는다.'로 볼 때, 적정 기술은 특정 해당 공동체의 환경과 정치, 문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⑤ (가)의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구절로 볼 때, 적정 기술은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12  ㉢은 '과학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적정 기술을 개발하여,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하자.'는 글쓴이의 제안에 해당한다. 이 제안에 대한 자신의 동의 여부와 그 이유를 밝힐 때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작성하되, 논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평가 기준	확인 ☒
동의 여부를 선택했다.	☐
자신이 그러한 선택을 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썼다.	☐

13 <보기>는 열에너지의 변화에 따른 물질의 상태 변화를 설명한 그림 자료이다. ㉠과 ㉡은 물이 열을 흡수하여 증발하면서(기화되면서) 온도가 낮아지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고, ㉢은 물이 얼면서 열을 방출하여 온도가 높아지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2) 설득의 힘을 기르는 토론

소단원 평가



060~063쪽

- 01 ② 02 ③ 03 논박하기 04 ④ 05 ①
06 ④ 07 ③ 08 ② 09 • 주장: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하면 안 된다. • 근거: 전 세
계의 환경 문제가 심각하므로, 학교도 환경을 지키는 일에 동참해
야 한다. 10 ③ 11 ① 12 ⑤
13 ㉠ - ㉡, ㉢ - ㉣, ㉤ - ㉥

01 토론을 할 때는 규칙에 따라 정해진 순서대로 참여자들에
게 발언권을 부여해야 한다. 만약 정해진 규칙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참여자들에게 공평한 발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오답인 이유 ① 토론에서 양측의 토론자가 자기 쪽의 주장을 밝히는
단계는 입론이다.

③ 고전적 토론에서는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각각 2번씩 입론과 반론
을 펼치게 된다.

④ 토론에서 상대측의 주장을 조리 있게 비판하면서 자기 측 주장을
변호하는 단계는 반론이다.

⑤ 토론은 어떤 논제에 대해 대립적인 입장으로 나뉘어 각각 논리적
인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펼치고, 상대방의 논거가 잘못되었다는 것
을 지적하며 상대를 설득하는 말하기이다.

02 토론의 논제는 토론 참여자들이 흥미와 관심을 가질 만한
것(㉠) 중, 찬성과 반대의 비중이 비슷하게 나뉘는 것(㉡)이 적
절하다.

오답인 이유 ㉠.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토론할 필요가 없다.

㉡. 토론의 목적은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며, 토론자들이 흥미와 관심
을 가질 수 있는 분야에서 정하는 것이 좋다.

㉢. 토론을 한다고 해서, 토론 참여자들의 의견이 반드시 하나로 모아
지는 것은 아니다.



샘의 풀이

토론의 논제는 어떤 것이어야 할까? 우선 토론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준과 관심을 반영한 것이어야 해. 참여자의 지식
수준에서 벗어나 있거나 관심사가 아니라면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거든. 그리고 참여자들이 흥미를 느끼는 것 중
에서도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가진 사람의 비중이 비슷하여 상
호 논쟁이 가능한 것을 선택해야 하지. 그 이유는 토론이 논제
에 대해 대립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
이도록 상대방을 설득하는 말하기이기 때문이야.

03 **서술형** '논박하기'는 토론에서 상대방의 주장과 근거를
분석하여, 상대방의 주장과 근거가 지닌 논리적 허점이나 오
류에 대해 타당한 근거를 들어 조리 있게 비판하고 자신의 주
장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말하기이다.

04 토론자가 발언하는 내용에서 오류를 지적하는 것은 사회
자가 아니라, 상대측 토론자의 역할이다.

오답인 이유 ①. ② 사회자는 (가)에서 "오늘은 '교실에서의 에어컨 사
용을 자율화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을 하겠습니다."와 같이 말하
며 토론의 논제를 제시하고, 토론의 시작을 알린다.

③ 사회자는 (가)에서 "먼저 찬성 측의 입론을 들어 보겠습니다.", (라)
에서 "찬성 측 두 번째 입론을 발표해 주세요." 등과 같이 말하며 토론
자들에게 발언권을 부여한다.

⑤ 사회자는 (라)와 (사)에서 토론의 쟁점을 확인하며 순서에 따라 토
론을 진행한다.

참고 자료

토론에서 사회자의 역할

- 토론의 논제를 제시함.
- 토론의 시작과 끝을 알림.
- 토론의 규칙과 순서를 제시함.
- 토론자들이 토론 시간 및 규칙을 준수하게 함.
- 토론의 쟁점을 확인하고, 토론자의 발표 내용을 정리함.

05 (나)~(다)에 나타난 토론의 첫 번째 쟁점은 '학생들의 권
리를 보호하기 위해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해야 한다.'이고, 이
에 대해 찬성하는 측은 학생들의 행복 추구권을, 반대하는 측
은 학습권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마)~(바)에 나타난 토론의
두 번째 쟁점은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에어컨 사용을 자율
화해야 한다.'이고, 이에 대해 찬성하는 측은 경제 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반대하는 측은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근거로 제
시하였다.

06 '나현'은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하여 행복 추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환경에서 만족스럽게 생활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라며 헌법의 내용을 인용하여 학생들의 행복 추구
권을 실현하기 위해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오답인 이유 ① '나현'은 청중에게 논제와 관련된 질문을 던지고 있지
않다. 청중에게 논제와 관련된 질문을 던지는 것은 (다)의 '현중'과 (바)
의 '정은'이다.

② '나현'은 같은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을 뿐,
심층 면접을 진행하지 않았다.

③ '나현'은 같은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들어
문제 상황을 제기했으나, 더위에 고통받는 학생의 실태를 다룬 다양한
매체 자료를 수집하지는 않았다.

⑤ '나현'은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07 '현중'은 "에어컨을 자율적으로 사용하여 전기 요금이 늘
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라는 질문을 던져 주의를 환기함으
로써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 상대방이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발언이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져 자신의
말을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인 이유 ① '현중'은 "행정실장님 말씀에 따르면 학교 운영 예산에서 전기 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0 퍼센트인데, 여름철에는 에어컨 사용으로 그 비율이 많이 올라간다고 합니다."에서 학교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여 근거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② '현중'은 "에어컨을 자율적으로 사용하면 전기 요금이 더 올라갈 것이고, 그만큼 학생들을 위한 교육 예산은 줄어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양한 지식을 배우고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즉 학습권을 잃게 됩니다."에서 에어컨을 자율적으로 사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다.

④ '현중'은 "저는 중앙에서 에어컨을 관리하는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자신의 주장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⑤ '현중'은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야 학습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테니까요."에서 상대방의 의견에서 동의하는 부분을 밝힘으로써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08 '미르'는 미국 경제 연구소에서 제시한 온도가 낮을 때 학생들의 시험 점수가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여 주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09 **서술형** '정은'은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원 절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니 학교도 이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여, 에어컨 사용의 자율화를 반대하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토론자의 주장을 한 문장으로 구체적으로 썼다.	☐
주장에 대한 근거를 한 문장으로 구체적으로 썼다.	☐

10 '현중'은 상대측의 주장에 논리적 허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강조하고 있을 뿐,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 상대방의 주장보다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

오답인 이유 ① '현중'은 같은 옷차림을 했을 때 남성은 22도를, 여성은 24.5도를 적당한 실내 온도로 여겼다는 네덜란드의 한 의과 대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상대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였다.

② '현중'은 "학생들이 에어컨의 온도를 자율적으로 조절한다고 해도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라며 자신의 주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④ '현중'은 "찬성 측 토론자는 평소 수업 시간에 땀지를 많이 하는데, 실내 온도가 낮아진다고 공부에 집중할까요?"라며 논제와 관련 없는 상대 토론자의 평소 수업 태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는 토론 상대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못한 발언이다.

⑤ '현중'은 에어컨의 온도를 자율적으로 조절하면 오히려 일부 학생들은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한다고 느낄 수 있다며, 에어컨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예상하여 상대의 주장을 논박하고 있다.

11 '정은'은 중앙 제어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해가 지날수록 폭염이 극심해지는 근본적인 원인이 환경 오염과 지구 온난화(⌋)임을 지적하

고 있다. 또 실내 온도가 적정 온도인 26도일 때 뇌 활성화가 가장 높아져 학습과 집중력에 영향을 미치는 '베타파'가 나와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실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12 '미르'는 전기 에너지 소비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볼 것이며, 에어컨 사용의 자율화가 무조건 낮은 온도로 설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에 오류가 있음을 깨닫거나, 주장을 일부 수정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인 이유 ① '미르'는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한다고 해서 무조건 낮은 온도로 설정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에어컨을 사용하고 싶다는 것입니다."에서 에어컨 사용 자율화의 중점을 낮은 온도 설정이 아니라 자율적 사용에 두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② '미르'는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하면서도 에너지 소비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에어컨 청소 자주 하기, 태양광 발전기 설치하기를 제시하고 있다.

③ '미르'는 친환경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기를 학교에 설치해 주는 정책이 있으며, 이를 통해 전기 요금을 절약하고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④ '미르'는 "온도에 따른 학습 효과는 의견의 차이가 있겠지만, 자신이 만족하는 환경일 때 가장 학습 효과가 좋지 않을까요? 아무리 적정 온도가 26도라고 하더라도 더위에 몸과 마음이 지쳤는데 우리의 집중력이 높아지지는 않을 듯합니다."에서 상대측이 제시한 연구 결과를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여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해야 하는 까닭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13 **서술형** ㉠에서 '현중'은 실내 온도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어, 학생들의 행복 추구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해야 한다는 찬성 측의 주장이 공평하지 않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에서 '나현'은 학교의 설립 목적이 교육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하면 안 된다는 반대 측의 주장이나 근거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에서 '정은'은 찬성 측이 근거로 제시한 실험 결과(온도가 낮을 때 시험 점수가 높아짐.)와는 또 다른 실험 결과(적정 실내 온도인 26도일 때 뇌 활성화도가 높아져 학습 효과가 높음.)를 근거로 들어, 찬성 측의 주장과 근거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참고 자료

상대방의 주장과 근거를 비판적으로 분석할 때의 판단 기준

- 신뢰성: 인정이나 권위에 호소하지 않고, 믿을 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장하고 있는가?
- 타당성: 주장과 근거가 연관되어 있으며, 근거가 주장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가?
- 공정성: 어느 한쪽의 이념이나 가치관에 치우치지 않으며, 정의롭고 공평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가?



- 01 ③ 02 ⑤ 03 ③ 04 ① 05 ⑤
 06 플라스틱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 07 ④ 08 ㉠: 플라스틱 사용, ⑥: 일회용 플라스틱 09 ② 10 ③
 11 ㉠: 개념, ⑥: 향아리 냉장고, ㉡: 흙벽돌, ㉢: 적정 기술
 12 ④ 13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고 자원을 적게 투자하면서도,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다. 14 ②
 15 ② 16 ㉠: 권리, ⑥: 행복 추구권, ㉢: 학습권
 17 ⑤ 18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해야 한다. 19 ③

01 주장하는 글(논설문)을 읽을 때에는 글쓴이의 생각이나 주장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 보다는 주장과 근거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판단하면서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오답인 이유 ① 글을 읽을 때에는 구성 단계별로 중심 생각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

② 글을 읽을 때에는 글에 나타난 정보와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하며 읽는 것이 적절하다.

④ 글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앞뒤 문맥을 고려하여 의미를 파악하거나 사전 찾아보면서 의미를 확인하며 글을 읽어야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다.

⑤ 글을 읽다가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장이 나올 경우에는 해당 문장의 앞뒤 부분에 나타나는 정보를 바탕으로 문장의 의미를 짐작하며 읽는다.

02 (가)~(다)는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한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서론 부분에 해당하며, (라)~(바)는 분해와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이 동물과 인간에게 해를 끼친 사례를 제시하는 본론 부분에 해당하며, (사)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는 글쓴이의 주장이 담긴 결론 부분에 해당한다.

03 (다)에서 글쓴이는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의 양이 많을 것이라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반박하며 플라스틱 쓰레기의 처리 실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을 뿐,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역설하고 있지 않다.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플라스틱이 없는 생활을 상상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② (다)에서 플라스틱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플라스틱 제품을 편하게 쓰고 쉽게 버리는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소탐대실'이라는 한자 성어를 활용하여 표현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④ (마)에서 플라스틱 조각을 먹이로 착각하여 삼킨 앨버트로스가 영양실조에 걸려 서서히 죽어간 사례를 들어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⑤ (사)에서 '그런데도 계속해서 플라스틱을 이렇게 편하게 쓰고 쉽게 버려도 될까?'라고 묻은 뒤 곧바로 '플라스틱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생활하기는 어렵겠지만, 줄일 수 있다면 줄여 보자. 특히 짧은 시간 사

용하고 버리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은 더더욱 선택하지 말자.'라고 답하며 독자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04 (라)에서는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플라스틱의 재활용이 쉽지 않은 이유로 플라스틱의 종류가 다양하여 재질별로 선별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세척되지 않은 채 버려지는 용기류가 많으며(㉢), 수거되지 않은 플라스틱도 있다(㉣)는 것을 들고 있다.

05 ㉠의 앞부분에서는 주로 플라스틱의 장점을 설명했지만, ㉠의 뒷부분부터는 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생기는 다양한 피해를 제시하고 있다. 이로 보아 ㉠은 우리가 편하게 쓰는 플라스틱이 사실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06 **서술형** ㉠의 앞뒤 문맥을 고려하면 ㉠은 플라스틱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에서 찾아 바르게 파악하였다.	☐
15자 내외의 분량으로 썼다.	☐

07 (사)의 '우리는 이 소중한 석유를 겨우 10분가량 사용할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수백 년 동안 분해되지 않는 쓰레기로 만들고 있다.'와 '지금까지 사람들이 만들어 낸 모든 플라스틱 쓰레기는 썩지 않고 이 지구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에서 플라스틱이 잘 분해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미세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제품이 부서지면서 만들어진 작은 플라스틱을 말한다. 따라서 바다를 떠다니던 플라스틱이 깨지고 닳아 작은 크기로 만들어지는 것을 미세 플라스틱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바)에서 해양 쓰레기의 60에서 80 퍼센트는 플라스틱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바다에 있는 쓰레기 중 플라스틱의 비중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마)에서 플라스틱 조각을 삼킨 앨버트로스가 영양실조에 걸려 서서히 죽어간 사례를 소개하고, (바)에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새와 바다 거북, 돌고래와 같은 동물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플라스틱이 바다에 사는 동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⑤ (바)의 '사람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미세 플라스틱은 물고기의 내장이나 싱싱한 굴 속에도 유입되어 우리의 식탁에 오른다. 결국은 우리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것이다.'를 통해 미세 플라스틱이 동물뿐만 아니라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8 **서술형** (사)의 '손이 닿는 곳이면 어디에나 있는 플라스틱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생활하기는 어렵겠지만, 줄일 수 있다면 줄여 보자. 특히 짧은 시간 사용하고 버리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은 더더욱 선택하지 말자.'에 글쓴이의 주장이 집

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글쓴이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특히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선택하지 말자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9 (사)의 '지질 시대에 만들어진 석유는 지구가 매우 오랜 기간에 걸쳐 만들어 낸 소중한 자원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소중한 석유를 겨우 10분가량 사용할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수백 년 동안 분해되지 않는 쓰레기로 만들고 있다.'를 통해 플라스틱을 남용하는 것은 한정된 자원인 석유를 낭비하는 것이라는 반응이 나올 수는 있다. 그러나 석유로 플라스틱을 만드는 것이 경제적으로 타산이 맞는지의 여부는 이 글의 내용을 통해서 알기 어렵다.

오답인 이유 ① (사)의 '길바닥에 나뒹구는 쓰레기로, 바다를 떠다니는 해양 쓰레기로, 매립장에 가득 쌓인 쓰레기로 말이다.'를 통해 재활용되지 못한 플라스틱 쓰레기는 결국 바다와 육지를 오염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마)의 '이름처럼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 이 섬에는 세계 곳곳에서 버려진 쓰레기들이 바람과 해류를 따라 휩쓸려 온다.'를 통해 플라스틱 쓰레기는 그것의 생산지나 소비지에서 벗어나 먼바다까지 흘러가기도 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④ (사)의 '지금까지 사람들이 만들어 낸 모든 플라스틱 쓰레기는 썩지 않고 이 지구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를 통해 지구에 있는 플라스틱의 양이 상당히 많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⑤ (바)의 '또한 흉물스럽게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는 자연 경관을 해쳐 관광 산업에도 피해를 주며, 선박의 안전도 위협한다.'를 통해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가 선박 사고를 낼 수도 있겠다고 짐작할 수 있다.

10 (다)의 '이와 같은 적정 기술은 사실 오늘날에 새롭게 등장한 것은 아니다. 적정 기술은 아주 오래전부터 세계 곳곳에서 활용되어 왔던 기술로, 인간이 끊임없이 과학적으로 사고하고 탐구한 결과물이다.'로 볼 때, 적정 기술은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음을 알 수 있다.

11 **서술형** 글의 처음 부분인 (가)에서는 적정 기술의 개념과 장점을 제시하고, 글의 가운데 부분인 (나)~(다)에서는 적정 기술을 사용한 사례(항아리 냉장고, 라이프 스트로, 큐드림)를 소개하고, 세계 곳곳에서 활용되어 온 적정 기술(서남아시아 지역의 흙벽돌 집, 이누이트의 이글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글의 끝부분인 (라)에서 글쓴이는 적정 기술을 개발하여 에너지 보충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12 이 글의 주제는 '과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개발된 다양한 적정 기술의 소개'이다. 이는 글의 표면에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글 내용을 종합하여 주제를 파악해야 한다.

13 **서술형** (가)의 마지막 문장인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고 자원을 적게 투자하면서도,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에 적정 기술의 장점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적정 기술의 장점을 (가)에서 찾아 구체적으로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14 서남아시아 지역의 흙벽돌 집에는 물질이 직접 이동하면서 열이 이동하는 대류 현상(ㄱ)과 액체가 열에너지를 흡수하면서 기체로 변하는 원리(ㄷ)가 적용되었고, 이글루에는 액체가 고체로 변하면서 열을 방출하는 원리(ㄷ)가 적용되었다.

15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의 수가 비슷하게 나뉘는 논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16 **서술형** (가)~(나)에서는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교실에서의 에어컨 사용의 자율화 여부를 쟁점으로 하여, 찬성 측은 학생들의 행복 추구권을 근거로, 반대 측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근거로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17 <보기>의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찬성 측 토론자는 평소 수업 시간에 판짓을 많이 하는데, 실내 온도가 낮아진다고 공부에 집중할까요? 저는 그 점이 매우 의문스럽습니다.'에서 논제와 관련 없는 찬성 측 토론자의 평소 수업 태도를 근거로 들어 찬성 측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는 효과적인 논박이라고 볼 수 없으며, 상대측 토론자에 대해 예의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오답인 이유 ①, ② <보기>의 토론자는 실내 온도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임을 근거로 들어, 찬성 측 주장이 공평하지 않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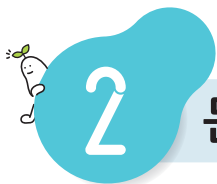
③ <보기>의 토론자는 '학생 대부분이 교실이 덥다고 느낀다면, 과연 그들이 덥지 않다고 느끼는 소수의 학생들을 배려해 줄까요? 결국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해야 하는데, 학생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까 봐 걱정스럽습니다.'를 통해, 찬성 측에서 주장하는 대로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할 경우 벌어질 수 있는 문제 상황을 예상하여 찬성 측의 주장을 논박하고 있다.

④ <보기>의 토론자는 '네덜란드의 한 의과 대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18 **서술형** (다)에서 '미르'는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라)에서 '정온'은 학습 효과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다)와 (라)에 나타난 쟁점이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해야 한다.'임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토론의 쟁점을 구체적으로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19 <보기>에서는 또 다른 실험 결과를 근거로 들어, 찬성 측의 주장과 근거를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문학으로 느끼는 삶

(1) 마음을 나누는 문학

확인 문제

● 084~085쪽

085쪽 | 1 ⑤ 2 ② 3 아아 4 ⑤

01 이 시가에는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떨어지는 잎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 공감각적 심상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인 이유 ① 9구에서 ‘미타찰’은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서방 극락세계’를 가리킨다. 또한 말하는 이는 불교의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죽은 누이와 재회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이 시가는 불교적 색채가 나타난다.

② 이 시가는 ‘1~4구(기)’, ‘5~8구(서)’, ‘9~10구(결)’의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③ 이 시가는 누이의 이른 죽음을 의미하는 ‘이른 바람’, 죽은 누이를 빗대어 표현한 ‘떨어질 잎’과 같은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서정적 분위기를 높이고 있다.

④ 이 시가의 말하는 이는 1~8구에서 누이의 이른 죽음에 슬퍼하면서 삶의 허무함과 무상함을 느끼고 있지만, 9~10구에서는 불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하여 슬픔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인다.

02 이 시가의 말하는 이는 죽고 사는 것의 갈림길이 먼 곳에 있지 않고, 지금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인 이승 세계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예’는 말하는 이가 동경하는 세계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서술형** 이 시가의 말하는 이는 1~8구에서 누이의 죽음에 대한 슬픔, 삶의 무상함과 허무함을 노래하였지만, 9~10구에서는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슬픔을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9구에서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샘의 풀이

10구체 향가에서 마지막 2구(3장)를 ‘낙구’라고 하는데, 그 첫머리에는 반드시 ‘아아’와 같은 감탄사가 나타나. 이러한 형식은 후대의 시조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어. ‘낙구’는 앞에서 전개된 시상을 정리하거나 집약·전환하는 역할을 해.

4 ㉠에서 말하는 이는 ‘미타찰’에서 누이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을 기약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삶의 고뇌를 종교적 신념으로 극복하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확인 문제

● 088~089쪽

089쪽 | 1 ③ 2 ⑤ 3 차디찬 밤
4 ④

1 이 시는 시상이 전개됨에 따라 행수가 1연은 2행, 2연은 4행, 3연은 6행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말하는 이의 정서를 표현하는 시구 역시 늘어나고 있다. 또한 1연에서는 아무런 생각 없이 거미를 밖으로 쏘아 버렸던 말하는 이가, 2연과 3연으로 시상이 전개되면서 서러움과 슬픔이 깊어지고 있다. 이처럼 이 시는 시상이 전개되면서 말하는 이의 정서가 심화되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① 1연과 3연에서 거미를 문밖으로 쏘아 버리는 말하는 이의 행위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비슷한 문장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다.

② 이 시의 3연에서 “이것의 엄마와 누나나 형이 가까이 이것의 걱정을 하며 있다가 쉬이 만나거나 했으면 좋으련만”이라고 표현한 것은, ‘무척 작은 새끼 거미’가 가족과 재회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일 뿐, 미래 상황을 가정한 것은 아니다.

④ 이 시는 거미를 의인화하여 일제 강점기에 가족 공동체가 붕괴된 우리 민족의 비극적인 상황을 우의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따라서 이 시가 거미를 의인화하여 당시의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을 표현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시적 대상인 거미에 대한 부정적 면모를 드러낸 것은 아니다.

⑤ 이 시에는 시적 대상인 거미와 말하는 이의 처지를 대조한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다.

2 이 시는 일제 강점기에 쓰인 것으로, 당시 우리 민족의 가족 공동체 역시 거미 가족처럼 해체되는 비극을 겪고 있었다. ‘수라’는 혼란 상태에 빠진 곳이나 그러한 상태 자체를 비유하는 말이다. 즉, 이 시의 제목은 흩어진 거미 가족의 상태나 일제 강점기에 가족이 해체되는 아픔을 겪은 우리 민족의 상태가 모두 ‘수라’와 같음을 나타낸 것이다.

3 **서술형** 1연의 2행에서 ‘차디찬 밤’은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나타낸다. 또한 말하는 이가 아무런 생각 없이 거미를 쏘아 버린 행위 때문에 ‘거미 새끼’가 가족과 헤어지는 비극을 겪게 되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차가움’은 말하는 이의 냉정함을 부각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관련지어 볼 때, 일제 강점기의 냉혹한 현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4 2연에서 말하는 이는 ‘큰 거미’가 자신이 언제인가 아무 생각 없이 쏘아 버린 ‘거미 새끼’를 찾으러 온 것이라고 여기면서, 새끼를 잃어버린 ‘큰 거미’에게 가슴이 저릿함을 느낀다. 이는 자신이 무심코 했던 행동 때문에 가족이 해체되는 비극을 겪게 된 거미 가족에 대한 죄책감으로 볼 수 있다. 즉, ㉠

은 거미 가족에 대한 죄책감, 새끼를 잃어버린 '큰 거미'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수라(修羅)'의 의미

'아수라(阿修羅)'의 약칭으로 고대의 인도 신화에 나오는 악신(惡神)이다. 고대 인도의 서사시 「마하바라타」에는 아수라들이 비슈누 신의 공격을 받아 아수라들의 시체가 산처럼 겹겹이 쌓여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아수라장'이라는 말은 여기서 유래된 말이다.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끔찍하게 혼란에 빠져 있는 현장을 우리는 흔히 '아수라장'이라고 부른다. 이 시의 제목인 '수라'는 바로 '아수라장'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소단원 평가



- 01 ⑤ 02 ⑤ 03 말하는 이는 누이의 죽음을 맞이하여 슬퍼하고 있다. 04 ④ 05 ③ 06 ③
07 ③ 08 ② 09 ④ 10 흩어진 거미 가족의 상태나 일제의 수탈로 가족 공동체가 해체된 우리 민족의 상태가 마치 큰 혼란에 빠진 수라와 같음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11 ④ 12 ② 13 ② 14 ⑤
15 '흥부'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급해져 아전에게 존대 말투를 쓴 것이다.

01 이 시가는 누이의 이른 죽음을 이른 바람에 떨어진 잎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누이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말하는 이의 심정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오답인 이유** ① 이 시가에는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② 이 시가는 누이의 죽음을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떨어질 잎'에 빗대어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을 뿐, 대상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지 않다.
③ 이 시가는 단정적인 어조로 누이와의 재회를 기다리겠노라고 말하고 있을 뿐, 대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④ 이 시가의 말하는 이는 9~10구에서 미타찰에서 누이와 다시 만나게 될 것을 기억하고 있다. 이는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누이를 잃은 슬픔을 이겨 내려는 것이지, 초월적 존재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나타낸 것은 아니다.

02 이 시가는 신라 시대에 생겨나 고려 시대까지 전승되었던 향가(江歌)이다. 향가의 주된 작자층은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승려와 화랑 등(平)이었다.

- 오답인 이유** ㄱ. 이 시가는 '기(1~4구) - 서(5~8구) - 결(9~10구)'의 3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ㄴ. 향가는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 우리말을 표기한 향찰로 기록된 민족 고유의 시가이다.

샘의 풀이

「제망매가」가 만들어지고 불리던 신라 시대에는 아직 우리 말을 기록할 우리글이 없던 시절이라 한자를 빌려서 우리말을 표기하는 '차자 표기법'이 사용되었어. 향찰, 이두, 구결이 이에 해당하지. 이두는 한자를 국어의 문장 구성법에 따라 고치고 이에 토를 붙인 표기법을 가리키고, 구결은 한자를 읽을 때 구절의 끝에 붙여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표기법을 말해. 향찰이 이두와 구결과 달랐던 점은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와 우리말 문장 전체를 표기할 수 있었다는 거야. 특히 향찰은 향가에 많이 쓰였기 때문에 향가식 표기법이라고도 일컬어진다.

시의 구성 방식

선경후정 (先景後情)	시에서, 앞부분에 자연 경관이나 사물에 대한 묘사를 먼저하고 뒷부분에 자기의 감정이나 정서를 그려 내는 구성 방법임.
기승전결 (起承轉結)	한시에서, 시구를 구성하는 방법임. 가는 시를 시작하는 부분, 승은 그것을 이어받아 전개하는 부분, 전은 시가 담고 있는 뜻을 한 번 돌리어 전환하는 부분, 결은 전체 시의 내용을 끝맺는 부분임.
수미상관 (首尾相關)	시에서, 처음 부분과 끝 부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배치하는 구성 방법임.

참고 자료

03 **서술형** <보기>를 고려할 때, 이 시가의 제목인 '제망매가(祭亡妹歌)'는 '죽은 누이를 위해 제사를 지내며 부르는 노래'라는 뜻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말하는 이는 누이의 죽음을 맞이하여 슬퍼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04 이 시가는 1~8구에서 누이의 죽음으로 슬퍼하며 인생의 무상함과 허무함을 드러내고 있지만, 9~10구에서는 불교의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누이와 재회할 것을 기약하면서 슬픔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오답인 이유** ① 이 시가는 5~8구에서 인간의 유한한 삶에 대한 허무함과 무상함을 드러내고 있다.
② 7구의 '한 가지'는 같은 부모를 비유한 표현으로, 이를 통해 죽은 누이와 말하는 이가 남매 사이임을 알 수 있다. 말하는 이는 세상을 일찍 떠난 누이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③ 1~2구의 '생사(生死) 길은 / 예 있으며 머뭇거리고,'라는 구절에서 말하는 이는 살고 죽는 것의 문제가 가까이에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⑤ 9~10구의 '미타찰(彌陀刹)에서 만날 나 / 도(道) 닦아 기다리겠노라.'라는 구절에서 불교의 윤회 사상이 나타나고 있다.

05 <보기>는 누이의 죽음 때문에 느끼는 인간의 고통과 슬픔을 종교라는 초월적 가치를 통해 극복하려는 말하는 이의 태도를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인간이 느끼는 고통과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하는 말하는 이의 태도에서 숭고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샘의 풀이

‘송고하다’는 ‘뜻이 높고 고상하다.’는 의미이고, ‘송고미’는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경지에서 느끼는 아름다움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 ‘제망매가’의 말하는 이는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생사의 문제로 인한 고통과 슬픔을 종교라는 초월적인 힘을 빌려 극복하고 있잖아. 그런 점에서 감동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거지. 이처럼 문학 작품에는 어떤 대상에 대해 아름답다거나, 추하다거나, 송고하다거나, 비장하다거나, 조화를 다거나, 우스꽝스럽다거나 하는 등의 심미적 인식이 담겨져 있단다. 이러한 문학 작품에 담긴 심미적 인식을 파악하며 글을 읽으면 보다 깊은 감동을 느끼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지?

문학 작품에 담긴 미적 범주

참고 자료

비장미	- 현실적인 한계로 좌절하거나 슬픈 감정에서 느끼는 아름다움 ‘비장하다’는 ‘슬프면서도 그 감정을 억눌러 씩씩하고 장하다.’는 의미임.
송고미	- 인간이 아무리 추구해도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경지나 현실 세계를 초월한 것에서 느끼는 아름다움 ‘송고하다’는 ‘뜻이 높고 고상하다.’는 의미임.
우아미	- 조화롭고 균형을 잘 갖춘 대상에서 느끼는 아름다움 ‘우아하다’는 ‘고상하고 기품이 있으며 아름답다.’는 의미임.
골계미	- 대상과 상황이 어울리지 않는 부조화에서 발생하는 재미와 기묘함 등에서 느끼는 아름다움 ‘골계’는 ‘익살을 부리는 가운데 어떤 교훈을 주는 일.’이라는 의미임.

06 이 시가의 말하는 이는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을 종교적 신념으로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보기>의 말하는 이는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 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지만, 이제 더 이상 울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슬픔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모두 이별한 대상과의 재회를 기약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오답인 이유 ① 이 시가의 말하는 이나 <보기>의 말하는 이 모두 이별한 대상과의 재회를 기약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를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시가의 말하는 이나 <보기>의 말하는 이는 모두 대상과의 이별로 인한 고통과 슬픔을 노래하고 있을 뿐, 자신을 떠난 대상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다.

④ 이 시가의 말하는 이나 <보기>의 말하는 이는 모두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지 않다.

⑤ 이 시가의 말하는 이는 1~8구에서 누이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고 있지만, 9~10구에서는 이러한 슬픔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보기>의 말하는 이도 처음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에 헤매고 있지만, 이후에는 이러한 슬픔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07 이 시는 ‘가제’와 같은 지역 방언을 활용하여 향토적인 느낌을 나타내고 있으며(ㄴ), 거미 가족을 의인화하여 일제 강

점기에 가족 공동체가 해체된 우리 민족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ㄷ). 또한 말하는 이는 거미를 문밖으로 쫓아 버리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말하는 이의 감정이 변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말하는 이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ㄹ).

오답인 이유 ㄱ. 1연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새끼 거미를 문밖으로 쫓아 버렸던 말하는 이의 태도와 2~3연에서 가족과 헤어진 거미를 바라보며 슬퍼하는 말하는 이의 태도가 대조되고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인간과 자연을 대조하고 있지는 않다.

ㄴ. 말하는 이의 시선은 방바닥에 나린 거미들에게 고정되어 있을 뿐,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시선이 이동하고 있지는 않다.

08 이 시의 1연은 2행, 2연은 4행, 3연은 6행으로 행수가 점차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미 가족에 대한 말하는 이의 심정을 표현한 시어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 이를 통해 뿔뿔이 흩어진 거미 가족에 대한 말하는 이의 슬픔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샘의 풀이

시에서 말하는 이의 정서를 파악하기 어려울 때는, 말하는 이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표현된 부분을 찾아봐. 이 시의 경우에는 1연의 ‘아무 생각 없이’, 2연의 ‘가슴이 찢어진다’, ‘서러워한다’, 3연의 ‘아린 가슴’,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 ‘서럽게 한다’, ‘슬퍼한다’와 같은 부분에서 말하는 이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어. 이처럼 말하는 이의 감정이 드러난 표현을 찾으며 시를 감상하면 말하는 이의 정서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단다.

09 이 시의 말하는 이가 1연에서 방에 들어온 새끼 거미를 쫓아 버린 것은 아무런 생각 없이 무심코 한 행동이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말하는 이가 거미 가족을 연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새끼 거미가 현실의 모순을 상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인 이유 ①, ② 말하는 이는 2연에서 자신의 방에 들어온 큰 거미를 보고 1연에서 자신이 무심코 한 행동 때문에 거미 가족이 흩어진 것이라 생각하며 안타까워한다. 그렇기에 그들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무척 작은 새끼 거미에게 손을 내밀고, 조심스럽게 보드라운 종이에 받아 문밖으로 내보내려 한 것이다.

③ 말하는 이는 2연에서 자신의 방에 들어온 큰 거미를 보면서, 1연에서 자신이 무심코 쫓아 버린 새끼 거미를 찾으려 온 것이라 생각하며 가슴이 저릿함을 느낀다. 이는 거미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⑤ 말하는 이가 거미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거미들을 문밖으로 계속 내보내지만, 문밖은 차갑고 혹독하기만 하다. 그렇기에 말하는 이는 그저 그들이 재회하기를 바라면서도 이내 슬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거미 가족의 헤어짐이 일제 강점기에 가족 공동체가 해체된 우리 민족의 비극적 현실을 상징한다고 할 때, 말하는 이는 우리 민족이 공동체적 삶을 회복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말하는 이의 이러한 소망은 현실적인 한계로 좌절

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문학 작품의 미적 범주 중 비장미를 느낄 수 있다.

샘의 풀이

문학 작품에 담긴 미적 범주의 하나인 '비장미'는 자연을 인식하는 '나'의 실현 의지가 현실적인 이유로 좌절될 때 나타나는 아름다움이다. 슬프고 비극적인 것이 아름답다고 하니 모순되게 느껴지기도 할 거야. 하지만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자. 아무리 노력해도 주어진 여건 때문에 의지가 좌절되는 것은 물론 슬픈 일이지. 하지만 그런 슬픔 속에서도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저항하며 노력을 기울이는 인간의 모습을 본다면 어떨까? 감동적으로 느껴지겠지? 바로 이러한 인간의 모습에서 아름다움을 느꼈다면 그것이 바로 비장미라고 할 수 있단다.

10 서술형 시인은 가족끼리 흠어져 혼란에 빠진 거미 가족의 모습을 통해 일제의 수탈로 가족이 해체된 우리 민족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마치 큰 혼란에 빠진 것과 같다고 생각하여 '수라'라는 제목을 지었을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수라'라는 제목을 지은 이유를 적절하게 썼다.	☐
'거미 가족'과 '우리 민족'의 공통점이 드러나도록 썼다.	☐
<조건>에 제시된 형식에 맞게 썼다.	☐

11 ㉠에는 사물이나 추상적 개념과 같은 인격이 없는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여 표현하는 방법인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별들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속삭인다고 표현한 ㉡에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오답인 이유 ①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으로, 대상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도리어 대상에 대하여 잘 알기 어렵다는 말이다. 이러한 속담을 활용하여 표현하는 것은 풍유법에 해당한다.

② '가을밤'을 '동해 바닷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이는 직유법에 해당한다.

③ '나그네'가 걷는 모습을 흘러가는 구름 사이로 비치는 달의 모습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이는 직유법에 해당한다.

⑤ 사랑하는 사람을 간절하게 그리워하는 마음을 '잊었노라'라고 반대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반어법에 해당한다.

12 가난한 생활 형편 때문에 환자를 꾸러 읍내로 가는 '홍부'의 모습에서 조선 후기 백성들의 궁핍한 생활상을 엿볼 수 있으며(㉠), 가난 때문에 매품팔이까지 해야 하는 비극적 상황을 익살스럽게 표현하여 웃음을 유발함으로써 '홍부'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느끼게 하고 있다(㉡). 또한 이 글은 판소리계 소설로, (다)에서 '돈 타령'과 같은 운문체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

오답인 이유 나. 이 글은 '홍부'를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해학은 대상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기보다, 그 대상이 지닌 약점이나 실수까지도 따뜻하게 감싸 준다는 점에서 서술자의 냉소적인 시선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 이 글은 조선 후기의 평범한 백성인 '홍부'가 매품을 팔게 된 사연만 나타나 있을 뿐, 영웅적 활약상은 나타나 있지 않다.

참고 자료

판소리 다섯 마당

하나의 독립된 이야기 줄거리를 지닌 판소리 작품을 마당이라고 부른다. 판소리 열두 마당 가운데 현재까지 전하여 내려오는 다섯 개의 작품은 「춘향가」, 「심청가」, 「흥부가」, 「적벽가」, 「수궁가」이다.

판소리계 소설

판소리계 소설이란, 광대들이 가창한 서사적인 이야기인 '판소리'에서 소설화된 작품들을 일컫는다. 이러한 판소리계 소설에는 「춘향전」, 「심청전」, 「흥보전」 등이 있다. 판소리계 소설 대부분은 판소리 사설이 기록물로 정착되면서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근원 설화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13 (다)에서 '홍부'가 마삿으로 받은 돈으로 배불리 먹어 보자고 한 것은, 모처럼 돈을 벌어 기쁜 마음에 그동안 굶었던 배를 채워 보려 한 것일 뿐, '홍부'의 씹씹이가 헤프다고 볼 수는 없다. '홍부'가 (나)에서 "내 아니꼽게 말 타고 갈 것이 아니라 정강이말로 다녀올 테니 그 돈 닷 냥을 나를 주시오."라고 말하면서 마삿까지 아끼려고 한 것에서도 돈을 아끼려는 '홍부'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나)에서 '아전'이 '홍부'에게 "아니 백씨장이 만석 거부인데 박 생원이 환자 얻는단 말이 어쩐 말이오?"라고 한 것에서, '홍부'의 형은 동생의 사정이 딱한데도 모른 체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③ (나)에서 '홍부'는 '아전'에게 "글쎄 형제간이라도 너무 자주 얻어다 먹고 보니 염치가 없더라고 하하하."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형을 감싸 주고 있다.

④ (라)에서 '홍부 아내'는 '홍부'에게 "바짝 마른 저 불기에 곤장 열 개를 맞게 되면 영락없이 죽을 테니 돈 닷 냥 도로 주고 제발 부디 가지 말아요."라고 말하면서 돈보다 '홍부'의 안녕을 먼저 걱정하고 있다.

⑤ (다)에서 '홍부'가 자신의 아내에게 "대장부 한 번 걸음에 엽전 서른 닷 냥이 들어온다네. 거적문 여소. 돈 들어가요."라고 말한 데에서 돈을 벌게 되어 의기양양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4 (가)에서 서술자는 어설픔게 양반 체면을 차린 '홍부'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함으로써 웃음을 유발하고 있을 뿐, '홍부'의 허례허식을 비판한 것이 아니다. 극심한 가난으로 인한 '홍부'의 처지를 부각함으로써, '홍부'에 대한 연민을 불러일으킨다고 볼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④ '홍부'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매품을 팔아서라도 가정의 도리를 다하려고 한다. 서술자는 이러한 '홍부'의 모습을 해학적으로 표현하면서도, 따뜻한 시선으로 '홍부'를 감싸 안으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② (가)에서 웃을 보관하는 '장'과 닭을 기르는 '닭장'의 발음이 비슷한 것에 착안한 언어유희를 활용하여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③ (라)에서 '홍부'는 매품팔이의 대가로 받아 온 돈을 이미 써 버려 어쩔 수 없이 매품을 팔아야 하는 상황을 "쓸데없는 이 내 불기, 이렇게 궁한 판에 매품이나 팔아먹지 그냥 두어 무엇 할까."라고 말하며

자신을 걱정하는 아내를 안심시키고 있다. 이는 극심한 가난에서 비롯된 비극적 상황을 웃음으로 승화한 것으로, 이러한 '홍부'의 모습에 독자는 연민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샘의 풀이

'언어유희'는 어떤 의미를 암시하거나 전달하기 위해 말이나 동음이의어를 해학적으로 사용하는 표현 방법을 의미해. 예를 들어, 「홍부전」에서 “어허, 닭장은 장이 아닌가? 가서 내 갓도 챙겨 내와요.”라는 표현에서 ‘(웃)장’과 ‘닭장’의 발음이 유사한 것을 이용해 웃음을 유발한 것이 언어유희가 사용된 부분이지.

15 서술형 '홍부'는 처음에는 '아전'에게 존대를 하지 않았지만, 매품팔이 제안을 받은 뒤에는 '아전'에게 존대 말투를 쓰기 시작한다. 이처럼 '홍부'의 말투가 변한 이유는, 매품을 팔아서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진 '홍부'가 '아전'에게 잘 보여서 돈 벌 기회를 잡으려 했기 때문이다.

평가 기준	확인 ☒
'홍부'의 말투가 변한 까닭을 구체적으로 썼다.	☐
'홍부'의 심리가 드러나도록 썼다.	☐
<조건>에 제시된 형식에 맞게 썼다.	☐

(2) 삶을 말하는 문학

학인 문제

● 108~135쪽

- 109쪽 | 1 그 골목은 몹시도 가팔랐다. 2 ②
 111쪽 | 3 ④ 4 ④ 5 '노새'를 늘 봐 왔기 때문이다.
 113쪽 | 6 ③ 7 ① 8 ④ 9 ①
 115쪽 | 10 ④ 11 ⑤ 12 원래 기르던 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13 ④
 117쪽 | 14 ⑤ 15 ⑤
 119쪽 | 16 ⑤ 17 ⑤ 18 ③
 121쪽 | 19 ② 20 ③ 21 ②
 123쪽 | 22 ② 23 ④ 24 ④
 125쪽 | 25 ② 26 ② 27 ① 28 ②
 127쪽 | 29 ③ 30 ③ 31 ⑤
 129쪽 | 32 ④ 33 ④ 34 시장 → 한길 → 한강 다리 → 고속 도로
 131쪽 | 35 ② 36 ④ 37 길 잃은 나그네
 133쪽 | 38 ⑤ 39 얼룩말 40 ②
 135쪽 | 41 ③ 42 ③ 43 산업화와 도시화라는 시대의 변화에 뒤처지는 존재

1 서술형 '아버지'가 노새 마차를 끌고 '가파른 골목길'을 오를 때, 그 골목에 들어설 때부터 마차를 세게 몰았으며, 마차가 언덕의 중간쯤에서 더 올라가지 못하고 주춤거릴 때도 있었다고 하였다. 이것을 통해 '가파른 골목길'이 '노새'가 마차를 끄는 데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자 '아버지'의 고단한 삶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발단 ③'에서 '나'는 새 동네가 생기면서 구동네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고 말하면서, 청소부들이 골목 안까지 차를 들이대고 쓰레기를 퍼 갔다는 것을 예로 들었다.

오답인 이유 ① '발단 ③'에서 우유 배달부가 아침마다 골목을 드나들었다고 하였다.

③ '발단 ③'에서 신문 배달부가 조석으로 골목 안을 누비고 다녔다고 하였다.

④ '발단 ③'에서 수사인 보이가 새벽이면 구두를 닦으라고 외치고 다녔다고 하였다.

⑤ '발단 ③'에서 구멍가게에 새로운 음료수 병과 아이스크림, 굴 상자 등이 진열되었다고 하였다.

3 '전개 ①'의 “그러나 새 동네에서는 단연 달랐다. …… 식모 아가씨도 잠시 발을 멈추고 노새를 바라보았다.”라는 부분에서, 새 동네 사람들이 '노새'에게 관심을 보이며 귀여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새 동네 사람들이 '노새' 모가지에 달린 방울을 한번 만져 보려다가 고개를 젓는 '노새'에 찔끔 놀라기도 했다고 하였지만, 이는 갑작스러운 '노새'의 행동에 놀란 것일 뿐, '노새'를 두려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새 동네 사람들은 '노새'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노새'를 거들떠 보지도 않는 사람들은 구동네 사람들이다.

③ 골목 한쪽에서 오줌을 싸는 '노새'를 골칫거리로 생각하고 휴대하는 사람들은 구동네 사람들이다.

⑤ 무거운 짐을 나르고 있는 '노새'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낸 사람들은 나타나 있지 않다.

4 '전개 ①'의 “그러나 동네의 모습이 …… 누가 다가오는 것을 거절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에서 새 동네 사람들이 구동네 사람들을 거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새 동네 사람들은 가난한 구동네 사람들과의 교류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오답인 이유 ① 구동네 사람들과의 교류를 거부하는 새 동네 사람들의 모습에서 새 동네 사람들이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② 새 동네와 구동네는 골목을 경계로 하여 나뉘었기 때문에, 서로 왕래하기에 먼 거리라고 보기 어렵다.

③ 새 동네가 들어서면서 구동네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 때문에 새 동네 사람들과 구동네 사람들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⑤ 경제적인 차이로 생기는 생활 환경 때문에 새 동네 사람들이 구동네 사람들을 거부한 것이지, 구동네 사람들이 체면 때문에 새 동네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한 것은 아니다.

5 서술형 잘사는 새 동네 사람들은 ‘노새’를 접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노새’를 신기해하지만, 구동네 사람들은 ‘노새’가 익숙하기 때문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6 ‘전개 ②’의 “개네들(새 동네 아이들)은 집 안에서 무얼 하는지 도무지 밖에 나오는 일도 드물었는데,”에서 새 동네 아이들은 밖에 나오는 일이 드물고, 주로 집 안에서 시간을 보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구동네 아이들이 ‘노새’만 보면 엉덩이를 툭 치거나 머리를 쓰다듬는 척하면서 콧잔등을 한 대씩 쥐어박곤 했던 것에서, 구동네 아이들이 짓곳은 장난을 치곤 했음을 알 수 있다.

②, ④ 구동네 아이들은 학교 가는 시간을 빼고는 내내 밖에서 놀면서, 말썽도 잘 부리고 걸핏하면 싸움질과 욕질을 한다고 하였다.

⑤ 새 동네 아이들은 저희끼리 놀다가도 구동네 아이들이 새 동네로 내려가면 하나둘씩 슬며시 자기네 집으로 들어갔다고 한 것에서, 새 동네 아이들이 다른 동네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7 구동네 아이들은 ‘노새’만 보면 짓곳은 장난을 하면서 ‘노새’를 괴롭힌 반면에, 새 동네 아이들은 ‘노새’를 보면 놀던 것도 그만두고 ‘노새’를 따라다니며 신기함과 호감을 표현하였다.

8 ‘아버지’는 새 동네 아이들이 ‘노새’를 신기해하면서 호감을 표현하면, 굳이 그럴 대목이 아닌데도 괜히 “이라 이랏!” 하면서 고삐를 잡아끌었다. ‘아버지’가 이렇게 행동한 까닭은 새 동네 아이들이 좋아하는 ‘노새’를 끌고 있다는 ‘자부심’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9 “우리 구동네 아이들이야 학교 가는 …… 슬며시 자기네 집으로 들어갔다.”라는 부분에서, 구동네 아이들과 새 동네 아이들이 사는 형편이나 노는 방식이 달라 서로 어울리지 못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나’는 ㉠처럼 생각한 것이다.

10 ‘전개 ③’에서는 ‘노새’가 ‘나’의 집에 들어오게 된 사연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년 전까지 말을 부리던 ‘아버지’는 말과 ‘노새’를 바꾸자는 제안을 처음 받았을 때에는 그 제안을 거절하였지만, 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자 두 번째 제안이 왔을 때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오답인 이유 ① “그 노새가 오늘은 우리 집에 없다.”라는 부분이 있지만, 그 이유가 ‘전개 ③’에 나타나 있지는 않다.

② 가족들이 반대하는데도 가타부타 말이 없이 ‘노새’를 우리로 끌고 가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아버지’가 말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아버지’의 말수가 없어진 이유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③ ‘노새’가 우리집에 오게 된 경위만 나타나 있을 뿐 말을 키우게 된 사연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나’는 ‘노새’를 정성스럽게 돌보고 있을 뿐, ‘노새’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11 ‘아버지’는 말로 마차를 끌어 연탄을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노새’는 말보다 힘도 없고 약해 보였기 때문에

‘나’의 가족들은 ‘노새’가 연탄 짐을 제대로 나를 수 없다고 생각하여 말을 ‘노새’와 바꾸는 것에 반대한 것이다. 즉, ‘노새’로는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것이다.

12 서술형 ‘아버지’는 말과 ‘노새’를 바꾸자는 제안을 처음 받았을 때에는 제안을 거절하였지만, 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자 말과 ‘노새’를 바꾸기로 결정하였다.

13 원래 회색빛이었던 ‘노새’는 우리 집에 온 뒤로 차츰 연탄 때가 묻어 검은빛으로 변해 갔다. 이는 연탄 짐을 나르는 고된 노동의 흔적이 몸에 밴 것(ㄴ)이라 할 수 있다. ‘나’는 이런 ‘노새’를 가엾게 생각하고 정성스럽게 연탄 때를 닦아 주는데, 이런 행동을 통해 ‘노새’에 대한 ‘나’의 애정(ㄷ)을 느낄 수 있다.

오답인 이유 ㄱ. 몸에 밴 연탄 때는 ‘노새’가 도시에서 힘겹고 고되게 살아가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노새’의 상황을 비극적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어떤 희망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ㄷ. 연탄 때가 묻어 검은빛으로 변한 ‘노새’는 고된 노동을 하는 도시 하층민의 삶을 상징하지만, 몰인정한 도시 사람들의 태도를 비판한 것은 아니다.



샘의 풀이

‘나’는 ‘노새’를 가엾워하면서 ‘노새’의 몸에 밴 연탄 때를 지우려고 지성스럽게 털어 주고 닦아 주곤 해. 그만큼 ‘노새’에 대한 ‘나’의 애정이 깊다고 볼 수 있어. 이런 ‘나’에게 ‘노새’가 알은체를 하는 것에서 ‘나’와 ‘노새’가 어느 정도 교감을 이루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어.

14 ‘위기 ①’에서 ‘나’의 ‘아버지’가 연탄 가게의 주인이 아니라, 큰길가에 있는 연탄 공장에서 배달 일만 맡고 있다고 하였다.

오답인 이유 ① 연탄 공장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연탄 배달을 맡기면 마음을 놓았다고 한 것에서 ‘아버지’가 연탄 공장 사람들의 신임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아버지’는 가파른 골목길 중턱에서 멈추어 선 연탄 마차를 어떻게든 끌어 보려고 하였지만, 마차는 전혀 움직일 기색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마차가 자꾸 밀려 내려가고 있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평소의 그 답지 않게 사정없이 ‘노새’에게 매질을 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버지’는 평소에 ‘노새’를 거칠게 다루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③ ‘나’가 ‘아버지’를 따라가 연탄 배달 일을 도우려고 하자 ‘아버지’가 한사코 그걸 말린다는 것에서, ‘아버지’는 자식인 ‘나’에게 힘든 일을 시키고 싶어 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④ ‘아버지’가 아무리 찾기 힘든 집이라도 척척 알아낸다는 것을 ‘나’가 자랑스러워한 것에서 알 수 있다.

15 ‘위기 ②’에서 도시 사람들은 ‘나’와 ‘아버지’가 연탄 마차가 미끄러지는 것을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도, 쳐다보기만 할 뿐 아무도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

‘나’는 “옷을 망치면서까지 친절을 베풀 사람은 이 세상엔 없다고 나는 믿어 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시 사람들이 인정이 메마르고 다른 사람의 일에 무관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샘의 풀이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배워 왔고, 굳이 배우지 않았더라도 마음속에는 늘 그런 생각을 품고 있지. 그런데 ‘나’는 오히려 옷을 망치면서까지 친절을 베풀 사람은 이 세상엔 없다고 냉소적으로 말하고 있구나. 한없이 순수한 어린아이인데도 말이야.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으면, 어린아이조차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걸까? 이처럼 작가는 순수한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어른들의 세계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당시의 부정적인 사회상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라.

16 ‘위기 ④’에서 ‘나’ 역시 ‘노새’를 잡으려고 뛰어가는 ‘아버지’를 뒤쫓아 갔음을 알 수는 있지만, ‘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인 이유 ①, ③ ‘위기 ④’에서 ‘노새’가 뛰어가는 모습에 사람들이 놀라는 모습들, 택시가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다가 한바탕 춤을 춘 뒤에야 맞는 모습 등을 제시하며 ‘노새’가 일으킨 소동을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소동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웅성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② ‘위기 ③’에서 “허우적거리며 마차에 질질 끌려가던 노새가 마차가 내박쳐진 자리에서 뿔뿔 일어서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냅다 뛰기 시작한 것이다.”라는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위기 ④’에서 ‘아버지’는 넘어진 상태에서도 뛰어가는 ‘노새’를 쳐다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되었다고 하였다.

17 ‘노새’가 일으킨 소동에 모여든 사람들은, 그저 ‘노새’가 일으키는 소동을 흥밋거리 삼아 구경하고 있을 뿐, ‘노새’를 쫓아가는 ‘아버지’와 ‘나’를 도와주거나 안타까워하지는 않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①, ③ 사람들은 지금의 소동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고 있을 뿐, ‘아버지’를 안타깝게 바라보거나 ‘아버지’를 도우려고 나서고 있지 않다.

② 사람들은 무슨 소동인지 궁금해하고 있을 뿐, ‘노새’가 누구 소유인지에 대해서는 궁금해하고 있지 않다.

④ 사람들은 ‘노새’가 일으킨 소동을 그저 흥밋거리 삼아 구경하고 있을 뿐, 그 소동을 일으킨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려 하지도 않았고, 상황을 수습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찾아 질책하고 있지도 않았다.

18 ‘노새’가 도망가는 모습에 놀란 ‘아버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된 것에서, ‘아버지’가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당황하고 놀랐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당혹감에 ‘아버지’는 엉거주춤한 소리로 “내 노새, 내 노새.”라고 연방 뇌고 있는 것이다.

19 ‘노새’가 도망치자 ‘아버지’는 ‘노새’를 잡으려고 뒤쫓아 뛰

어가 보았지만, ‘노새’를 잡지 못한 채 주저앉아 버린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아버지’와 ‘나’를 구경거리나 되는 듯이 잠깐 쳐다만 볼 뿐, 더 이상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이를 통해 자신의 일이 아니면 관심을 두지 않는 도시 사람들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20 ‘위기 ⑦’에는 5층, 3층 건물들이 즐비한 거리에 가득 넘치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 크고 작은 자동차들이 쉴새 없이 달리는 모습 등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거리가 고요하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1 자동차는 ‘노새’와 같은 운송 수단으로, 앞으로 ‘노새’를 대체하게 될 산업화의 산물이다. ‘나’는 ‘노새’를 찾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에 ‘노새’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자동차가 마치 ‘노새’처럼 보였던 것이다.



샘의 풀이

‘나’는 ‘노새’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 이는 ‘나’가 “두 귀가 쫄긋하고 눈이 멀뚱멀뚱 크고, …… 머리채처럼 꼬리를 길게 늘어뜨린”이라고 하면서 ‘노새’의 외양을 친근하고 사랑스럽게 표현한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지. 이처럼 ‘노새’에 대한 ‘나’의 애정이 깊었기 때문에, ‘노새’를 찾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던 것이라 볼 수 있어.

22 ‘위기 ⑨’에서 ‘나’는 “그러니까 내가 까마귀 새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별로 억울할 것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로 보아 ‘나’가 자신의 별명을 부끄럽게 여겼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인 이유 ①, ③ ‘위기 ⑨’에서 ‘나’가 “그러고 보면 나는 그동안 우리 노새와 깊이 정이 들어 있는지도 몰랐다. …… 그러면 저도 날 알아보는지 그 큰 눈을 한 번 크게 치떴다가 내리곤 했다. 아이들은 그런 나를 더욱 놀려 댔다.”라고 한 것에서, ‘나’는 ‘노새’와 함께 살면서 ‘노새’에 정이 들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나’를 아이들이 놀렸다고 말하고 있다.

④ ‘아버지’는 연탄 배달 일을 하느라 까맣게 연탄재를 뒤집어쓰고 다니는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아버지’는 궂은일을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⑤ 구동네 아이들은 가족들의 직업에 따라 ‘뽕’, ‘뽕’과 같은 별명들이 있었다.

23 구동네 사람들은 연탄 배달, 뽕튀기 장사, 빈대기 장사, 시장 경비, 포장마차 장사 등의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즉, 그날그날 벌어먹고 사는 가난한 소시민인 것이다.



샘의 풀이

‘소시민’이란 노동자와 자본가의 중간 계급에 속하는 소상공인, 수공업자, 하급 봉급생활자, 하급 공무원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즉, 구동네 사람들은 소시민 중에서도 매우 가난한 계층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

24 ㉠은 '나'가 옆구리에 넘어지듯 부닥치자 '나'를 못마땅하게 쳐다보았으며, ㉡은 '나'가 치마꼬리를 밟자 '나'에게 호통을 쳤다. 이처럼 ㉠과 ㉡은 어린아이인 '나'가 무슨 일로 정신 없이 길을 헤매고 다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만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인다. 이를 통해 도시 사람들은 자신의 일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일에는 무관심한 개인적인 성향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25 '나'의 가족들은 밤늦게까지 아무도 잠들지 않은 채 '아버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 같은 가족들의 행동은 유일한 생계 수단인 '노새'를 잃어버린 일이 가족들에게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음을 보여 준다.

오답인 이유 ①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소외감을 느끼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아버지'의 일감이 줄어든 것은 말과 '노새'를 바꾸었기 때문이 아니라,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더 효율적인 운송 수단인 삼륜차가 보급되었기 때문이다.

④ '나'의 가족들이 밤늦도록 '아버지'를 기다린 것은, '아버지'가 '노새'를 잃어버린 사건이 가족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⑤ '절정 ①'의 "예상한 일이지만 아버지는 빈 몸이었고 형편없이 힘이 빠져 있었다."라는 부분에서 '나'는 '아버지'가 '노새'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샘의 풀이

'노새'를 찾으러 간 '아버지'가 통행금지 시간이 거의 되어서 돌아올 때까지 식구들이 아무도 잠들지 않고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나, '노새'를 찾지 못해 실의에 빠진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나'의 가족에게 '노새'가 얼마나 중요한 생계 수단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26 '절정 ①'에서 '아버지'는 "휘발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자동차만 많으면 뭘 해."라고 말하였다. 이는 자신이 평생 해 온 마부 일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낸 것이자, 시대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아버지'의 오기를 나타낸다. 즉,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려 하기보다, 옛것을 고수하려는 '아버지'의 태도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27 ㉠은 '노새'를 찾기 위해 도시의 이곳저곳을 뛰어다녔던 '나'가 깊은 잠에 빠졌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나'가 꾸는 꿈의 내용이 다음에 이어질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28 ㉡는 1970년대 당시 자정 이후 새벽 4시까지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했던 제도로, 이 소설이 1970년대를 배경으로 삼고 있음을 드러낸다. ㉢는 마차와 대비되는 소재로, 도시화·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던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드러낸다.

29 '횡단보도'는 '노새'가 도망치던 길에 있던 것으로, 오히려 파란 불이 켜져 있어 '노새'가 뛰어갈 수 있었다. '연탄 짐', '가

파른 길', '채찍질', '앞길을 막는 사람'은 현실에서 '노새'를 괴롭히던 것들이다.

30 '절정 ②'에 제시된 '나'의 꿈속에서 '노새'가 뛰어다니면서 소동을 일으키자 한 청년이 '노새'의 앞을 가로막았지만, 그 청년은 '노새'가 앞다리를 번쩍 들자 인도로 도망가 버린다.

오답인 이유 ① '절정 ③'에 "아이스크림을 핥고 가던 꼬마 둘이 열싸 안고 넘어졌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② '절정 ③'에 "신사가 한옆으로 급히 비키다가 콘크리트 전봇대에 이마를 찡고"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④ '절정 ②'에 "보통이를 이고 가던 아주머니가 오메 소리를 지르며 펍 그 자리에 넘어지자"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⑤ '절정 ③'에 "군인이 앞사람의 뒤통치에 밟혀 기우뚱하다가 뒤에 오는 할아버지를 안고 넘어졌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31 '노새'는 현실에서 연탄 짐을 나르는 고된 노동을 하며 힘겹게 살아야 했다. 그런데 '나'의 꿈속에서는 그러한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있다. 즉, ㉠은 고된 도시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도시 빈민들의 소망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할 수 있다.

32 '절정 ④'에서는 큰 시장으로 들어간 '노새'가 일으킨 소동이 열거의 방법으로 나열되어 있다. ④는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뛰고', '춤을 춘' 행위들을 열거의 방법으로 나열하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① 설의법, ② 도치법, ③ 의인법, ⑤ 대구법이 사용되었다.

다양한 표현 방법

참고 자료

열거법	내용적으로 연결되거나 비슷한 어구를 여러 개 늘어놓아 전체의 내용을 표현하는 방법
설의법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의문의 형식으로 표현하여 상대방이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표현 방법
도치법	정서의 환기와 변화감을 끌어내기 위하여 말의 차례를 바꾸어 쓰는 표현 방법
의인법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비겨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
대구법	비슷한 어조나 어세를 가진 어구를 짝 지어 표현의 효과를 나타내는 표현 방법

33 '노새'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검은 물'은, '노새'가 연탄 짐을 나르느라 몸에 배인 연탄 때가 땀과 함께 빠져나온 것이다. 즉, '검은 물'은 연탄을 나르는 고된 노동이 '노새'의 삶과 육체에 찌들어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34 **서술형** '절정 ②~③'에 제시된 '나'의 꿈속에서 '노새'는 골목을 뛰쳐나와 '큰길'로 갔다가, '변화가'로 들어가 여러 소동을 일으킨다. 한참을 소동을 일으키던 '노새'는 '절정 ③~④'에서는 다시 '큰 시장'에 들어가 소동을 일으킨 뒤 '한길'로 나왔다가, '한강 다리'를 건너 뒤 '고속 도로'로 이동한다.

35 '절정 ⑥'에서 '나'가 새벽에 '아버지'를 따라 '노새'를 찾으려고 집을 나서는 모습이나, '절정 ⑦'에서 '나'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걸으면서 우쭐한 마음이 들었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나'는 '노새'를 잃어버린 '아버지'를 원망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인 이유 ①, ④ '절정 ⑦'에서 '나'가 '아버지'에게 꿈속에서 '노새'가 뛰어간 '시장'으로 가자고 엉뚱하게 말한 것에서, '나'는 꿈이 현실이 될까 봐 불안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절정 ⑥'에서 '나'는 새벽에 '아버지'를 따라 '노새'를 찾으려고 집을 나내고 있다.

⑤ '절정 ⑦'에서 '나'는 '아버지'와 손을 맞잡고 길을 걸으면서 좀 우쭐한 생각이 들었다고 하였다.

36 '절정 ④'에서 '나'와 '아버지'는 '노새'를 찾으려고 정처 없이 거리를 헤매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내리는 '눈발'은 그들이 '노새'를 찾는 과정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눈발'이 '노새'를 찾을 것임을 암시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37 **서술형** '절정 ④'에서 '나'는 '노새'를 찾기 위해 무작정 길을 헤매고 있는 자신과 '아버지'의 모습을 '길 잃은 나그네' 같다고 생각한다. '나'가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노새'를 찾을 수 있는 방법도 희망도 없이 그저 길을 헤매고 있는 '나'와 '아버지'의 모습이 길은 멀고 해는 저물었는데 쉬어갈 곳도 없는 길을 하염없이 걷고 있는 '길 잃은 나그네'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38 '나'는 '아버지'와 함께 들어간 '동물원'에서 얼룩말을 보면서, '노새'와 '아버지'가 닮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은 '아버지'와 '노새'의 동질성에 대한 인식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동물원'은 '나'가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39 **서술형** '나'는 동물원에서 얼룩말을 보면서, '아버지'와 '노새'가 닮았다고 생각하게 된다. 즉, 얼룩말은 '나'로 하여금 '노새'를 떠올리는 계기를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노새'의 동질성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40 '노새'가 주인인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친 것은 연탄 짐을 나르며 살아야 하는 고된 현실에서 도망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도망치지 못하고, 어떻게든 '노새'를 찾으려고 하고 있다.

41 '절정 ⑪'에서 '아버지'는 '나'에게 자신이 '노새'가 되겠다고 말하면서,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나'는 그런 '아버지'를 따라 함께 웃으면서 '노새' 가족이 된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① '결말 ①'에서 '노새'가 입힌 피해에 절망하며 집을 나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또 한 마리의 노새'가 집을 나가

는 것 같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나'가 '아버지'와 '노새'를 동일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결말 ①'에서 '아버지'는 대포집에 들어가 술을 마시면서 '노새'를 잃어버린 슬픔을 애써 달래었다.

④ '결말 ①'에서 '칠수 어머니'는 현실에 맞지 않게 '노새'를 부리는 '아버지'를 향해 "최소한도 자동차는 굴러야지 지금이 어느 텐데 노새를 부려."라고 하면서 비교했다.

⑤ '결말 ①'에서 '나'는 "우리 같은 노새는 어차피 이렇게 비행기가 붕붕거리고, 대처에서는 발붙이기 어려운 것이기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존재는 도시에서 살아가기 어렵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42 '절정 ⑪'에서 '아버지'는 도망간 '노새'를 대신해 자신이 '노새'가 되겠다고 말하고 있다. '노새'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아버지'가 자신이 '노새'가 되겠다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43 **서술형** 이 글의 제목인 '노새 두 마리'는 연탄 마차를 끄는 진짜 '노새'와 연탄 배달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 나가는 인물이면서 겉모습이 '노새'를 닮은 '아버지'를 가리킨다. '노새'는 비행기, 헬리콥터, 자동차, 자전거가 다니는 시대에 맞지 않게 여전히 가파른 골목길에서 연탄을 힘겹게 나르는 존재이며, '아버지'는 최소한도 자동차는 굴려야 하는 시대에 맞지 않는 '노새'를 부리는 인물이다. 따라서 '노새'와 '아버지'는 모두 도시화·산업화라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채 뒤처지는 존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소단원 평가

148~153쪽

01 ④	02 ④	03 ④	04 새 동네가 생기면서 한번에 연탄을 많이 사들이는 집이 늘어나 '아버지'의 일감이 늘었기 때문이다.	05 ③	06 ③	07 ④
08 ①	09 살얼음	10 ③	11 ①	12 ④		
13 '나'와 '아버지'가 길 잃은 나그네처럼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작정 '노새'를 찾아 길을 헤매고 있었기 때문이다.	14 ②					
15 ⑤	16 ⑤	17 ①	18 ①	19 ③		

01 이 글은 도시화·산업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던 1970년대에, 도시 변두리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하층민들의 고단한 삶을 그리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① 이 글은 도시 변두리에 살고 있는 하층민들의 삶을 그리고 있다.

② 이 글은 어린아이인 '나'가 주인공인 '아버지'의 고달픈 삶을 관찰하여 전달하고 있을 뿐, 주인공의 말과 행동을 통해 웃음을 자아내고 있지는 않다.

③ 이 글은 도시화·산업화의 과정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을 뿐, 전통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지 않다. 이 글에서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마부' 일을 고집하고 있는 '아버지'는 전통을 고수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⑤ 이 글은 전체적으로 '현실 → 꿈 → 현실'의 구조, '현재 → 과거 → 현재'의 구조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02 (가)에서 '나'가 살던 동네는 문화 주택이 들어서면서 그럴 듯한 동네꼴이 잡혀 갔지만, 원래부터 골목 하나를 경계로 새로 생긴 집들과 허름한 집들이 금을 굵듯 나뉘어 있었다고 하였다.

도답인 이유 ① (가)에서 '나'가 살던 동네는 서울의 변두리에 있는 동네라고 하였다.

② (나)를 통해 문화 주택이 들어서면서 새 동네 사람들이 한번에 연탄을 많이 주문하였지만, 구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연탄을 조금씩만 샀음을 알 수 있다.

③ (가)에서 우리 동네가 먼 데서 보면 겉으로는 제법 그럴싸한 동네처럼 보였지만, 안으로 들어와 보면 지저분한 한 동네가 이웃에 널려 있었다고 하였다.

⑤ (다)에서 '나'는 구동네와 새 동네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는 법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가난한 구동네 사람들과 경제적으로 넉넉한 새 동네 사람들이 조화롭게 살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03 (다)에서 구동네 사람들이 '노새'가 오줌을 아무 곳이나 찐다고 타박하거나 '노새'를 흘려보는 모습, (마)에서 구동네 아이들이 '노새'를 괴롭히는 모습을 통해 구동네 사람들이 '노새'를 함부로 대하고 미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다)에서 새 동네 사람들이 '노새'를 보면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모습, (마)에서 '노새'를 보고 놀라거나 칭찬하는 모습을 통해 새 동네 사람들은 '노새'에 대해 신기해하고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4 **서술형** (나)에서 새 동네가 생기면서 연탄을 한번에 많이 사들이는 집들이 늘어나 '아버지'는 멀리까지 배달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아버지'의 일감이 이 동네에서 끝나는 것만이 아니고 여전히 타 동네까지 노새 마차를 몰기도 했다고 하였다. (다)에서는 '아버지'가 배달 일이 늘어나서 속으로는 새 동네가 생긴 것을 은근히 싫어하지 않는 눈치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아버지'는 새 동네가 생기면서 일감이 늘었기 때문에 새 동네가 생긴 것을 반겼다고 짐작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아버지'의 일과 새 동네 간의 상관관계를 밝혀 썼다.	☐
'아버지'가 새 동네가 생긴 것을 반긴 이유를 구체적으로 썼다.	☐

05 (마)에 나타난 새 동네 사람들이 '노새'를 신기해하며 칭찬하는 것을 좋아하는 '나'의 모습과 구동네 아이들이 '노새'를 괴롭히면 아이들에게 화를 내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나'와 '아버지'가 '노새'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6 (라)에서 구동네 아이들은 학교 가는 시간을 빼고는 내내 밖에서 놀면서 말썽을 부리기 일쑤였지만, 새 동네 아이들은 집 밖으로 잘 나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오더라도 저희끼리만 놀았으며, 그렇게 놀다가도 구동네 아이들이 나타나면 슬그머니 집으로 들어갔다고 하였다. 이것은 구동네 아이들과 새 동네 아이들이 서로 어울리지 못하였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러한 상황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에 살고 있는 새 동네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집에 살고 있는 구동네 아이들의 생활 환경이 서로 다르고, 노는 방식도 서로 달랐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처럼 생각한 것이다.

07 (다)에서 '아버지'가 "휘발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자동차만 많으면 뭘 해."라고 한 것은, 시대의 변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낸 것이다. 이를 근거로 산업화·도시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던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이 드러난다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 당시에 가정에서 연탄보다 기름을 연료로 더 많이 사용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도답인 이유 ①, ②, ⑤ (나)에서 사람들이 도망치는 '노새'를 보면서 "별꼴이야, 말 마차가 지금도 있었군."이라고 한 것이나, (다)에서 삼륜차 때문에 마차로 연탄을 배달하던 '아버지'의 일감이 줄었다고 한 것을 통해 도시화·산업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던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다.

③ (다)의 "아버지가 돌아온 것은 통행금지 시간이 거의 되어서였다."라는 부분에서, 야간에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하던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다.

08 (가)에서 '나'가 "사람들은 얼핏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났다가도, 옷을 망치면서까지 친절을 베풀 사람은 이 세상엔 없다고 나는 믿어 오고 있다."라고 한 것에서, '나'는 '거리의 사람들'이 마차가 뒤로 밀려 내려가는 위급한 상황에 처한 '나'와 '아버지'를 도와줄 것이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도답인 이유 ② (가)에서 '나'와 '아버지'가 끄는 연탄 마차가 가파른 골목길에 깔린 살얼음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는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사람들은 '나'와 '아버지'를 도와주지 않는다. 이런 '거리의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 '나'가 냉소적으로 말하는 부분에서 '거리의 사람들'이 지닌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여과 없이 보여 주고 있다.

③, ④ (나)에서 '노새'가 도망치자 당황한 '아버지'가 다급하게 '노새'를 뒤쫓는 모습과 다르게, 사람들은 '노새'가 도망치는 모습을 구경거리 삼아 쳐다만 보고 있다. 이처럼 '아버지'와 '거리의 사람들'을 대비함으로써, '아버지'의 안타까운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거리의 사람들'이 '노새'가 도망치는 모습을 구경거리 삼아 쳐다만 본 것은, 다른 사람의 안타까운 상황을 자기 일처럼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⑤ (나)에서 사람들이 "별꼴이야, 말 마차가 지금도 있었군."이라고 한 것은, 마차가 요즘 시대에 걸맞지 않는 과거의 산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런 '거리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아직도 마차를 끌고 있는 '아버지'는 도시화·산업화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09 **서술형** 길바닥에 한 겹 살짝 깔린 ‘살얼음’ 때문에 마차를 미는 ‘나’의 발도 미끄러지고, ‘노새’도 가파른 골목길을 올라가지 못했다.

10 ‘노새’는 마차에 연탄을 싣고 배달하는 일을 한다. 사람들은 이런 ‘노새’를 보면서 요즘에도 마차가 있었다는 것에 신기해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한 이유는 당시에는 이미 삼륜차가 마차를 대체해 운송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화·산업화의 산물인 삼륜차는 가파른 오르막길도 거뜬히 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노새’는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채 뒤쳐지는 존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11 삼륜차가 등장하면서 자신의 일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아버지’는 “휘발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자동차만 많으면 뭘 해.”라고 큰소리를 친다. 이처럼 ‘아버지’가 큰소리를 치는 까닭은 평생 동안 해 왔던 마차를 끄는 일에 대한 자부심 때문이기도 하지만, 시대의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아버지’의 태도와 가치관은 ‘나’가 ‘아버지’의 말에서 오기를 느낄 수 있었다고 한 것에서 짐작할 수 있다.

12 (다)에서 ‘아버지’는 대포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노새’를 찾지 못한 절망감을 달래다가, ‘나’에게 이제부터 자신이 ‘노새’가 되겠다고 말하고 있다. ‘노새’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아버지’가 자신이 ‘노새’가 되겠다고 말한 것은,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다)에서 ‘아버지’는 ‘노새’를 잃어버린 절망감을 떨쳐 내고 다시 열심히 살아 보고자 하는 의지를 북돋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① ‘나’는 ‘아버지’와 함께 ‘노새’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로 보아 ‘나’가 가족의 일에 방관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라)의 내용을 통해 ‘순경’은 ‘노새’가 입힌 피해 때문에 ‘아버지’를 잡아넣어야겠다고 이르고만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 ‘순경’이 ‘아버지’의 처지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③ (라)에서 ‘나’의 ‘어머니’는 ‘나’와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자, 낮에 있었던 일을 허둥지둥 이야기해 주고만 있을 뿐, ‘아버지’의 삶의 방식을 비꼬고 있지 않다.

⑤ (라)에서 ‘나’는 ‘칠수 어머니’가 “최소한도 자동차는 굴러야지 지금이 어느 텐데 노새를 부려.”라고 했던 말을 떠올린다. 이는 ‘노새’가 산업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시대에 걸맞지 않는 구시대적인 운송 수단이라고 생각을 드러낸 것으로, 옛것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태도와는 거리가 있다.

13 **서술형** ‘나’와 ‘아버지’는 새벽부터 집을 나와 계속 ‘노새’를 찾아다녔지만, 결국 ‘노새’를 찾지 못하였다. 더구나 눈까지 내리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노새’를 찾아 무작정 길을 헤맬 뿐이다. ‘나’는 이러한 처지를 ‘길 잃은 나그

네’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아무런 해결 방법도 없는 막막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나’와 ‘아버지’의 처지가 드러나도록 썼다.	☐
비유적 표현을 인용하여 썼다.	☐

14 ‘아버지’는 대포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노새’를 찾지 못한 절망감을 달래다가, ‘나’에게 자신이 ‘노새’가 되겠다고 말하고 있다. ‘노새’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아버지’가 ‘노새’가 되겠다고 말한 것은, 가족의 생계를 짊어진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다시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북돋고 있는 ②가 적절하다.

15 ‘아버지’는 ‘노새’가 입힌 피해 때문에 자신을 잡아넣겠다고 한 ‘순경’의 말을 전해 듣고는, 다시 절망하여 집을 나서고 있다. ‘나’는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또 한 마리의 노새’가 집을 나간다고 표현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16 이 글의 서술자는 어린아이인 ‘나’이다. 작가는 이러한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아버지’의 고단한 삶을 관찰하게 함으로써,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채 소외되어 가는 도시 빈민층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① (다)에서 ‘아버지’는 ‘노새’를 찾지 못한 절망감을 떨쳐내고, 다시 열심히 살아보고자 하는 의지를 북돋웠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자마자 ‘순경’이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다시 절망한 채 집을 나서고 있다. 독자들은 ‘노새’를 잃고도 희망을 잃지 않던 ‘아버지’가 끝내 좌절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버지’로 상징되는 당시 도시 하층민의 삶에 대해 슬픔을 느낄 수 있다.

②, ③ ‘아버지’는 비행기, 헬리콥터, 자동차, 자전거 등이 마차와 같은 운송 수단을 대체하고 있는 시대에도 마차를 끄는 일을 멈추지 않은 인물이다. 즉, ‘아버지’는 이러한 도시화·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던 당시의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한 채 점차 소외되어 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아버지’가 집을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해 끝내 좌절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④ (라)에서 ‘나’는 절망한 채 집을 나서는 ‘아버지’를 보면서, “우리 같은 노새는 대차에서는 발붙이기 어려운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어린아이인 ‘나’가 사회의 냉혹한 현실을 깨닫는 이 장면을 보면서 독자들은 순수해야 할 나이에 벌써 철이 들어 버린 ‘나’의 모습을 더욱 슬프게 느낄 수 있다.

17 (가)에서 글쓴이는 6월이 되면 1950년 6월을 기억하게 된다고 말하면서, 당시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고 있다. 또한 인민군이 마을에 들어온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육이오 전쟁 당시에 겪었던 경험을 떠올린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② 이 글에서 아이들은 처음에 ‘인민군’을 낯설어하고 무서워하다가, 나중에는 ‘인민군’에게 친근감을 느끼게 된다. 이는 ‘인민군’과 함께 지내면서 정이 들었기 때문이지, 자신의 이익에 따라 태도를 바꾼 것은 아니다.

③ 이 글에서 글쓰이는 어린 시절에 '인민군'에게서 느꼈던 따뜻한 인정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 그 의미를 민족 전체로 확대하고 있지는 않다.

④ 육이오 전쟁이 이념적 대립 때문에 일어난 민족의 비극적 사건인 것은 맞지만, 이 글이 우리 민족의 고통과 아픔을 형상화한 것은 아니다. 글쓰이는 당시에 겪었던 '인민군'과의 일화를 통해, 전쟁 당시에도 느낄 수 있었던 따뜻한 인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⑤ 이 글은 성인이 된 글쓰이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한 것일 뿐, 서술자가 어린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또한 당시의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하고 있지 않다.

18 아이들과 '인민군'이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아이들은 '인민군'을 낯설어하고 무서워하면서 '인민군'과 거리를 두었지만, 한 아이가 내민 옥수수를 '인민군'이 받아먹은 뒤에는 점차 친근감을 느끼면서 가까워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폭격에 다친 아이를 '인민군'이 들쳐 업고 병원까지 달려갔던 사건이 있은 후에 아이들은 '인민군'을 한패가 되었다고 느낄 정도로 매우 친밀하게 생각하였다.

19 ③은 이 글에 나타난 과거의 삶의 모습과 오늘날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비슷한 모습에 초점을 맞추어 글을 감상한 내용이고, 나머지는 이 글에 나타난 과거의 삶과 오늘날의 삶에서 나타나는 다른 모습에 초점을 맞추어 글을 감상한 내용이다.

대단원 평가



162~167쪽

- 01 ② 02 ③ 03** • 시상이 전환된 구절: 아아, 미타찰에서 만날 나 / 도 님아 기다리겠노라. • 말하는 이의 태도: 1~8구에서 말하는 이는 누이의 죽음에 슬퍼하며 삶의 허무함과 무상함을 드러내고 있지만, 9~10구에서는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슬픔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04 ②**
- 05 ④ 06 ④ 07 문밖 08 ⑤ 09 ④**
- 10 ③ 11 ③ 12 ④ 13** • 미적 범주: 골계미, / • 잘 드러나는 문장: 어허, 닭장은 장이 아닌가? **14 ⑤**
- 15 ③ 16 ⑤ 17 ③ 18**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던 '노새'를 찾지 못한 절망감 때문에
- 19 ③ 20 ① 21 ② 22 ③ 23 ③**

01 (가)의 말하는 이는 누이의 말을 인용하듯 “나는 간다는 말도 / 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라고 표현하면서, 어떠한 말도 남기지 않은 채 세상을 일찍 떠난 누이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① (가)의 말하는 이가 “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라고 표현한 것은 자신에게 어떠한 말도 남기지 못했을 정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누이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을 표현한 것이지, 누이를 원망하는 마음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③ (나)의 말하는 이는 자신이 무심코 한 행위 때문에 거미 가족이 헤어지게 된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을 뿐, 거미 가족이 부재한 현실 때문에 쓸쓸해하고 있지는 않다.

④ (나)의 말하는 이는 자신의 행동 때문에 거미 가족이 헤어지게 된 상황과 이로 인해 거미 가족이 마주하게 될 혹독한 현실에 슬퍼하고 있을 뿐, 자신에게 닥친 현실적 고통 때문에 절망한 것은 아니다.

⑤ (가)의 말하는 이에게 누이가 죽은 현실은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에 분노하기보다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슬픔을 극복하려고 있다. (나)의 ‘차디찬 밤’은 혹독하고 부조리한 현실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지만, (나)의 말하는 이 역시 이것에 분노하고 있지는 않다.

02 (가)의 ‘생사(生死) 길’은 죽고 사는 것의 갈림길로, 세상을 떠난 누이와 이승에서 계속 살아가야 할 말하는 이 사이의 경계를 의미할 뿐, 누이가 건게 될 저승길을 의미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불교와 관련된 용어의 의미

윤회 사상	중생이 생사를 거듭하며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삼계 육도를 떠돈다고 보는 사상. 윤회 사상은 업과 더불어 불교적 세계관의 이론적 준거라 할 수 있음.
극락 세계	아미타불이 살고 있는 정토(淨土)로, 괴로움이 없으며 지극히 안락하고 자유로운 세상을 가리킴.
서방 정토	서쪽으로 십만 억의 국토를 지나야 나오는 아미타불의 세계로, 번뇌의 굴레를 벗어난 아주 깨끗한 세상을 가리킴.
미타찰	아미타불이 있는 극락세계를 의미함.
아미타불	서방 정토에 있는 부처로, 수행 중에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큰 뜻을 품고 극락에서 중생을 교화하고 있음.

03 **서술형** 1~8구에서 말하는 이는 누이가 세상을 일찍 떠난 상황에 슬퍼하면서, 삶의 허무함과 무상함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말하는 이는 ‘아아’라는 감탄사를 계기로 시상을 전환하고, 9~10구에서 ‘미타찰’에서 누이와 재회하기를 기대하면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것은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슬픔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시상이 전환된 구절을 찾아 썼다.	☐
말하는 이의 태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전과 후를 비교하여 썼다.	☐

04 (나)에서는 ‘이것의 엄마와 누나나 형이 가까이 이것의 걱정을 하며 있다가’라고 표현하면서 거미 가족을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이 시는 거미 가족을 의인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일제 강점기에 가족 공동체가 해체된 우리 민족의 비극적인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① (나)의 말하는 이는 자신의 감정을 ‘가슴이 찢힌다’, ‘서러워한다’,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와 같이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또한 단정적 어조로 말하고 있지 않다.

③ ‘반어’는 말하는 이의 속마음과 반대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역설’은 겉으로는 뜻이 모순되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 방법이다. 이 시에는 반어와 역설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④ ‘문밖으로 쓸어 버리며’와 같은 문장을 반복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운율을 형성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

⑤ ‘큰 거미’에게 ‘찬 밖이라도 새끼 있는 데로 가라고’ 한 것은, 거미 가족이 다시 만나기를 바라는 말하는 이의 마음을 표현한 것일 뿐, ‘큰 거미’와 대화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샘의 풀이

‘시적 대상’이란 시인의 관심, 의식, 감각이 향하는 대상으로 시상을 전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소재야. 이 시에서 말하는 이는 ‘거미 가족이 서로를 찾는 모습’을 통해 가족의 붕괴에 대한 안타까움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이 시의 시적 대상은 ‘거미’ 혹은 ‘거미 가족’이라고 할 수 있어.

표현 방법

의인법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비겨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
반어법	- 겉으로 표현한 내용과 속마음에 있는 내용을 반대로 표현하는 방법 - 독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며, 그 안에 담긴 진심을 강조할 수 있음.
역설법	- 표면적으로는 모순되거나 부조리한 것 같지만, 그 속에 진실을 드러내는 표현 방법 - 독자에게 참신한 느낌을 줄 수 있으며, 내면의 의미를 강조할 수 있음.

참고 자료

05 (나)의 말하는 이는 1연에서 아무 생각 없이 ‘거미 새끼’를 문밖으로 쓸어 버리지만, 2연에서는 ‘새끼 거미’가 쓸려 나간 곳에 찾아온 ‘큰 거미’를 보면서 ‘큰 거미’가 ‘새끼 거미’의 어미라고 여겨 가슴이 찢릿함을 느낀다. 3연에서는 아린 가슴이 찢기도 전에 들어온 ‘무척 작은 새끼 거미’가 가족과 다시 만나기를 바라면서 그 거미를 문밖으로 버린다. 하지만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차가운 밤’과 같은 혹독한 현실이기에 그저 슬퍼할 뿐이다.

06 (나)는 일제 강점기인 1930년대에 창작된 작품으로, 당시에 일제의 수탈로 인해 가족 공동체가 붕괴된 우리 민족의 비참한 현실을 가족이 해체된 비극을 겪은 거미 가족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즉, ‘수라’라는 제목은 이처럼 비극적인 우리 민족의 암담하고 비참한 현실을 함축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07 **서술형** (나)의 말하는 이는 거미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거미들을 ‘문밖’으로 쓸어 버린다. 즉, ‘문밖’은 거미 가족이 재회하게 될 공간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문밖’은 차디차기만 하다. 그 차가움은 말하는 이의 바

람과는 다르게 거미 가족이 쉽게 만날 수 없게 한다는 점에서, ‘문밖’은 거미 가족에게 주어진 혹독한 시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08 (나)의 말하는 이는 1연에서 무심결에 방 안에 들어온 ‘새끼 거미’를 문밖으로 쓸어 버린다. 그런데 그 자리에 ‘큰 거미’가 나타나자 ‘큰 거미’를 ‘새끼 거미’의 어미로 여겨 가슴이 찢릿함을 느낀다. 이러한 말하는 이의 감정은, ‘새끼 거미’를 애타게 찾는 듯한 ‘어미 거미’에 대한 연민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말하는 이가 아무 생각 없이 했던 행동 때문에 거미 가족이 헤어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죄책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09 ④는 ‘보드라운’과 같은 촉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무척 작은 새끼 거미’를 대하는 말하는 이의 조심스러운 태도를 나타내고 있을 뿐,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말하는 이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지 않다.

오답인 이유 ① (가)의 말하는 이는 누이가 세상을 일찍 떠나게 되면서, 살고 죽는 것의 경계가 멀리에 있지 않고 우리의 삶 가까이에 있음을 인식한다. 그렇기에 말하는 이는 삶과 죽음의 경계 앞에서 머뭇거리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② ‘한 가지’에서 낫다는 것은, 말하는 이와 죽은 누이가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혈육 관계임을 의미한다.

③ (나)가 일제의 수탈이 극심해진 1930년대에 창작된 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차디찬 밤’은 당시의 암울하고 혹독한 시대적 상황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⑤ (나)의 말하는 이는 ‘무척 작은 새끼 거미’를 문밖으로 내보내면서, ‘쉬이 만나거나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비록 혹독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거미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말하는 이의 마음을 나타낸 것이다.

10 (나)의 말하는 이가 거미 가족을 문밖으로 쓸어 버린 행위는, 거미 가족이 다시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지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거미 가족’을 하나의 자연물이라고 볼지라도, ‘문밖’의 차가움은 ‘거미 가족’에게 또 다른 시련을 안겨 주기 때문에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11 ‘홍부’가 (다)에서 ‘아전’에게 말을 타고 가겠다고 한 것은, 마삿조차도 아끼고 싶은 마음 때문이지 걷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은 아니다.

오답인 이유 ①, ② ‘홍부’가 양식을 꾸러 읍내에 나가려고 하는 것, 제대로 된 옷장도 없는 ‘홍부’ 가족의 처지, 매품을 팔아서라도 돈을 벌려고 하는 ‘홍부’의 모습 등을 통해, ‘홍부’ 가족은 매우 궁핍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라)에서 ‘홍부 아내’는 “바짝 마른 저 불기에 곤장 열 개를 맞게 되면 영락없이 죽을 테니 돈 닷 당 도로 주고 제발 부디 가지 말아요.”라고 말하면서, ‘홍부’가 매품을 파는 것을 간곡하게 반대하고 있다.

⑤ (다)에서 ‘아전’은 고을 좌수가 죄를 얻어 곤장을 맞아야 하는데, 좌수 대신 곤장을 맞으면 돈을 벌 수 있다면서 ‘홍부’에게 매품을 팔 것을 제안하고 있다.

12 (나)의 가난 때문에 양식을 빌려야 하는 처지인데도 양반 체면에 아전에게 존대를 할 수 없다며 피를 내는 ‘흥부’의 모습에서, 당시의 양반들은 체면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ㄱ). 또한 (가)와 (다)를 통해 가난한 백성을 구제하기 위한 ‘환자’라는 제도가 존재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ㄴ). (다)에서 돈을 벌기 위해 매품 파는 것을 수락하는 ‘흥부’의 모습에서, 극심한 가난 때문에 매품까지 팔아 가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백성들의 삶을 엿볼 수 있다(ㄷ).

조선 시대의 환곡 제도

환곡 제도란 식량이 모자라는 봄에 관청에서 곡식을 빌려준 뒤 가을걷이 후에 이자를 붙여 갚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 실시했으나 조선 후기에는 오히려 백성들을 가장 괴롭히는 제도가 되어 민란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었다. 구실아치의 농간으로 폐해가 많아 민란이 잦게 되자, 철종 때 폐지되었다.

13  이 글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흥부’의 모습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가난한 ‘흥부’라는 대상과 ‘흥부’가 극심한 가난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고 웃음으로 극복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부조화에서 느낄 수 있는 미의식을 ‘골계미’라고 한다. (가)에서 ‘흥부’가 ‘어허, 닭장은 장이 아닌가?’라고 말하며 ‘닭장’의 ‘장’과 ‘웃장’의 ‘장’의 발음이 비슷한 것에 착안한 언어유희를 하는데, 이러한 언어유희를 통해 ‘골계미’를 느낄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이 글에 나타난 미적 범주를 알맞게 썼다.	☐
이 글에서 주로 나타나는 미의식이 잘 드러나는 문장을 찾아 썼다.	☐

샘의 풀이

‘해학’은 우스꽝스러운 상황에서 생기는 즐거움으로 읽는 이에게 웃음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어, 그러면서도 대상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기보다 그 대상이 지닌 약점이나 실수까지 따뜻하게 감싸안는 표현 방법이야. 이 글에서는 ‘흥부’가 도포를 보관해 둔 장소, ‘장’과 ‘닭장’을 활용한 언어유희, ‘흥부’가 갓을 굴뚝 속에 보관해 둔 이유, 읍내에 가는 ‘흥부’의 옷차림, ‘흥부’가 ‘아전’을 대하는 태도 변화, ‘흥부’가 말하는 불기의 쓰임 등을 표현한 부분에서 우스꽝스럽게 느껴지는 상황을 제시하면서 웃음을 유발하고 있어. 읽는 이는 이러한 즐거움 속에서 해학의 맛을 느낄 수 있단다.

14 이 글은 작품 속 등장인물인 ‘나’가 ‘아버지’의 삶을 관찰하면서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이야기하고 있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소설이다.

참고 자료

시점의 종류

1인칭 주인공 시점	- 작품 속의 주인공인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서술함. - 주인공인 ‘나’가 자신의 심리 및 특정 인물이나 대상에 대한 생각을 자세하게 묘사하여 독자에게 전달함.
1인칭 관찰자 시점	- 작품 속의 주변 인물인 ‘나’가 주인공의 행동과 사건을 관찰하여 서술함. - 서술자가 관찰한 것만 전달하므로 주인공의 심리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음.
3인칭 관찰자 시점	- 작품 밖의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사건을 관찰하여 서술함. - 서술자가 겉으로 드러나는 사실만 객관적인 태도로 전달함.
전지적 작가 시점	- 작품 밖의 서술자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등장인물과 사건에 대해 서술함. - 서술자가 사건의 정황이나 등장인물의 심리까지 모두 자세하게 드러냄.

15 (나)에서 ‘아버지’는 두 주먹을 불끈 쥔 채로 ‘노새’를 뒤쫓아 달려가고 있었다. ‘아버지’가 두 주먹을 불끈 쥔 것은, ‘노새’가 도망치고 있는 상황인데도 도우려고 하기는커녕 나 몰라라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분노 때문일 수는 있지만, ‘노새’를 따라잡지 못하는 자신에게 분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답안 이유 ①, ⑤ (나)에서 ‘나’는 ‘노새’를 찾다가 통행금지 시간이 거의 되어서 돌아온 ‘아버지’를 보면서, ‘예상한 일이지만 아버지는 빈 몸이었고’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나’는 ‘아버지’가 ‘노새’를 찾지 못한 채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라)에서 ‘나’는 얼룩말을 보면서, ‘아버지’의 얼굴이 말이나 ‘노새’와 닮았다고 생각한다.

④ (가)에서 ‘아버지’는 마차가 넘어지면서 몸이 자유롭게 된 ‘노새’가 도망치는 모습을 보면서 얼굴이 새하얗졌다. 이로 보아 ‘노새’가 도망치자 ‘아버지’가 매우 당황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6 (나)의 사람들의 말에서 ‘노새’가 끄는 마차는 당시의 시대적 흐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노새’가 연탄 마차를 끄는 힘들고 고된 생활을 하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노새’는 도시화·산업화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외된 도시 하층민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17 ‘통행금지’ 제도는 일정한 시간 동안 일반인이 거리를 지나다니거나 집 밖으로 활동하는 것을 못하게 하던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광복 직후 미 군정이 실시한 후, 도시화·산업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던 시기에는 자정 이후 새벽 4시까지 일반인들의 통행을 금지하였다. 이를 통해 이 소설이 도시화·산업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던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8  ‘아버지’와 ‘나’는 ‘노새’를 찾아 헤매다가 무심코

동물원에 들어간다. 하지만 ‘아버지’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던 ‘노새’를 잃어버렸기에,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노새’를 끝내 찾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절망하여 ㉠처럼 눈에 초점을 잃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아버지’의 얼굴에 ㉠과 같은 표정이 나타난 이유를 구체적으로 썼다.	☐
‘아버지’의 심리가 드러나도록 썼다.	☐

19 (마)에서 ‘아버지’는 ‘노새’를 잃어버린 슬픔과 절망감 때문에 술을 연거푸 마시다가, ㉡에서 자신이 노새가 되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겠다고 열심히 살아갈 의지를 다지고 있다.

20 (가)에서 도시 사람들은 마차가 골목길 아래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애써 버티고 있는 ‘아버지’와 ‘나’를 보고도 그냥 지나갔다. 또한 (나)에서 도시 사람들은 ‘노새’가 도망치는 모습을 흥밋거리 삼아 구경만 하고 있을 뿐, ‘노새’의 뒤를 쫓고 있는 ‘아버지’를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는다. 따라서 ‘나’와 ‘아버지’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따뜻한 정을 느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인 이유 ㉡ (나)에서 ‘노새’가 도망치는 것을 구경하던 사람이 “별 꼴이야. 말 마차가 지금도 있었군.”이라고 말한 것에서, 사람들은 말 마차를 시대에 뒤쳐지는 구시대적인 운송 수단이라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 (마)에서 ‘아버지’는 ‘노새’를 잃어버린 절망감을 떨쳐 버리려고 대궐집에 들어가 술을 계속 마신다. 이런 ‘아버지’를 걱정한 ‘나’는 ‘아버지’에게 술을 그만 드시라고 말하고 있다.

㉣ (나)에서 사람들은 ‘노새’가 도망치는 모습을 흥밋거리 삼아 구경만 하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도망치는 ‘노새’를 어떻게든 잡으려고 열심히 뛰어가고 있었다.

㉤ (가)에서 ‘나’는 사람들이 마차 미는 것을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낫다가도, 그 마차가 싼고 있는 짐이 연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자신의 옷이 더러워질까 봐 감히 손을 내밀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다. 사람들이 이와 같이 행동한 것은, 어려움에 처한 상대방을 돕기보다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1 유년 시절에 육이오 전쟁을 겪었던 글쓴이가 인민군 병사와 사십 없이 친구가 되었던 기억을 회상하는 내용이다(㉠). 또한 육이오 전쟁이 일어나면서 서울이 인민군에게 점령당한 뒤의 상황과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다(㉡).

오답인 이유 ㉠. 어른이 된 글쓴이가 자신이 유년 시절에 겪었던 육이오 전쟁 때의 상황을 떠올리고는 있지만, 오늘날의 관점에서 과거의 삶을 비판하는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 육이오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에 대하여 어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22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하면서 동네 언덕에 있는 성당의 수위실 앞에 보초를 서기 시작하였다. 처음에 아이들은 그런 인민군이 낯설고 두려워서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모습이 ㉠에 나타난다. 그러던 중 한 아이가 ‘인민군’에게 내민 옥수수를 ‘인민군’이 받아먹게 되면서, 아이들은 ‘인민군’을 더 이상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낯설어하지 않고 친근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모습이 ㉡에 나타난다.

샘의 풀이

처음에는 ‘인민군’을 낯설어하면서 멀리하던 아이들은 옥수수를 나눠 먹은 이후로 ‘인민군’을 친구처럼 대하게 되었어. 또 폭격으로 다쳐 쓰러진 아이를 들쳐업고 병원으로 달려가서 치료를 받게 하고 다시 아이의 집까지 데려다 준 ‘인민군’의 모습을 본 아이들은, ‘인민군’과 완전한 친구가 되었다고 느끼지. 낯설고 두려웠던 ‘인민군’도 다른 아이들과 다르지 않은 따뜻한 인간임을 알게 된 거야. 모처럼 친구가 되었지만 ‘인민군’ 소년병은 전쟁이라는 상황 탓에 다시 일선으로 가야 했어. 이때 총을 잡고 울면서 헤어짐을 슬퍼하는 ‘인민군’의 모습을 통해 ‘인민군’도 군인이 아니라 평범한 어린아이와 똑같았음을 깨달을 수 있단다.

23 (가)의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나는 …… 인민군 치하에 남아 있었다.”라는 부분으로 미루어 볼 때, 당시는 인민군이 남한을 침략하여 서울을 점령하고 통치하던 시기였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인 이유 ㉠ 제시된 글에서는 아이들이 총검술을 학교에서 배웠는지 알 수 없다.

㉡ (나)에서 아이들이 ‘인민군’을 낯설어하고 있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만, ‘인민군’에게 적대감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 (가)를 통해 동네의 하늘이 까맣게 될 정도의 심한 폭격 때문에 아이들이 다치는 등 사람들이 고통받았음을 짐작할 수는 있지만, 사람들이 끼니조차도 제대로 때우지 못할 만큼 어렵게 생활하였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 제시된 글에는 인민군이 사람들을 전쟁터로 끌고 가는 모습이 나타나 있지 않다.

샘의 풀이

육이오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군이 북위 38도선 이남으로 기습적으로 침공하면서 일어난 전쟁이야. 그전까지만 해도 평범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전쟁을 겪으면서 어떤 경험을 했을지 생각해 보면 이 글에 나타난 아이들의 삶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을 거야.

중간고사 1회



168~173쪽

- 01 ④ 02 ⑤ 03 ④ 04 ③ 05 플라
스틱 사용을 줄이자. 06 ③ 07 ③ 08 ⑤
09 ② 10 ④ 11 ⑤ 12 ② 13 현 망
건을, 어식비식이 내려간다 14 ② 15 ② 16 일제
의 수탈과 탄압으로 인한 우리 민족의 시련과 고통을 의미한다.
17 ④ 18 ⑤ 19 ① 20 삼륜차 21 ⑤
22 ② 23 ④ 24 ⑤ 25 '노새'처럼 도시화·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한 존재
는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01 이 글은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먼저 살펴본 다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고 말하고 있을 뿐, 여러 해결 방법을 비교하고 있지 않다.

오답인 이유 ① (다)에서 플라스틱 제품을 쉽게 재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회의 통념과 달리, 플라스틱 제품을 재활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② (가)에서 플라스틱이란 무엇인지 정의함으로써, 플라스틱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③ (나)에서 플라스틱이 분해되려면 500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이 걸린다는 의견과 플라스틱이 분해되는 기간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여,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⑤ (마)에서 플라스틱이 썩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플라스틱을 편하게 쓰고 쉽게 버려도 되는 것인지를 먼저 물어본 다음,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고 답하고 있다.

02 <보기>의 학생은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용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글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였다. 이는 배경지식이 부족한 데에서 비롯된 문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학생에게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미세 플라스틱'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본 다음 글을 다시 읽어 보라고 조언해 주는 것이 적절하다.



샘의 풀이

단순히 단어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라면, 글의 앞뒤 맥락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어. 하지만 특정 용어는 앞뒤 맥락만으로 그 의미를 짐작하기 어려울 수도 있단다. 이때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그와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아야 해.

03 (나)에서 플라스틱이 분해되려면 500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이 걸리며, 어떤 전문가들은 플라스틱이 분해되는 기간을 정확히 알 수 없다고도 말한다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나)를 통해서 플라스틱이 분해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알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플라스틱의 뜻과 매우 가볍고, 모양을 변형하기도 쉽고, 다양한 빛깔로도 만들 수 있는 플라스틱의 장점을 제시하

고 있다.

② 이 글에서는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③ (나)에서는 지금까지 인류가 생산한 플라스틱이 썩지 않고 지구 어딘가에 아직 그대로 남아 있음을 설명하고 있으며, (라)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⑤ (가)에서 매우 가볍고, 모양을 변형하기도 쉽고, 다양한 빛깔로도 만들 수 있는 플라스틱의 장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플라스틱이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04 (나)와 (다)에서 글쓴이는 사람들이 플라스틱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플라스틱을 편하게 쓰고 쉽게 버리지만, 생각만큼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라)와 (마)에서는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말하면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고 말하고 있다. 이로 보아, ㉠에는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음.'을 뜻하는 '소탐대실(小貪大失)'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인 이유 ① '조삼모사(朝三暮四)'는 간사한 꾀로 남을 속여 희롱함을 이르는 말이다.

② '일거양득(一舉兩得)'은 한 가지 일을 하여 두 가지 이익을 얻음을 이르는 말이다.

④ '조족지혈(鳥足之血)'은 새 발의 피라는 뜻으로, 매우 적은 분량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⑤ '설상가상(雪上加霜)'은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는 뜻으로,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말이다.

05 **서술형** 이 글의 글쓴이는 (가)~(라)에서 플라스틱의 의미와 장점, 플라스틱이 재활용되기 어려운 이유,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문제 등을 살펴본 다음, (마)에서 플라스틱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은 어렵겠지만,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다면 줄여 보자고 말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글쓴이가 주장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밝혀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06 (다)에서 글쓴이는 사람들의 생각보다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의 양이 많지 않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를 고려한다면 다 쓴 플라스틱을 수거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재활용해야겠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것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적절하다.

07 '정온'은 (라)에서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자원 고갈의 심각성을 근거로 제시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을 뿐, 청중의 감정에 호소하고 있지 않다.

오답인 이유 ① 이 토론의 논제는 '교실에서의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해야 한다.'로, '나현'과 '미르'는 이 논제에 대하여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② '나현'은 (가)에서 행복 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을 근거로 제시하여 교실에서의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④ '현중'은 (나)에서 학교 행정실장님의 말씀을 근거로 들어, 중앙에서 에어컨을 관리하는 방식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⑤ '미르'는 (다)에서 미국의 한 경제 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를 근거로 들어 교실에서의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08 <보기>는 네덜란드의 한 의과 대학 연구팀에서 연구한 결과로, 사람에게 따라 추위나 더위를 느끼는 온도가 다르다는 것을 입증한 사례이다. 따라서 <보기>는 학생들이 에어컨의 온도를 자율적으로 조절한다고 해도 모두가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교실에서의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마)의 '현중'이 활용하기에 적합한 자료이다.

09 '나현'은 "학교의 설립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라고 먼저 질문한 다음, 그에 대해 직접 답함으로써 청중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ㄱ). 또한 '나현'은 '현중'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해서는 안 된다고 (나)에서 주장한 내용을 반박하고 있다. 즉, '나현'은 '초·중등 교육법 제2조'라는 현행법을 근거로 '현중'이 (나)에서 주장한 내용과 근거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을 반박한 것이다(ㄴ).

10 <보기>의 학생은 학교에서 단축 수업을 하거나 휴교를 하는 목적이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함이지, 학습권을 침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바)에 제시된 찬성 측 주장이 합리적이지 않음을 지적한 것이다.

11 ㉠에서 '현중'은 찬성 측 토론자의 주장에 대하여 타당한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반박한 것이 아니라, 논제와 관련 없는 찬성 측 토론자의 평소 학습 태도를 근거로 들어 상대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비난하고 있다.

12 (가)에서는 비유 표현을 활용하여 세상을 일찍 떠난 누이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을 노래하고 있을 뿐,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지 않다.

오답인 이유 ① (가)의 '미타찰'은 아마타 부처님이 계시는 서방 극락 세계를 가리키는 말이다. 말하는 이는 이곳에서 죽은 누이와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는 불교의 윤회 사상에서 비롯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

③ (나)에서는 시적 대상인 '거미 가족'을 의인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일제 강점기에 가족 공동체가 해체된 우리 민족의 비극적인 처지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④ (나)의 말하는 이는 1연에서 아무 생각 없이 거미 새끼를 문밖으로 쏘아 버렸지만, 2연과 3연으로 시상이 전개되면서 점차 가족과 헤어진 거미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이 시는 시상이 전개되면서 말하는 이의 정서가 점층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⑤ (다)에서 양식을 빌리려 읍내에 나가는 '흥부'의 모습, 너무나 가난하여 웃장조차도 없는 '흥부' 가족의 처지를 통해 당시의 백성들이 매우 가난하게 살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13 **서술형** (다)에서는 양반이라는 신분 때문에 의관을 갖추어 입기는 하였으나 형편이 어려워 그 차림이 매우 궁색한

'흥부'의 외관을 '헌 망건을 꺼내 쓸 때 여덟 팔 자 걸음으로 어식비식이 내려간다.'라고 열거하여 묘사함으로써, '흥부'의 모습을 해학적으로 표현하여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14 (가)의 말하는 이는 1~8구에서 죽은 누이에 대한 슬픔과 삶의 허무함을 드러내고 있었지만, 9~10구에서는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슬픔을 극복하고 있다. (나)의 말하는 이는 1연에서 방 안에 들어온 '거미 새끼'를 무심히 문밖으로 쏘아 버렸지만, 2연에서는 방 안에 들어온 '큰 거미'를 '거미 새끼'의 어미로 여기면서 '큰 거미'에 대한 연민과 가족이 헤어진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3연에서는, 1~2연에서 문밖으로 버렸던 '거미 새끼'와 '큰 거미'의 가족으로 여길 수 있는 '무척 작은 새끼 거미'를 보드러운 종이에 받아 문밖으로 버리면서 슬퍼하고 있다. 이처럼 (가)와 (나)의 말하는 이는 시상이 전개되면서 감정과 태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① (가)의 '미타찰'은 아마타불이 계시는 서방 극락 세계를 가리키는 말로, 말하는 이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세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의 '문밖'은 '거미 가족'이 재회하게 될 공간이기는 하지만, 혹독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로 보아 '문밖'을 말하는 이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세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가)에서는 비유 표현을 활용하여 세상을 일찍 떠난 누이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고 있을 뿐, 시적 대상인 누이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나)에서는 '거미 가족'을 의인화하여 일제 강점기에 가족 공동체가 해체된 우리 민족의 비극적 현실을 표현하고 있을 뿐, 대상인 '거미 가족'의 본질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④ (가)에는 촉각적 심상이 나타나 있지 않다. (나)에는 '보드러운'과 같은 촉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무척 작은 새끼 거미'를 조심스럽게 대하는 말하는 이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⑤ (가)와 (나)의 말하는 이는 모두 시적 대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15 (가)의 ㉠에는 세상을 일찍 떠난 누이에 대한 슬픔이 드러나 있으며, ㉡에는 삶에 대한 무상함과 허무감이 드러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④ ㉠과 ㉡에서는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삶의 무상함이 드러나 있지만, ㉢에서는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하여 슬픔을 극복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즉, ㉢에서 시상이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③ 말하는 이는 ㉢에서 먼 미래에 '미타찰'에서 누이와 재회할 것을 기약하고는 있지만, ㉠에서 과거를 회상하고 있지는 않다.

⑤ ㉠에서 ㉢로 시상이 전개되면서 슬픔이 심화되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에서는 시상이 전환되면서 슬픔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6 **서술형** (나)는 일제 강점기에 창작된 작품이다. 이를 고려한다면 '차가운 밤'은 일제의 탄압과 억압으로 인한 우리 민족의 시련과 고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의 상징적 의미를 작품이 창작된 시대적 배경과 관련지어 썼다.	☐
㉠의 상징적 의미를 당시 우리 민족이 처한 상황과 관련지어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17 ㉔는 말하는 이가 무심코 한 행동 때문에 ‘거미’ 가족이 흩어진 상황에 대한 미안함과 어머 거미를 찾는 듯한 ‘무척 작은 새끼 거미’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을 나타낸 것이다.

18 (다)에서는 토속적인 어휘의 사용과 과장되거나 왜곡된 표현을 통해 골계미를 자아낸다. 또한 삶의 비극적 상황을 웃음으로 극복하고 있는 데에서 해학미를 느낄 수 있다.

19 이 글은 도시화·산업화의 과정 속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한 채 소외된 도시 하층민의 애환을 그린 작품이다.

오답인 이유 ② 이 글은 ‘노새’가 입힌 피해 때문에 결국 좌절하고 마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을 뿐, 두 인물을 대조하고 있지는 않다.

③ 이 글은 어린아이인 ‘나’의 시선으로 주인공인 ‘아버지’의 삶을 관찰하여 전달하고 있다.

④ 이 글은 급속하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한 ‘아버지’의 삶을 그리고 있지만, ‘아버지’를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

⑤ 이 글은 도시화·산업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점차 소외되어 가는 도시 하층민의 삶을 그리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도시화·산업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었다고 보기 어렵다.

20 **서술형** (가)에서 ‘나’는 ‘삼륜차’가 등장하면서 ‘아버지’의 일감을 ‘삼륜차’에 빼앗기기도 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삼륜차’는 산업화의 과정 속에서 나타난 새로운 운송 수단으로, 산업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21 (나)에서 ‘나’가 이제부터 자신이 ‘노새’가 되겠다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는, 형과 ‘나’, 어머니와 할머니도 모두 ‘노새’가 되는 것인가 하고 생각하였을 뿐, 다른 사람이 ‘나’의 가족에게 ‘노새 가족’이라는 별명을 붙인 것은 아니다.

오답인 이유 ① (나)에서 ‘아버지’가 술잔을 놓지 않고 계속 술을 마셨던 까닭은, ‘노새’를 잃어버린 시름을 달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②, ④ (다)에서 ‘노새’가 입힌 피해 때문에 자신을 잡아넣겠다고 한 ‘순경’의 말을 전해 들은 ‘아버지’는 이에 절망한 채 집을 나섰다.

③ (가)에서 ‘나’가 “아버지는 원래가 마부였다. 서울에 올라오기 전 시골에서도 줄곧 말 마차를 끌었다.”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22 (가)에서 ‘아버지’는 시대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평생 동안 해 왔던 마부 일에 대한 자부심을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다)에서 ‘아버지’는 ‘노새’가 입힌 피해 때문에 결국 좌절하게 된다. 즉, ‘아버지’는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시화·산업화의 혜택에서 소외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23 (나)에서 ‘아버지’는 가족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던 ‘노새’를 잃어버린 절망감과 슬픔을 달래며 술을 마시다가, 이제부터 자신이 ‘노새’가 되겠다며 다시 살아갈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아버지’가 다시금 살아갈 의지를 드러낸 것은, 자신만

을 바라보는 ‘가족’의 생계를 어떻게든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24 ‘삼륜차’ 때문에 일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버지’는 ㉔과 같이 말하면서 오기를 부린다. ‘아버지’가 이와 같이 오기를 부리는 까닭은, 자신이 평생 동안 해 왔던 일에 대한 자부심 때문이기도 하고, ‘삼륜차’에 자신의 일감을 모두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걱정을 가족들에게 숨기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25 **서술형** ‘나’는 집을 나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 같은 노새는 …… 대처에서는 발붙이기 어려운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나’가 이렇게 생각한 까닭은, 도시에 적응하지 못한 ‘노새’가 결국 도망치고 만 것처럼, ‘아버지’ 역시 도시화·산업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절망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노새’가 상징하는 바가 드러나도록 썼다.	☐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이 드러나도록 썼다.	☐

중간고사 2회



174~179쪽

- 01 ② 02 ③ 03 ① 04 • 편하다고 무분별하게 플라스틱을 사용하다 보면 결국 그 피해는 인간에게 더 크게 돌아오게 된다. / • 우리가 편하게 쓰는 플라스틱이 사실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05 ③ 06 ①
- 07 적정 기술은 한 공동체의 문화·정치·환경적인 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된 기술이다. 08 ③ 09 행복 추구권 10 ① 11 ③ 12 ⑤ 13 ④
- 14 ③ 15 ④ 16 일제의 수탈로 가족이 해체된 우리 민족의 모습 17 ① 18 ④ 19 • ‘흥부’의 상황: ‘흥부’는 환자를 얻기 위해 신분이 낮은 아전들에게 잘 보여야 함. • ‘흥부’의 대처 방식: 자신의 체면을 차리기 위해 말끝을 ‘고’와 ‘제’로 달기로 함. 20 ④ 21 이웃 간에 소통과 교류를 하지 않는다. 22 ④ 23 ④
- 24 아버지 25 ④

01 주장하는 글(논설문)은 글을 구성 단계별로 나누어 각각의 중심 내용을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 전체의 주제를 파악하며 읽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인 이유 ① 글을 읽을 때에는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이나 배경지식을 활용하며 읽어야 한다.

③ 주장하는 글을 읽을 때에는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를 파악하고, 그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판단하며 읽어야 한다.

④ 글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앞뒤 문맥을 고려하여 의미를 짐작해 보거나, 사전에서 뜻을 찾아 확인하며 읽어야 한다.

⑤ 글을 읽다가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장이 있을 때에는 글에 나타난 정보를 단서로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며 읽어야 한다.

02 (나)의 '수거되지 않는 플라스틱은 산과 들에 아무렇게나 묻히거나 어딘가를 떠돌아다니다 바다로 흘러들어 간다.'를 통해 수거되지 않는 플라스틱이 썩지 않고 산과 들에 묻히거나 바다로 흘러들어 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가)의 '플라스틱이 분해되면 500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이 걸린다고 한다. 어떤 전문가들은 플라스틱이 분해되는 기간을 정확히 알 수 없다고도 말한다.'를 통해 플라스틱이 분해되는 기간을 알 수 있다.

② (나)의 '재활용되지 않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태우거나 매립장에 묻는데, 이는 그나마 수거된 플라스틱 쓰레기에 국한된 이야기이다.'로 볼 때, 수거된 플라스틱 쓰레기 중 재활용되지 않은 것은 태우거나 매립장에 묻는 방식으로 처리함을 알 수 있다.

④ (라)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이 물고기의 내장이나 굴 속에 유입되어 그것을 먹는 우리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플라스틱과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고 있지는 않다.

⑤ (다)의 '플라스틱 조각을 먹이로 착각하여 삼킨 앨버트로스는 결국 영양실조에 걸려 서서히 죽어 갔을 것이다.'로 볼 때, 앨버트로스는 먹이를 구하지 못해 죽었다기보다는 플라스틱을 잘못 삼켜 죽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글에서는 플라스틱 때문에 생태계가 파괴되었다는 언급이 없다.

03 이 글은 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생기는 문제를 제시하면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는 주장을 펼치는 글이다. 따라서 이 글을 읽으면서 플라스틱, 해양 동물들, 분리수거, 재활용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배경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굴 양식업자와의 인터뷰 자료는 이 글의 내용과 관련성이 적으므로 이 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배경지식으로 볼 수 없다.

04 **서술형** '그것'은 플라스틱 제품을 편하게 쓰고 쉽게 버리는 것을 의미하고, '소탐대실'은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의 뒤에는 플라스틱 사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은 편하다고 무분별하게 플라스틱을 사용하다 보면 결국 그 피해는 인간에게 더 크게 돌아오게 된다는 의미 혹은 우리가 편하게 쓰는 플라스틱이 사실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의 의미를 바르게 파악하여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05 플라스틱이 분해될 때 유독 물질이 배출되어 지구의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내용은 이 글에서 찾아볼 수 없다.

오답인 이유 ① (마)에서 글쓴이는 '손이 닿는 곳이면 어디에나 있는 플라스틱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생활하기는 어렵겠지만, 줄일 수 있다면 줄여 보자. 특히 짧은 시간 사용하고 버리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은 더더욱 선택하지 말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대화 내용으로 적절하다.

② (라)에서 미세 플라스틱은 물고기의 내장이나 싱싱한 굴 속에도 유입되어 그것을 섭취하는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한다고 했다. 따라서 대화 내용으로 적절하다.

④ (마)에서 플라스틱은 손이 닿는 곳이면 어디에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건이 많아 쉽게 줄이기 힘들 것이라는 반응도 대화 내용으로 적절하다.

⑤ 현재로서는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찾기 어려운 형편이며 이 글에서도 플라스틱 대체할 수 있는 물질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글쓴이의 주장의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하는 반응도 대화 내용으로 적절하다.

06 이 글에서는 적정 기술의 긍정적 측면만을 다루고 있을 뿐, 적정 기술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오답인 이유 ②, ④ 이 글에서는 과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개발된 적정 기술을 소개하기 위해 (나)에서 적정 기술이 적용된 발명품인 '항아리 냉장고', (다)에서 적정 기술이 적용된 건축물인 '이글루'를 제시하면서 그 원리도 설명하고 있다.

③ 이 글의 갈래는 설명하는 글로 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라)의 '우리도 과학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우리의 삶을 위한 적정 기술을 개발하여, 현대 사회의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 보자.'에 글쓴이의 의견이 나타나 있다.

⑤ (가)의 '유한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적정 기술이다.', (라)의 '우리도 과학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우리의 삶을 위한 적정 기술을 개발하여, 현대 사회의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 보자.'에서 적정 기술이 에너지 문제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글쓴이의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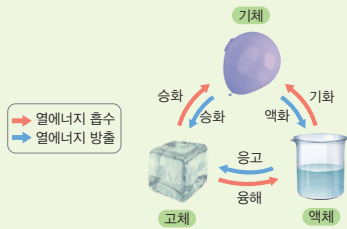
07 **서술형** (가)의 '적정 기술은 한 공동체의 문화·정치·환경적인 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된 기술을 일컫는다.'에 적정 기술의 개념이 제시되어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적정 기술의 개념을 찾아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08 '이글루의 내부 벽에 물을 뿌려 주면, 그 물이 차가운 눈 얼음을 만나 얼면서 응고열을 방출한다.'와 '물은 얼 때 열을 밖으로 내보내므로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는 공기 중의 물방울이 얼음으로 바뀌면서 열을 방출한다.'를 통해 액체가 열에너지를 잃으면 고체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배경지식은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하므로 열에너지의 흡수와 방출에 따른 물질의 상태 변화가 가장 적절하다.

상태 변화와 열에너지

참고 자료



고체가 열에너지를 얻으면 액체 또는 기체가 되고, 반대로 기체가 열에너지를 잃으면 액체 또는 고체가 된다. 그리고 액체가 열에너지를 얻으면 기체로, 열에너지를 잃으면 고체로 상태가 변한다.

09 **서술형** 에어컨 사용 자율화에 대해 ‘나현’은 ‘저는 학생들이 행복 추구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발언하였다.

10 ‘현중’은 ‘교실에서의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해야 한다.’라는 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오답인 이유 ②, ③ 실내 온도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이라는 점을 제시하여 찬성 측의 주장이 공평하지 않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④ 네덜란드의 한 의과 대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믿을 만한 자료이므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⑤ ‘학생 대부분이 교실이 덥다고 느낀다면, 과연 그들이 덥지 않다고 느끼는 소수의 학생들을 배려해 줄까요? 결국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해야 하는데, 학생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까 봐 걱정스럽습니다.’에서 예상되는 문제 상황을 지적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11 ‘나현’은 학교의 설립 목적이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임을 근거로 들어, 반대 측의 주장이나 근거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12 고전적 토론은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각각 두 번의 입론과 반론을 펼치게 되어 있다. (가)에서는 사회자가 토론의 논제를 제시하면서 토론의 시작을 알리고 있으므로, ㉠에는 양측의 토론자가 자기 쪽의 주장을 밝히는 단계인 ‘입론’이 들어가야 한다. (라)와 (마)에서는 토론자들이 상대측의 주장을 소리 있게 비판하면서 자기 측 주장을 변호하고 있으므로, ㉡에는 상대의 주장에 논리적 허점이나 오류가 있는지 살피면서 상대의 주장을 반박하는 단계인 ‘반론’이 들어가야 한다.

13 (가)는 신라 시대의 고승인 월명사가 지은 향가를 현대어로 번역한 것이다.

오답인 이유 ① 죽은 누이를 추모하기 위하여 제사를 지낼 때에 이 노래를 부르자 갑자기 회오리바람이 일어나 관 속에 넣어 두었던 종이돈이 서쪽을 향하여 날아가 버렸다고 하는 배경 설화와 함께 전해진다.

② ‘이른 바람’, ‘떨어질 잎’, ‘한 가지’ 등의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서정성을 높인다.

③ 제목인 ‘제망매가’는 ‘죽은 누이를 위해 제사를 지내며 부르는 노래’라는 뜻이다.

⑤ 이 시의 말하는 이는 죽은 누이를 극락세계에서 다시 만날 것을 믿고, 도를 닦으며 기다리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참고 자료

「제망매가」의 배경 설화

신라 시대의 고승인 월명사가 죽은 누이를 추모하기 위해 제사를 지낼 때였다. 월명사가 이 노래를 지어 불렀더니, 갑자기 회오리바람이 일어났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저승 가는 길에 여비로 쓰라고 관 속에 넣어 두었던 종이돈이 극락세계가 있다고 알려진 서쪽으로 날아갔다고 한다.

14 (가)의 말하는 이는 누이의 죽음을 맞은 상황에 있다. 이처럼 가족과 사별하는 상황을 다룬 시는 딸과 아들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노래한 ③이다. ‘지나해 사랑하는 딸을 잃었고 / 올해에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네.’, ‘두 무덤이 마주 보고 있구나’라는 시구에서 자녀의 죽음을 맞은 말하는 이의 상황이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임이 자신을 버리고 떠나는 이별의 상황에서 임을 붙잡고 싶은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②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지내는 상황에서 자신의 삶을 즐겁고 만족스럽게 여기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④ 전쟁의 상황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결의를 노래하고 있다.

⑤ 고향을 떠난 상황에서 고향의 모습을 떠올리며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샘의 풀이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은 작품이 선지에 제시되어서 당황한 사람도 있을 거야. 하지만 너무 긴장할 건 없단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몇 가지 단서를 가지고 답을 쉽게 찾아낼 수도 있거든. 일단 문제에서 ‘말하는 이의 상황’이라고 한 것에 초점을 맞추자. 상황이란 인물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말해. 이를테면 연인과 이별하는 상황, 고향을 떠난 상황, 시련을 겪는 상황……과 같은 거지. 주의할 점은 말하는 이의 상황과 태도는 다르다는 거야. 상황은 정해진 것이라 말하는 이가 바꿀 수 없어. 그런데 태도는 상황에 대해 말하는 이가 보이는 입장, 마음가짐, 행동 등을 의미하는데, 말하는 이의 의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지. 이걸 혼동하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단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자. 「제망매가」는 누이의 죽음을 맞은 상황에서 쓴 시라는 건 다 알고 있지? 그렇다면 이와 유사한 상황이라면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이 죽은 상황이겠지. ‘딸을 잃었고’, ‘아들을 잃었네’, ‘두 무덤’이라는 시구에서 자녀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나머지 선택지에 제시된 시들은 대상의 죽음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답으로 선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15 말하는 이의 정서는 ‘무심함(1연) → 연민(2연), 서러움(2연) → 슬픔(3연)’으로 심화되고 있다.

- 오답인 이유** ① ‘가제’는 ‘방금’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평안도 방언이다.
 ② 시적 대상인 거미(거미 새끼, 큰 거미, 무척 작은 새끼 거미)를 가족(엄마와 누나나 형)으로 의인화하여 표현하였다.
 ③ 가족의 해체와 붕괴라는 슬픈 상황을 그려 낸 시이지만, 현실적인 한계로 좌절하는 상황이거나 슬픈 감정에서도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⑤ ‘차디찬 밤’은 말하는 이의 차가움(거미를 문밖으로 쫓아 버림)을 부각하며,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16 서술형 말하는 이는 의도하지 않은 행동으로 거미 가족을 흩어지게 만들고, 거미 가족은 말하는 이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는 비극을 겪게 된다. 이를 <보기>에 나타난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여 해석하면, 거미 가족은 일제 강점기 당시 일제의 수탈 속에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지자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 했던 우리 민족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7 ㉠은 말하는 이가 누이의 말을 인용하듯 표현한 부분이다.

- 오답인 이유** ②, ③ ‘이른 바람’에 ‘떨어질 앞’은 이른 나이에 죽음을 맞은 누이를 의미한다.
 ④ ‘한 가지에 나고’는 말하는 이와 누이가 한 부모에게서 태어났음을 의미한다.
 ⑤ ‘미타찰’은 아마타 부처님이 계시는 극락세계를 의미한다. 말하는 이가 도를 닦으며 죽은 누이를 미타찰에서 만나기를 기다리겠다는 것은, 누이를 잃은 슬픔을 종교의 힘으로 극복하겠다는 다짐에 해당하는다.

18 닭장과 옷장이 모두 ‘장’자로 끝난다는 점을 이용한 언어유희(㉡)에서 해학이 잘 나타난다.

19 서술형 (나)에서 ‘홍부’는 관가에 환자를 얻으러 가 양반인 자신보다 신분이 낮은 아전들에게 잘 보여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홍부’는 양반으로서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고민하다가 아전들에게 존대를 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말끝을 ‘고’와 ‘제’로 달기로 한다.

언어유희

개념	말이나 글자를 소재로 하는 놀이. 말장난.
효과	• 독자나 청자의 웃음을 유발함. • 사용하는 맥락에 따라 대상을 비꼬거나 비판하는 뜻을 담을 수 있음.
방법	• 동음이의어를 활용함. 예 “서방[서방(書房), 서방(西方)]인지 남방(南方)인지 걸인 하나 왔다.” • 말의 배치를 바꿈. 예 “말이 빠져서 이가 헛나갔군.” • 발음의 유사성을 활용함. 예 “노새 원님(← 노 생원님)을 내가 타고~.”

참고 자료

20 이 글은 어린아이인 ‘나’의 시선으로 아버지의 고된 삶을 객관화하여 보여 주는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쓰였다.

- 오답인 이유** ① 이 글은 도시화·산업화가 진행되던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가)에 제시된 ‘서울의 변두리’에서 서울의 변두리 동네라는 공간적 배경이 드러나 있다.
 ②, ⑤ 이 글의 주인공은 노새 마차를 끌고 연탄 배달을 하는 가장인 ‘아버지’로, 새로운 운송 수단인 비행기, 헬리콥터, 자동차, 자전거로 대변되는 사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가난한 도시 하층민이다.
 ③ (가)의 ‘이삼 년 전부터 아직도 많은 빈터에 집터가 다져지고, 하나 둘 문화 주택이 들어서더니 이제는 제법 그럴듯한 동네꼴이 잡혀 갔다.’에서 도시화, (마)의 ‘비행기가 봉봉거리고, 헬리콥터가 앵앵거리고, 자동차가 뽕뽕거리고, 자전거가 생생거리는 대채’에서 산업화로 인한 사회의 변화 양상을 엿볼 수 있다.

21 서술형 (나)의 ‘너는 너, 나는 나 하는 식으로 새 동네 사람들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누가 다가오는 것을 거절하고 있었다.’에서 이웃 간에 소통과 교류를 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단적으로 드러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나)에서 알 수 있는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22 ‘고속 도로’는 ‘나’의 꿈 속에서 노새가 이동한 경로의 일부일 뿐 사회·문화적 상황을 나타내는 소재로 보기 어렵다.

- 오답인 이유** ①, ②, ③ 도시화·산업화에 따라 문화 주택이 들어서면서 구동네와 새 동네로 나뉜 상황이다. ‘문화 주택’과 ‘슬래브 집’은 새 동네의 집에, ‘판잣집’은 구동네의 집에 해당한다.
 ⑤ 1970년대 당시의 가정에서는 겨울철에 난방을 위해 ‘연탄’을 보편적으로 사용하였다.

23 ‘노새’가 연탄을 가득 실은 마차를 끌고 넘어가는 ‘가파른 골목길’은 ‘노새’와 동일시되는 인물인 ‘아버지’가 살아야 하는 고단한 삶을 상징한다.

24 서술형 ‘또 한 마리의 노새’는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단하고 소외된 삶을 살고 있는 ‘아버지’를 의미한다.

25 과거의 삶이 반영된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에는, 작품 속 상황을 자신의 기준과 상황에 비추어 보며 내용을 주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 오답인 이유** ①, ②, ⑤ 과거의 삶이 반영된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에는 시대에 따른 인식의 변화 속에서도 오늘날까지 변하지 않는 가치나,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새롭게 평가될 수 있는 가치를 발견하고 통찰함으로써, 삶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③ 과거의 삶이 반영된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 과거의 삶과 오늘날의 삶을 서로 비교해 보면 정서적 경험의 폭을 넓힐 수 있다.

(1) 음운의 세계

소단원 평가

202~205쪽

01 ④	02 ④	03 ②	04 ②	05 ②
06 ①	07 ②	08 ⑤	09 ④	10 ③
11 ⑤	12 ⑤	13 ㄱ, ㅈ, ㅊ	14 ③	15 ②
16 ②	17 ②	18 ①	19 ②	20 ③
21 ②	22 ④	23 ②	24 ⑤	

25 ㉞의 '뚝'은 작은 빗방울이 가볍게 떨어지는 느낌이라면, ㉞의 '뚝'은 굵은 빗방울이 무겁게 떨어지는 느낌이다. 음성 모음 'ㅜ'는 양성 모음인 'ㅗ'에 비해 어둡고 무겁고 큰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26 ⑤

01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로, 자음과 모음이 이에 해당한다.

- 오답인 이유** ①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는 형태소이다.
 ②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소리의 덩어리는 음절이다.
 ③ 분리하여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의 단위는 단어이다.
 ⑤ 생각이나 감정을 완결된 내용으로 표현하는 최소 단위는 문장이다.

02 음운의 종류에는 자음과 모음이 있다. 자음은 공기가 방해를 받으며 나오는 소리로, 그 자체로 홀로 소리 낼 수 없으며 모음을 만나야 소리 낼 수 있다.

03 자음이나 모음이 하나만 바뀌어도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음운이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가장 작은 단위이기 때문이다. '들'과 '달'은 가운뎃소리인 모음 'ㅡ'와 'ㅏ'의 차이로 뜻이 달라졌다.

04 제시된 문장을 구성하는 음운은 'ㄱ, ㄴ, ㅎ, ㅏ, ㅓ, ㅕ, ㅗ'로 총 7개이다. 'ㄴ'은 이중 모음으로 하나의 음운으로 보아야 한다.

05 발음 기관 단면도의 ②에서 소리 나는 자음은 혀끝과 윗니의 뒷부분, 윗잇몸 사이에서 나는 소리인 잇몸소리이다. 잇몸소리에 해당하는 자음은 'ㄴ, ㄷ, ㅌ, ㅍ, ㅊ, ㅌ, ㅍ, ㅊ'이며, 이 중 'ㄷ, ㅌ'는 예사소리, 'ㅌ, ㅍ'는 된소리, 'ㅊ'은 거센소리이다.

오답인 이유 ① ①에서 소리 나는 자음은 두 입술이 닿았다가 떨어지며 나는 소리인 입술소리이다. 이에 해당하는 자음은 'ㅁ, ㅂ, ㅃ, ㅍ'이다.

③ ③에서 소리 나는 자음은 혀바닥과 입천장 앞쪽의 단단한 부분 사이에서 나는 소리인 센입천장소리이다. 이에 해당하는 자음은 'ㄷ, ㅌ, ㅍ'이다.

④ ④에서 소리 나는 자음은 혀의 뒷부분과 입천장 뒤쪽의 부드러운

부분 사이에서 나는 소리인 여린입천장소리이다. 이에 해당하는 자음은 'ㄱ, ㅋ, ㆁ, ㅇ'이며, 이 중 입안이나 코안이 울리는 소리는 'ㅇ'이다.

⑤ ⑤는 목청 사이로, 여기에서 소리 나는 자음을 목청소리라고 한다. 이에 해당하는 자음은 'ㅎ'이다.

06 '소리'에서 자음 'ㅌ'과 'ㄹ'은 모두 잇몸소리이다.

오답인 이유 ② '나무'에서 자음 'ㄴ'은 잇몸소리이며, 'ㅁ'은 입술소리이다.

③ '꼬마'에서 자음 'ㄱ'은 여린입천장소리이며, 'ㅁ'은 입술소리이다.

④ '수정'에서 자음 'ㅌ'은 잇몸소리이며, 'ㅈ'은 센입천장소리이며, 'ㅇ'은 여린입천장소리이다.

⑤ '포도'에서 자음 'ㅍ'은 입술소리이며, 'ㄷ'은 잇몸소리이다.

07 두 입술이 닿았다가 떨어지며 나는 소리인 입술소리에는 'ㅁ, ㅂ, ㅃ, ㅍ'이 있으며, 입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인 콧소리에는 'ㄴ, ㄹ, ㅇ'이 있다. 이 두 조건을 공통으로 충족하는 자음은 'ㄹ'이므로 이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은 ②이다.



생의 풀이

자음의 분류 기준인 '소리 나는 위치', '발음하는 방식'은 반드시 알아두는 게 좋아. 직접 발음을 해 보면서 각각의 자음들이 어디에서 소리 나는지 파악해 보고, 자음이 발음되는 위치를 익히렴. 또 자음을 직접 발음해 보면서 입안이나 코안이 울리는지 그렇지 않은지 구분해 보자. 그리고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을 발음하는 방식을 알아보고 이에 해당하는 자음들을 기억해야 해. 직접 발음하면서 자음 체계표를 함께 보면 쉽게 외울 수 있을 거야.

08 제시된 자음 'ㅌ'과 'ㅎ'은 발음할 때 입안이나 코안이 울리지 않는 소리(안울림소리)이며, 입안이나 목청 사이의 통로를 좁혀 그 틈 사이로 공기를 내보내어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는 소리(마찰음)이다.

오답인 이유 ① 성대 주위의 근육을 긴장시켜 내는 소리인 된소리에는 'ㄱ, ㄷ, ㅌ, ㅍ'과 거센소리 'ㅋ, ㆁ, ㅍ, ㅊ'이 있다.

② 발음할 때 입안이나 코안이 울리는 소리에는 'ㄴ, ㄹ, ㄹ, ㅇ'이 있다.

③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에 방해가 일어나지 않은 소리에는 모음이 있다.

④ 공기의 흐름을 잠시 막았다가 그 막은 자리를 터트리면서 내는 소리인 파열음에는 'ㄱ, ㅋ, ㄷ, ㅌ, ㅍ, ㅊ, ㅌ, ㅍ, ㅊ'이 있다.

09 혀끝을 잇몸에 대었다 떼거나, 잇몸에 댄 채 공기를 그 양 옆으로 흘러보내면서 내는 소리는 흐름소리, 자음 'ㄴ'이 이에 해당한다.

10 발음할 때 입안이나 코안이 울리는 소리에는 'ㄴ, ㄹ, ㄹ, ㅇ'이 있다. 울림소리인 자음만이 사용된 단어는 '양말'이다.

울림소리

콧소리 (비음)	입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 ㅁ, ㄴ, ㅇ
흐름소리 (유음)	혀끝을 잇몸에 대었다 떼거나, 잇몸에 댄 채 공기를 그 양옆으로 흘려보내면서 내는 소리: ㄹ

참고 자료

11 제시된 단어들을 통해 예사소리 ‘ㄱ’, 된소리 ‘ㄲ’, 거센소리 ‘ㅋ’에 따라 소리의 세기와 느낌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예사소리에서 거센소리로 갈수록 성대 주위의 근육을 긴장시켜 숨을 거세게 터트려 내기 때문에, 거센소리는 예사소리와 된소리에 비해 소리의 세기는 강하며, 크고 거친 느낌을 준다.

오답인 이유 ① ‘ㄱ, ㄲ, ㅋ’은 모두 여린입천장소리로 같은 위치에서 소리가 난다.

② 모든 자음이 ‘예사소리-된소리-거센소리’의 체계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ㄱ-ㄲ’의 ‘예사소리-된소리’ 체계도 존재한다. 또한 이러한 체계를 지니지 않는 자음(ㄴ, ㄹ, ㅁ, ㅇ/ㅎ)도 있다.

③ ‘ㄱ, ㄲ, ㅋ’은 순서대로 ‘예사소리-된소리-거센소리’이다.

④ ‘ㄱ, ㄲ, ㅋ’은 모두 발음할 때 입안이나 코안이 울리지 않는 소리이다.

‘소리의 세기’에 따른 안울림소리의 분류

예사소리	발음 기관에 비교적 힘이 조금 들어가서 약하게 숨을 내릴 때 만들어지는 소리: ㄱ, ㄷ, ㅂ, ㅅ, ㅈ
된소리	성대 주위의 근육을 긴장시켜 내는 소리 중, 숨이 적게 터져 나오는 소리: ㄲ, ㄸ, ㅃ, ㅆ, ㅉ
거센소리	성대 주위의 근육을 긴장시켜 내는 소리 중, 숨이 거세게 터져 나오는 소리: ㅋ, ㅌ, ㅍ, ㅊ

‘예사소리 → 된소리 → 거센소리’로 갈수록 크고 강하고 무겁고 거친 느낌을 줌.

참고 자료

12 성대 주위의 근육을 긴장시켜 내는 소리 중, 숨이 거세게 터져 나오는 소리는 거센소리이다. 해당 자음에는 ‘ㅋ, ㅌ, ㅍ, ㅊ’이 있다.

13 **서술형** 입술소리 ‘ㅁ, ㅂ, ㅃ, ㅍ’ 중 콧소리는 ‘ㅁ’이다. 센입천장소리 ‘ㅅ, ㅆ, ㅊ’ 중 예사소리는 ‘ㅅ’이다. 여린입천장소리 ‘ㄱ, ㄲ, ㅋ, ㅇ’ 중 된소리는 ‘ㄲ’이다.

14 잇몸소리에 해당하는 자음은 ‘ㄴ, ㄷ, ㄸ, ㅌ, ㄹ, ㅅ, ㅆ’이며, 이 중 파열음은 ‘ㄷ, ㄸ, ㅌ’이다. 여린입천장소리에 해당하는 자음은 ‘ㄱ, ㄲ, ㅋ, ㅇ’이며, 이 중 파열음은 ‘ㄱ, ㄲ, ㅋ’이다. 이들 음운을 포함한 단어는 ‘가닥’이다.

15 단모음은 혀의 최고점의 위치에 따라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으로 나뉜다.

16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모음은 단모음이다. 단모음에는 ‘ㅏ, ㅗ, ㅛ, ㅜ, ㅠ, ㅡ, ㅣ’가 있다. 이들 단모음으로만 이루어진 단어는 ‘가위’이다.

오답인 이유 ① ‘과목’에서 모음 ‘ㅏ’는 이중 모음이다.

③ ‘겨울’에서 모음 ‘ㅑ’는 이중 모음이다.

④ ‘가요’에서 모음 ‘ㅑ’는 이중 모음이다.

⑤ ‘계곡’에서 모음 ‘ㅑ’는 이중 모음이다.

참고 자료

단모음과 이중 모음

단모음	소리를 낼 때 입술이나 혀가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모음: ㅏ, ㅗ, ㅛ, ㅜ, ㅠ, ㅡ, ㅣ
이중 모음	소리를 낼 때 입술이나 혀가 움직이는 모음: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17 모음 ‘ㅏ, ㅓ, ㅕ’는 전설 모음이자 평순 모음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ㅏ, ㅓ, ㅕ’를 차례로 발음할수록 입이 점점 크게 열려서 혀의 위치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ㅏ, ㅓ, ㅕ’는 각각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에 해당한다.

18 발음할 때 혀의 높이가 가장 낮은 모음은 저모음이다. 저모음에는 ‘ㅓ’와 ‘ㅕ’가 있으므로, 저모음이 사용된 단어는 ‘방’이다.

오답인 이유 ② ‘귀’에서 모음 ‘ㅑ’는 고모음이다.

③ ‘길’에서 모음 ‘ㅏ’는 고모음이다.

④ ‘뇌’에서 모음 ‘ㅑ’는 중모음이다.

⑤ ‘개’에서 모음 ‘ㅑ’는 중모음이다.

19 입천장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하여 혀가 그 앞쪽에 있을 때 발음되는 모음인 전설 모음에는 ‘ㅏ, ㅓ, ㅕ, ㅑ, ㅓ’가 있다. 전설 모음으로만 이루어진 단어는 ‘위기’이다.

오답인 이유 ① ‘과수’에서 ‘ㅑ’는 전설 모음, ‘ㅓ’는 후설 모음이다.

③ ‘고구마’에서 ‘ㅏ, ㅓ, ㅕ’는 모두 후설 모음이다.

④ ‘아침밥’에서 ‘ㅏ’는 후설 모음, ‘ㅓ’는 전설 모음이다.

⑤ ‘우주선’에서 ‘ㅓ, ㅕ’는 모두 후설 모음이다.

20 두 입술이 닿았다가 떨어지며 소리 나는 자음인 입술소리에는 ‘ㅁ, ㅂ, ㅃ, ㅍ’이 있다. 그리고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뒤쪽인 후설 모음에는 ‘ㅏ, ㅓ, ㅕ, ㅑ, ㅓ’가 있으며, 이 중 입술 모양이 둥근 원순 모음에는 ‘ㅓ, ㅕ’가 있다. 자음 ‘ㅁ, ㅂ, ㅃ, ㅍ’, 모음 ‘ㅓ, ㅕ’에 해당하는 음운으로만 이루어진 단어는 ‘봄’이다.

21 ‘개나리’에서 모음 ‘ㅑ’는 전설 모음, 평순 모음, 저모음이고, ‘ㅓ’는 후설 모음, 평순 모음, 저모음이며, ‘ㅓ’는 전설 모음, 평순 모음, 고모음이다. 따라서 평순 모음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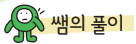
오답인 이유 ① ‘강물’에서 모음 ‘ㅏ’와 ‘ㅓ’는 모두 후설 모음이다.

③ ‘단단해’에서 ‘ㅏ’와 ‘ㅓ’는 모두 저모음이다.

④ ‘야구공’에서 ‘ㅑ’는 이중 모음, ‘ㅓ’와 ‘ㅕ’는 단모음이다.

⑤ ‘개구리’에서 ‘ㅓ’는 저모음, ‘ㅓ’는 고모음, ‘ㅓ’는 고모음이다.

22 첫소리는 센입천장소리 ‘ㅅ, ㅆ, ㅊ’, 가운뎃소리는 후설 모음이자 원순 모음인 ‘ㅓ, ㅕ’, 끝소리는 여린입천장소리 ‘ㄱ, ㄲ, ㅋ, ㅇ’의 조건을 충족하는 단어는 ‘중’이다.



샘의 풀이

이런 유형의 문제는 선지를 각각 다 분석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조건에 있는 항목부터 해당되는 단어가 있는지를 찾아보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어.

23 ‘모과나무’의 ‘과’, 현관의 ‘ㄱ’과 ‘과’가 이중 모음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기>에서 이중 모음이 활용된 시어의 개수는 2개이다.

24 ㉠에서는 잇몸소리이자 흐름소리인 자음 ‘ㄹ’이 쓰였고, ㉡에서는 잇몸소리이자 거센소리인 자음 ‘ㄷ’이 쓰였다. 자음 ‘ㄹ’은 발음할 때 입안이나 코안이 울리면서 나는 소리 중, 혀 끝을 잇몸에 대었다 떼거나, 잇몸에 댄 채 공기를 그 양옆으로 흘려보내면서 내는 소리인 흐름소리이다. 또 자음 ‘ㄷ’은 발음할 때 입안이나 코안이 울리지 않는 소리이자 성대 주변의 근육을 긴장시켜 내는 소리 중, 숨이 거세게 터져 나오는 소리인 거센소리이다. 따라서 ㉢은 ㉠에 비해 굵은 빗방울이 세계 떨어지는, 거칠고 강한 느낌을 준다. 또한 빗방울이 경쾌하게 굴러가는 느낌을 주는 것은 ㉠이다.

25 **서술형** ‘뚱’과 ‘뚱’의 차이는 모음 ‘ㅗ’와 ‘ㅜ’의 차이이다. ‘ㅗ’는 양성 모음으로 밝고 가볍고 작은 느낌을 주는 반면, ‘ㅜ’는 음성 모음으로 양성 모음과 비교하여 어둡고 무겁고 큰 느낌을 준다.

평가 기준	확인 ☒
‘뚱’과 ‘뚱’이 주는 소리의 느낌 차이를 비교하여 썼다.	☐
소리의 밝기가 차이 나는 원인을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의 특징을 활용하여 썼다.	☐

소리의 밝기에 따른 모음의 분류

양성 모음	밝고 가볍고 작은 느낌을 주는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음성 모음	어둡고 무겁고 큰 느낌을 주는 모음: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참고 자료

26 (나)의 ‘김우민’의 ‘ㅜ’는 원순 모음이자 고모음이고, ‘ㅣ’는 평순 모음이자 고모음이다.

오답인 이유 ① <보기>는 일상생활에서 잘못된 발음으로 인해 오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례이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② (가)의 ‘금촌’과 ‘금천’에서 사용된 단모음 ‘ㅡ, ㅓ, ㅕ’는 모두 입천장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하여 혀가 그 뒤쪽에 있을 때 발음되는 후설 모음이다.

③ (가)에서 ‘금촌’의 ‘ㅓ’는 원순 모음이므로 입술을 둥그렇게 오므려서 정확하게 발음해야 상대방의 오해를 해결할 수 있다.

④ (나)에서 ‘김의민’의 ‘ㅣ’는 이중 모음이므로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를 처음과 나중에 서로 달라지게 하여 ‘ㅡ’에서 ‘ㅣ’로 옮겨 발음해야 한다.

(2) 설득 전략이 담긴 연설

확인 문제

● 208~211쪽

209쪽	1 ⑤	2 ③	3 ②
211쪽	4 ⑤	5 ⑤	6 ⑤

1 연설자는 연설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실패가 주는 혜택’과 관련하여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함으로써 청중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청중에게 잘 알려진 사건을 활용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인 이유 ① 서론 ①의 “저는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에 서 있는 여러분에게 ‘실패가 주는 혜택’과 ‘상상력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에서 연설할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② 본론 ②의 “그런데도 저는 왜 ‘실패가 주는 혜택’을 말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이러한 실패를 경험하면서 삶의 군더더기를 없앨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에서 자문자답의 방법을 사용해 청중의 관심을 높이고 있다.

③ 본론 ①의 ‘암흑과도 같은 터널’, ‘터널 끝에 한 줄기 빛’, 본론 ②의 “그렇게 저는 실패를 주춧돌 삼아, 그 위에 제 삶을 다시 튼튼하게 지을 수 있었습니다.”에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④ 본론 ④의 “만약 타임머신을 타고 소름한 살이던 때로 돌아간다면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주고 싶습니다. 원가를 얻고 성취하는 것이 삶의 전부가 아님을 깨달아야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에서 상황을 가정하여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우회적으로 전하고 있다.

2 연설자는 실패가 주는 혜택으로, 삶의 군더더기를 없애 준다는 점, 자기 자신을 알게 해 준다는 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헤쳐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 준다는 점을 언급한다. 또한 본론 ④에서 글쓴이는 “삶은 때로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 것도 실패하지 않고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 그 어떤 고난도 이겨 낼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누구나 실패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당부한다.

3 연설자는 본론 ①에서 “제가 여러분 나이 때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실패였습니다.”라고 말하며 당시 자신이 가장 두려워했던 대상에 대해 밝히고 있다.

4 연설자는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얻은 삶의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

5 연설자는 대학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앞으로 사회에 나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는 일을 하기를 당부한다.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데에는 마법과 같은 큰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상황과 아픔에 공감하는 상상력의 힘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6 연설자는 고대 로마의 현인인 '세네카'의 말이 자신이 청중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잘 표현하고 있으며, 유명인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청중에게 연설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했기 때문에 세네카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쌤의 풀이

연설을 마무리할 때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분야의 전문가나 학자의 말을 인용하는 것은 흔하게 쓰이는 표현 방식 중 하나야.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하기에 유용하기 때문이지. 유명인 혹은 지식인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청중에게 연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으며, 강렬한 인상을 주면서 연설을 끝맺을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지.

소단원 평가



224~227쪽

- 01 ④ 02 ② 03 ⑤ 04 ⑤ 05 ③
 06 ⑤ 07 누구나 인생에서 실패를 겪을 수밖에 없다.
 08 ③ 09 ③ 10 우리의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물질적으로 성공하는 삶(자신만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내면이 충만한 삶(타인을 생각하는 삶)이다. 11 배가 고프지 않아야 집중력이 높아진. 12 ② 13 ② 14 ②

01 이 글은 연설문이다. 연설문은 여러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 등을 말하기 위해 쓴 글이다.

오답인 이유 ① 발생한 사건을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한 글은 기사문이다.

②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글은 설명하는 글(설명문)이다.

③ 문학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현실에 있음직한 일을 꾸며 쓴 글은 소설이다.

⑤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한 문제에 대해 그것의 해결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글은 건의문이다.

02 연설자는 (나)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7년 동안 계속 실패만 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라)에서 실패를 통해 자신이 생각보다 성실하고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새롭게 알 수 있었다고 말한다.

03 연설자는 ㉠을 효과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 실패에 관한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있다. (바)에서 연설자는 청중과 비슷한 나이인 자신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이라고 하면서 청중에게 하고 싶은 말을 우회적으로 전하고 있을 뿐, 과거로 돌아간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지는 않다.

04 연설자는 실패가 주는 혜택에 대해 세 가지로 언급하고 있다. 삶의 군더더기를 없애 주어 자신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일에 열정을 쏟게 된다는 것, 그리고 다른 곳에서 배울 수 없는 자기 자신을 알게 해 주어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고 자신의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 마지막

으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헤쳐 나갈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글의 (마)에서 이러한 깨달음을 얻기까지 혹독한 대가를 치렀지만, 이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05 (가)는 이 글의 서론으로, 이야기할 내용을 소개하고 청중의 관심을 유발하는 역할을 한다.



쌤의 풀이

일반적으로 연설문의 서론에서는 인사를 하고 연설할 내용에 대한 소개를 해. 그리고 본론에서는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며 주제를 전달하지. 이때 다양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말하고자 하는 바를 청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앞서 본론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다시 한번 연설자의 주장을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한다는 것을 기억해 뒀.

06 (다)에서 연설자는 실패를 경험하면서 삶의 군더더기를 없애고,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 일에 에너지를 모두 쏟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따라서 ㉠은 실패의 경험 이후, 자신이 진정 하고 싶었던 일에 열정을 쏟게 됨으로써 성공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07 **서술형** '아무것도 실패하지 않고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를 통해 ㉡이 누구나 인생에서 실패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설자는 ㉢과 같은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일 때 삶의 역경을 헤쳐 나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누구나 인생에서 실패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밝혀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08 이 글은 대학교 졸업 축사를 위해 쓴 연설문으로, 예상 청중은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에 서 있는 졸업생들이다. 이러한 예상 청중과 이 글의 결론 부분에서 연설자가 '여러분은 내면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기원합니다.'라고 말한 점을 고려했을 때, 연설자의 의도는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이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당부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09 연설의 설득 전략에는 이성적 설득 전략, 이성적 설득 전략, 감성적 설득 전략이 있다. 이 중 감성적 설득 전략은 연설자가 청중의 욕망이나 자긍심, 동정심, 분노와 같은 감정에 호소하여 청중을 설득하는 것을 말한다. ㉤에서 연설자는 청중에게 여러분은 훌륭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짊어진 책임도 남다르다고 말하며 청중의 자긍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감성적 설득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10 **서술형** ㉠에서 이야기의 '길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가치, 즉 물질적으로 성공하는 삶, 자신만 생각하는 삶을 의미

한다. 그리고 이야기의 '내용'은 본질적인 가치, 즉 내면이 충만한 삶, 타인을 생각하는 삶을 뜻한다.

평가 기준	확인 ☒
이야기의 '길이'가 의미하는 바('물질적으로 성공하는 삶', '자신만 생각하는 삶')를 밝혀 썼다.	☐
이야기의 '내용'이 의미하는 바('내면이 충만한 삶', '타인을 생각하는 삶')를 밝혀 썼다.	☐

11 서술형 (나)의 본론에서 매점이 필요한 이유로 성장기에 필요한 영양분을 보충할 수 있고, 매점을 이용하여 허기를 채우면 집중력이 높아진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가)의 빈칸에는 '배가 고프지 않아야 집중력이 높아짐.'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평가 기준	확인 ☒
(나)의 내용을 활용하여 배가 고프지 않아야 집중력이 높아진다는 점을 밝혀 썼다.	☐

12 연설자는 해당 중학교의 재학생이며, 서론에서는 연설자의 됴됨이와 전문성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인 이유 ① 연설자는 학교생활 즉, 일상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우리 학교에 매점을 설치해 주세요.'라는 주제를 선정하였다.
 ③ 연설자는 서론에서 배고픈 학생들의 심정을 내세워 청중의 동정심에 호소하는 감성적 설득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④ 연설자는 본론에서 배가 고프는 때에는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는 이성적 설득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⑤ 연설자는 결론에서 우리 학교에 매점을 설치하여 학생들이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며, 다시 한번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13 '정은'은 서론에서 청중의 동정심과 같은 감정에 호소하여 청중을 설득하는 감성적 설득 전략을, 본론에서는 연구 결과나 통계 자료, 전문가의 의견 등을 제시하여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이성적 설득 전략을 사용하였다.

14 연설을 준비할 때에는 청중의 나이, 지식수준, 관심과 요구 등을 분석하여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해야 한다. 연설자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위주로 연설 내용을 구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대단원 평가



236~239쪽

- | | | | | |
|-------------|-------------|-------------|-------------|-------------|
| 01 ② | 02 ⑤ | 03 ④ | 04 ② | 05 ③ |
| 06 ② | 07 ③ | 08 ④ | 09 ⑤ | 10 ④ |
| 11 ④ | 12 ② | 13 ⑤ | 14 ② | 15 ④ |
- 16**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 일에 에너지를 모두 쏟을 수 있다.
17 ② **18**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게 하는 상상력의 힘을 깨달았다. **19** ⑤

01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이다.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는 형태소이다.

02 자음의 분류 기준에는 '소리 나는 위치'와 '발음하는 방식'이 있다.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서 입술소리, 잇몸소리, 센입천장소리, 여린입천장소리, 목청소리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발음하는 방식에 따라 입안이나 코안이 울리면서 나는 소리와 울리지 않는 소리로 나눌 수 있으며, 울리지 않는 소리는 다시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샘의 풀이

소리 나는 위치에 따른 자음의 분류는 '발음 기관 단면도'를 활용해서 함께 외워 두는 것이 좋다. 자음이 소리 나는 곳을 직접 묻기도 하지만, 발음 기관 단면도를 활용해서 빈칸에 들어갈 자음을 묻기도 하거든. 발음 기관 단면도를 참고하여 어느 곳에서 어떤 자음이 소리 나는지 기억해 두.

03 ㉠은 콧소리와 흐름소리로, 발음할 때 입안이나 코안이 울리는 소리이다. 콧소리에 해당하는 자음에는 'ㄹ, ㄴ, ㅇ'이 있으며, 흐름소리에 해당하는 자음에는 'ㄹ'이 있다. 해당 자음들로만 구성된 단어는 '며느리'이다.

오답인 이유 ① '창틈'의 'ㅈ'은 파찰음이자 센입천장소리이며, 'ㅌ'은 파열음이자 잇몸소리이다.

② '눈시울'의 'ㅅ'은 마찰음이자 잇몸소리이다.

③ '자장가'에서 'ㅈ'은 파찰음이자 센입천장소리이며, 'ㄱ'은 파열음이자 여린입천장소리이다.

⑤ '발소리'에서 'ㅂ'은 파열음이자 입술소리이며, 'ㅅ'은 마찰음이자 잇몸소리이다.

04 '도태'에 쓰인 자음은 'ㄷ'과 'ㅌ'로, 잇몸소리이자 파열음에 해당한다.

오답인 이유 ① 입술소리이자 파열음에는 'ㅂ, ㅃ, ㅍ'이 있다.

③ 여린입천장소리이자 파열음에는 'ㄱ, ㅋ, ㆁ'이 있다.

④ 센입천장소리이자 파찰음에는 'ㄷ, ㅌ, ㅈ'이 있다.

⑤ 잇몸소리이자 마찰음에는 'ㅅ, ㅆ'이 있다.

05 소리를 낼 때 입술이나 혀가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모음은 단모음(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이며, 입천장을 기준으로 하여 혀가 그 앞쪽에 있을 때 발음되는 모음은 전설 모음(ㅐ, ㅔ, ㅖ, ㅗ, ㅛ, ㅜ, ㅠ)이다. 발음할 때 입술을 평평하게 하는 모음은 평순 모음(ㅏ, ㅑ, ㅓ, ㅕ, ㅡ, ㅣ)이며, 발음할 때에 입이 조금 열려서 혀의 위치가 높은 모음은 고모음(ㅏ, ㅑ, ㅓ, ㅕ)이다. 이들 조건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것은 'ㅣ'이다.

오답인 이유 ① 'ㅡ'는 단모음, 후설 모음, 평순 모음, 고모음이다.

② 'ㅓ'는 단모음, 후설 모음, 평순 모음, 중모음이다.

④ 'ㅕ'는 단모음, 전설 모음, 평순 모음, 중모음이다.

⑤ 'ㅏ'는 단모음, 후설 모음, 평순 모음, 저모음이다.

06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 중 상대적으로 어둡고 무겁고 큰

느낌을 주는 모음은 음성 모음이다. 음성 모음에는 ‘ㄱ, ㅋ,
ㅌ, ㅍ, ㄷ, ㅌ, ㄴ, ㄹ’ 등이 있다. 이러한 음성 모음이 쓰인
단어는 ‘어영부영’이다.

오답인 이유 양성 모음은 음성 모음에 비해 밝고 가볍고 작은 느낌을 주며, 해당 모음에는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등이 있다.

07 ‘관광’에 쓰인 모습 ‘과’는 소리를 낼 때 입술이나 혀가 움
직이는 이중 모음이다.

오답인 이유 ① ‘학교’에는 ‘ㅎ, ㅌ, ㄱ, ㄴ, ㅍ’ 총 5개의 음운이 쓰였다.

② ‘회사’에서 ‘회’는 전설 모음, 원순 모음, 중모음이며, ‘사’는 후설 모음, 평순 모음, 저모음이다.

④ ‘시설’에서 ‘ㅣ’는 전설 모음, 평순 모음, 고모음이며, ‘ㅛ’는 후설 모음, 평순 모음, 중모음이다.

⑤ ‘요가’에서 ‘요’는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가 움직이는 이중 모음이
고, ‘가’는 입술이나 혀가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단모음이다.

08 ‘수국’에서 ‘ㅅ’은 잇몸소리, ‘ㄱ’은 여린입천장소리이다.

오답인 이유 ① ‘학교’에서는 단모음 1개(ㅏ)와 이중 모음 1개(ㅑ)가 사용되었다.

② ‘강아지’에 쓰인 여린입천장소리는 ‘ㄱ, ㅇ’ 총 2개이다.

③ ‘잔디’에서 쓰인 자음 ‘ㄷ’은 센입천장소리, ‘ㄷ’은 잇몸소리로, 각각 다른 위치에서 발음된다.

⑤ ‘모과나무’에 쓰인 모음들 중 밝고 가볍고 작은 느낌을 주는 양성 모음은 ‘ㅅ, ㅍ, ㅈ’이고, 어둡고 무겁고 큰 느낌을 주는 음성 모음은 ‘ㅂ’이다.

 쌤의 풀이

‘강아지’에서 자음 ‘ㅇ’은 ‘강’의 종성에 쓰인 것 하나뿐이야. ‘아’에서 ‘ㅇ’은 모음으로 시작되는 음절에서 초성의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채우기 위한 것이지, 자음 ‘ㅇ’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야. 음운의 개수를 셀 때에는 초성의 ‘ㅇ’은 포함하지 않도록 해.

09 ㉠ 마찰음, 예사소리는 ‘ㅅ’으로, 이 음운이 쓰인 단어는 ‘수박’, ‘사과’이다. ㉡ 전설 모음, 원순 모음, 고모음에 해당하는 음운은 ‘ㅜ’로, 이 음운이 쓰인 단어는 ‘거위’, ‘가위’이다.

10 **센입천장에서 소리 나는 자음에는 ‘ㄷ, ㅌ, ㄷ’이 있으며,**
여립입천장에서 소리 나는 자음에는 ‘ㄱ, ㅋ, ㅇ’이 있다.
 이 자음들로 초성과 종성을 구성하며, 후설 모음이자 원순 모음인 ‘ㅜ, ㅡ’ 중 하나가 중성으로 결합된 단어는 ‘꽃’이다.

오답인 이유 ① ‘책’은 센입천장소리(ㄷ)와 여린입천장소리(ㄱ)가 쓰였지만, 모음 ‘ㅐ’는 전설 모음이자 평순 모음에 해당한다.

② '은'은 '모음+자음'으로 이루어져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③ ‘뺑’은 입술소리(ㅂ)와 여린입천장소리(ㅇ)가 쓰였고, 모음 ‘ㅏ’는 후설 모음이자 평순 모음이다.

⑤ ‘떡’에서 잇몸소리(ㄸ)와 여린입천장소리(ㄱ)가 쓰였고, 모음 ‘ㅓ’는 후설 모음이자 편순 모음이다.

11 ‘흙’의 ‘ㅎ’은 마찰음이다. 마찰음은 입안이나 목청 사이의 통로를 좁혀 그 틈 사이로 공기를 내보내어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는 소리이다. 공기의 흐름을 잠시 막았다가 그 막은 자리를 떴리면서 내는 소리는 파열음이다.

12 ㉔에서는 양성 모음 ‘ㅏ’가 사용된 반면, ‘흡-흡-흡-흡’에서는 음성 모음 ‘ㅑ’가 사용되었다. 양성 모음으로 읽었을 때는 작은 빗방울이 가볍게 떨어지는 느낌이었다면, 음성 모음으로 바꾸어 읽었을 때는 굵은 빗방울이 무겁게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

13 이 글은 연설(문)로, 연설은 청중을 설득하려는 목적으로 격식을 갖추어 말하는 공적인 말하기이다.

14 연설자는 실패를 했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패가 주는 혜택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실패를 통해 자신이 진정하고 싶었던 일에 열정을 쏟게 되었고,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고,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또한 실패를 극복하면서 인생의 다양한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를 바탕으로 '실패를 통해 배우는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15 (라)에서 실패를 극복하며 강인하고 현명해지면, 어떤 일이 있어도 헤쳐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고 했을 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자신감을 통해 실패를 극복하였다고 한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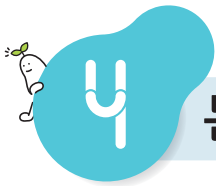
16 **세상형** (나)에서 연설자는 실패를 경험하면서 삶의 군더더기를 없앨 수 있었다고 말한다. 이 말의 의미는 뒤에 나오는 글의 내용에서 찾을 수 있는데, 연설자는 실패 이후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 일에 에너지를 모두 쏟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평가 기준	확인 ☒
중요한 단 한 가지 일에 에너지를 모두 쏟을 수 있다는 내용을 밝혀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17 연설자는 고대 현인의 격언을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에 대한 청중의 신뢰감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이를 인성적 설득 전략(화자가 자신의 됴됨이나 전문성을 바탕으로 청중이 연설에 신뢰를 갖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8  (다)의 마지막 문장에서 연설자는 ‘저는 여기에 서 일하는 동안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게 되는 상상력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한다.

19 ㉔에서 ‘이야기의 길이’는 물질적으로 성공하는 삶, 자신만 생각하는 삶을 의미하고, ‘(이야기의) 내용’은 타인을 생각하는 삶, 내면이 충만한 삶을 의미한다.



4 논리로 여는 세상

(1) 논리적으로 읽기

확인 문제

• 246~251쪽

247쪽 | 1 ① 2 ④ 3 ②

249쪽 | 4 청소년의 사회성을 기를 수 있다. / 청소년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준다. 5 ④
6 ①

251쪽 | 7 ① 8 ③

1 글쓴이는 오이시디(OECD) 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한국 학생들의 학습량은 최상위권이지만, 삶의 만족도는 최하위권을 기록했음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한국 청소년들이 불행하다는 해석을 덧붙이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② 학습하는 양이 많음을 알 수 있지만, 학습 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글쓴이는 청소년들이 그들만의 문화를 형성하고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놀이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④ 학생들의 학습량은 오이시디(OECD) 가입국 중 최상위권이라 밝혔다.

⑤ 한국 학생들의 학습량은 최상위권, 삶의 만족도는 최하위권이라는 것으로 보아, 한국 청소년들은 노는 시간보다 공부하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 글쓴이는 학생들에게 적당한 휴식과 놀이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시간과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청소년들이 친구들과 함께 건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처럼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켜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3 '서론 ㉢'에서 글쓴이는 독자에게 청소년들에게 놀이 공간이 주어지면 어떠한 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하여 질문함으로써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ㄱ). 또한 '서론 ㉠'에서는 평일 방과 후나 주말에 학교 운동장에서 노는 학생들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현실을 이야기함으로써 주제에 대한 독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ㄷ).

오답인 이유 ㄴ. '서론 ㉠'에서 글쓴이는 오이시디(OECD) 가입국 학생들의 학습량 및 삶의 만족도에 대한 조사 결과를 언급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ㄷ. '서론 ㉢'에서 글쓴이는 청소년 놀이 공간 확대의 긍정적 측면에 대해 생각해 보자고 말하면서 앞으로 이야기할 화제를 안내하고 있을 뿐, 화제의 긍정적 측면을 열거하고 있지는 않다.

4 이 글의 글쓴이는 청소년 놀이 공간을 확대했을 때의 효과를 청소년의 사회성 함양의 측면과 청소년 스트레스 해소의 측면에 살펴 보면서, 이를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5 글쓴이는 우리가 태어나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평생 공동체 안에 머무르며 다른 구성원과 더불어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이때 필요한 것이 '사회성'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성'은 다른 사람과 직접 만나고 소통하는 과정, 시행착오를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렇기에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사회성을 기르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말한 것이다.

6 '통계청 조사'와 같은 자료는 출처가 명확한 자료이다. 따라서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② 통계청의 조사 결과는 사례 조사 및 설문 조사와 같은 방법으로 조사한 내용을 수치로 나타낸 것일 뿐, 다양한 견해를 종합한 것은 아니다.

③, ⑤ 글쓴이는 ㉠을 객관적으로 문제 상황을 드러내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을 뿐, 다른 전문가의 견해를 반박하거나 독자의 성찰을 유도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

④ 권위 있는 기관의 통계 자료를 활용하면 정보의 신뢰도를 높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글쓴이의 공신력이 높아지지는 않는다. 글쓴이가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누구나 인정할 만한 권위나 명성이 있거나,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드러내야 한다.

7 이 글의 글쓴이는 청소년 놀이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청소년 놀이 공간과 청소년의 범죄 및 일탈 예방 효과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있다.

8 이 글의 '결론' 부분은 본론의 내용을 요약하며, 주장을 강조하고, 글쓴이의 바람을 분명히 드러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① 청소년에게 필요한 여가 공간과 놀 공간이 부족한 실태는 제시되어 있으나, 부정적 전망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전문 용어는 드러나고 있지 않으며, 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지도 않다.

④ 청유형 문장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이 글에서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근거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을 주장하는 귀납 논증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결론 부분에서 연역 논증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소단원 평가



264~267쪽

01 ② 02 ④ 03 청소년들은 놀이 공간에서 건전하게 놀면서 또래와 유익한 관계를 형성하고 행복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 04 ④ 05 ① 06 ⑤ 07 ①

08 ③ 09 청소년 놀이 공간 확대의 긍정적인 측면

10 ④ 11 ③ 12 독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태도가 무엇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01 이 글의 글쓴이는 청소년 놀이 공간을 확대했을 때의 효과(청소년의 사회성 함양, 청소년 범죄 예방)를 근거로 하여, 청소년 놀이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이 글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는 귀납 논증을 활용하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①, ④ 이 글에는 주제와 관련된 대립적 견해나 용어의 의미를 재정의한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청소년 놀이 공간이 부족한 이유를 사회적 측면에서 진단하고 있을 뿐, 청소년 개인의 측면에서 진단하고 있지 않다.

⑤ 보편적 전제에서 특수한 사실을 이끌어 내는 방법은 연역 논증으로, 이 글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02 (다)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6년 소년 범죄자 수치를 인용하여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부각하고 있지만, (나)에는 이러한 통계 수치를 인용한 부분이 나타나 있지 않다.

03 **서술형** 이 글은 서론에서 제시한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결론 부분에서 글쓴이의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청소년 놀이 공간 확대에 따른 효과와를 서술하는 것이 적절하다.

평가 기준	확인 ☒
(라)의 마지막 문장의 내용을 반영하여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04 (나)에 제시된 통계청의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부정적인 정서를 안고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통계 결과를 우리나라 사람들 전체로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인 이유 ① (라)에서 글쓴이는 인간은 원래 '놀이하는 인간'으로 진화해 왔으며, 음악, 미술, 무용 등은 놀이에서 발전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② (가)에 제시된 오이시디(OECD) 가입국 학생들의 학습량과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를 통해 한국 학생들의 학습량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다)에서 글쓴이는 마땅한 놀이 공간이 없는 청소년들은 유해 환경으로 내몰리고, 그곳에서 어른들의 잘못된 행동을 모방하기도 한다고 말하고 있다.

⑤ (다)에서 글쓴이는 청소년들은 자기 존재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반사회적이고 일탈적인 방법으로 드러내기도 한다고 말하고 있다.

05 (나)에서 글쓴이는 청소년 놀이 공간을 확대하면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가 늘어 청소년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다)에서는 청소년이 마음 놓고 모일 수 있는 마땅한 공간이 없는 현실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으로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다. 즉, (나)와 (다)에서 글쓴이는 모두 청소년 놀이 공간이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임을 전제로 하여, 논지를 펼친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② 인간의 문화적 욕구 해소와 청소년의 스트레스 해소, 청소년의 일탈 및 범죄 예방 간의 관련성이 적기 때문에, (나)와 (다)가 ②를 전제로 삼았다고 보기 어렵다.

③ 청소년이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해 학업까지 포기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나)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신체 활동이나 예술 활동이 청소년이 학업을 포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는 청소년이 마음 놓고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청소년들이 유해 환경으로 내몰린다고 하였으므로, ③을 전제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다)에서 글쓴이는 청소년들이 반사회적이고 일탈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욕구를 드러내는 이유로, 자신의 욕구를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으로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④를 전제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⑤ (다)에서 글쓴이는 청소년기는 자기 존재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는 시기라고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과도한 경쟁과 학업 스트레스로 지친 우리나라 청소년들만으로 범위를 좁히고 있는 ⑤를 전제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샘의 풀이

주장하는 글을 읽을 때는 글쓴이가 글을 통해 주장하는 바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구분하고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장과 근거를 연결하고 있으며 주장에 숨겨져 있는 전제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해. 이 글에서는 청소년들의 현실적 문제의 원인을 크게 여가 시간 부족, 놀이 공간 부족의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하고 있어. 그중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 부족의 상황을 해결하면 청소년들의 현실적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지. 글쓴이는 청소년들을 위한 놀이 공간의 확대라는 물리적 환경의 변화가 결국 청소년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할 것임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06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은 귀납 논증에서 근거에 해당한다. 하지만 ㉠은 근거들로부터 얻어 낸 결론으로 볼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글쓴이가 학교 운동장에서 노는 학생들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다고 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이야기한 것으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한다.

② 오이시디(OECD) 가입국 학생들의 학습량 및 삶의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를 제시한 것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한다.

③ 2015년 통계청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상황을 보여 주는 것으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한다.

④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고 한 것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다.

07 (가)에서 글쓴이는 “만약 청소년들에게 ……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와 같은 질문을 통해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즉, 독자로 하여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떠올려 보게 함으로써,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오답인 이유 ②, ⑤ (가)에는 명령형 어조나 유추의 논증 방법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③ 글쓴이는 질문 형식을 통해 '청소년들이 놀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④ 글쓴이는 '만약 ~ 한다면'과 같이 가정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한 것은 아니다.

08 (라)에서 글쓴이는 과도한 경쟁과 학업 스트레스로 위기에 내몰린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신체 활동과 예술 활동을 하면서 휴식과 여가를 즐길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놀이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을 뿐, 청소년들이 어른들의 간섭과 과도한 경쟁, 학업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신체 활동과 예술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09 **서술형** 이 글에서는 청소년에게 놀이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청소년 놀이 공간 확대의 긍정적 측면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나)와 (다)는 그중 '청소년의 일탈과 범죄 예방'의 측면에서 그 효과를 살펴본 것이다.

10 (나)와 (다)에서 글쓴이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살아가거나 남과 다른 행동을 한다고 하여 그 사람의 존엄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오로지 인간 그 자체로서의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태도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④와 같이 반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1 이 글에는 연역의 방법이 쓰였다. 대전제와 결론을 고려할 때, 대전제의 주어와 결론의 주어를 활용하여 소전제를 구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인간이다.'와 같은 소전제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인 이유 ① 헌법에서 존엄성을 선언하는 것은 대전제, 결론과 관련이 없다.

② 인간이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대전제에 포함된 내용이다.

④ 인간이 저마다 고유한 정체성을 갖고 있음은 대전제에 포함된 내용이다.

⑤ 인간이 스스로의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내용은 이 논증과 관련이 없다.

12 **서술형** 글쓴이는 ㉠이 독특한 사람들을 설불리 비난하지 않으면서 그냥 그 자체를 인정해 주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러한 태도가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태도라고 말하고 있다. 즉, 글쓴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태도'가 무엇인지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을 예로 든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임을 썼다.	☐
제시된 형식으로 썼다.	☐

(2) 주장하는 글 쓰기

소단원 평가



284~285쪽

- 01 ④ 02 ② 03 남북한 공통 국어사전의 편찬 작업을 이어 가야 한다. 04 ② 05 ② 06 특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 종목이 축구이므로 남북 축구 단일팀을 만들어야 한다. 07 ⑤

01 주장하는 글은 일반적으로 '서론 - 본론 - 결론'의 기본 구조를 바탕으로 작성한다.

02 (다)는 민간 교류를 통해 자연스럽게 남과 북의 언어가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는 자료일 뿐, 남북 언어의 통합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인 이유 ① (가)의 인터뷰를 통해 남북의 언어 차이가 의사소통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③ (나)는 남북 스포츠 단일팀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민간 교류를 통해 정치적 대립도 뛰어넘을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④ (다)에서는 언어와 문화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므로,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⑤ (다)에서는 남과 북이 언어적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겨레말 큰사전'을 편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남과 북이 현재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생각해 보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03 **서술형** 근거 1과 2를 통해 '미르'가 민족 문화 공동체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고 진정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남북한 공통의 국어사전을 편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쓰려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빈칸에는 이러한 내용을 종합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
남북한 공통 국어사전의 편찬 작업을 이어 가야 함을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04 글을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자료의 내용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지(ㄱ), 주장을 적절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지(ㄴ), 더 필요한 내용은 없는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

05 주장하는 글의 '결론'은 글을 마무리하는 부분이므로, 글 전체가 완성된 느낌을 줄 수 있고, 글의 내용이 독자의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결론'에서는 대체로 앞에서 제기한 문제에 답하거나 본론을 요약하고 앞으로의 전망이나 과제를 덧붙이며 글을 마무리한다.

오답인 이유 ① 서론에서 쓰는 '개인적인 경험 쓰기'의 방법이다.

- ③ 서론에서 쓰는 '용어 정의하기'의 방법이다.
 ④ 본론에서 쓰는 '해결 방안 제시하기'의 방법이다.
 ⑤ 서론에서 쓰는 '사회 현상 설명하기'의 방법이다.

06  '특히 내가 제일 좋아하는~남북 축구 단일팀을 만들어야 한다.'는 개인의 선호를 근거로 주장을 펼친 것으로, 타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07 주장하는 글은 문장을 간결하게 표현해야 한다. 긴 문장은 짧게 끊어 쓰고, 수식어나 접속사를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 '들', '의', '것이다' 등 불필요하게 말을 늘어뜨리는 단어들도 자제해야 한다.

대단원 평가



294~299쪽

- 01** ① **02** ① **03** ① **04** ⑤ **05**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는 원인을 놀이 공간 부족만으로 한정하여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06** ② **07** ② **08** ①
09 ⑤ **10** (나): 남북한 공통 국어사전의 편찬 작업을 이어 가야 한다. (다): 남북 간의 민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11 ① **12** ③ **13** ① **14** ① **15** 인간이라면 모두 존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16** ② **17** ③
18 ② **19** ②

01 (가)에서 오이시디(OECD) 조사 결과를, (라)에서 통계청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청소년 놀이 공간 확대의 필요성을 제시했지만, 이 글에서 실험 결과를 인용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오답인 이유 ② (나)의 '앞에서 살펴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와 같은 설의적 표현을 통해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③ (가)에서 삶의 만족도가 낮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실태를 제시하여 문제 해결이 필요함을 부각하고 있다.

④ (라)의 '2015년 통계청 조사'와 같이 출처가 명명한 자료를 통해 근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⑤ (마)에서 글쓴이는 인과의 방법으로 청소년이 마음 놓고 모일 수 있는 마땅한 공간이 없는 현실(원인)로 인해 청소년들이 반사회적이고 일탈적인 방법으로 자기를 드러내게 된다고(결과) 설명함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02 <보기>에는 한국 방정환 재단에서 조사한 오이시디(OECD) 주요국 어린이·청소년 행복 지수가 제시되어 있다. <보기>를 참고할 때 대한민국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행복 지수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에서 언급한 청소년들의 문제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03 (다)에서 글쓴이는 놀이는 그 자체가 수단이 아닌 목적이기 때문에 재미있는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글쓴이는 '목적' 그 자체인 놀이를 통해서 삶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② 글쓴이는 (다)에서 청소년들은 각종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스트레스

의 양이 줄면 삶의 활력이 늘어남을 파악할 수 있다.

③ (가)에서 글쓴이는 현재 청소년 놀이 문화 시설은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턱없이 부족하며 접근이 쉽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④ 글쓴이는 (라)에서 통계청의 범죄자 수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청소년 범죄율이 심각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⑤ 글쓴이는 (나)에서 청소년 놀이 공간을 통해 청소년의 공감 능력, 관계 형성 능력 등의 사회성을 기를 수 있다고 했다.

04 ㉠을 통해 글쓴이는 문제의 원인으로 시간 부족과 공간 부족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공간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 놀이 공간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보기>를 통해 학생은 글쓴이가 다루지 않은 다른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간 부족 외에 시간 부족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샘의 풀이

글의 내용을 꼼꼼하게 읽었다면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 상황 중 일부 내용에 대한 해결 방안이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어, 글쓴이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 상황은 청소년들에게 놀 시간과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임을 파악할 수 있지? 그런데 글의 중심 내용은 청소년들이 놀 공간을 확보해 준다는 내용만 제시되어 있어, 따라서 관점을 달리해서 글쓴이가 다루지 않은 부분에 대한 글을 쓰고자 한다면 공간이 아닌 시간 문제를 다루는 것이 좋겠지?

05  ㉠의 '물론 그 원인은 매우 복잡하겠으나'는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는 원인이 매우 다양하므로 놀이 공간의 부족만을 그 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음을 밝히는 표현이다. 따라서 이 점을 반영하여 서술하는 것이 적절하다.

평가 기준	확인 ☒
청소년 범죄 증가 원인을 하나로만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임을 썼다.	☐
청소년 범죄 증가 원인이 놀이 공간 부족에만 있지 않음을 파악하여 썼다.	☐

06 (가)에서는 국립 국어원이 2012년 펴낸 보고서를 인용하고 있다. 이는 탈북 주민이 남한 언어를 이해하는 정도를 제시한 것일 뿐, 남한의 북한 언어 이해 실태를 제시한 것은 아니다.

오답인 이유 ① (가)는 신문 기사이다. 신문 기사는 인쇄 매체의 한 종류이다.

③ 4문단에서 남북 언어 차이를 구체적 예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④ 보고서를 펴낸 주체인 '국립 국어원'이라는 이름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자료의 정확한 출처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기사의 표제에도 제시되어 있으며 전문과 본문에서 중점적이며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북한어 번역 앱이 나왔다'는 것이다.

07 (가)의 자료는 북한의 언어를 남한의 언어로 번역해 주는 앱이 개발되어 탈북 학생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내용이고, (나)의 자료는 남북한 공통 국어사전 편찬 작업을 통해 민족 문화 공동체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고 진정한

통일을 준비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둘을 종합한 것이 빈 칸에 들어갈 주장이 된다. 또 이 주장은 근거 1, 2를 통해 뒷받침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오답인 이유 ① 정부의 노력과 국민 인식 변화는 근거의 내용과 관련이 없다.

③ 언어 차이 실태 조사의 필요성은 근거의 내용과 관련이 없다.

④ 민간 차원의 교류 확대는 근거의 내용과 관련이 없다.

⑤ 전문가 협력 과제의 필요성은 근거 2와는 어느 정도 관련이 있으나, (가), (나)의 내용을 포괄하는 주장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08 이 글은 '남북한 언어 차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자.'라는 주장을 담은 글로, 다양한 근거를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② 사회적 통념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일반적 원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은 연역으로, 이 글에서는 활용하고 있지 않다.

④ 이 글에서는 역사적 배경을 시간 순서에 따라 서술하고 있지 않다.

⑤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사회적 현상이라 볼 수 있으나, 이 현상이 발생한 원인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지 않다.

09 [수정 내용]에 제시된 문장은 개인적 선호를 근거로 남북 축구 단일팀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처럼 개인적 선호를 근거로 삼을 경우 객관성이 결여되어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10 **서술형** 글쓴이는 남북한의 언어적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에서는 남북한 공통 국어사전의 편찬 작업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다)에서는 남북 간의 민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1 연역의 삼단논법에서 소전제는 결론의 주어로서 나타나는 개념을 포함한 전제를 일컫는다. 따라서 ㉗에는 '음악은 아름답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인 이유 ② '아름다움은 증명할 수 없다.'는 대전제와 결론의 내용과 관련이 없다.

③ 꽃 색깔의 아름다움은 구체적 사례이므로, 전제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④ 방송 오디오 프로그램은 구체적 사례이므로, 전제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⑤ 더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면 우월한 음악이라는 것은 글쓴이의 주장과 다른 내용이다.

12 ㉠은 개나리와 진달래의 색깔을 두고 무엇이 더 아름다운지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것처럼, 아름다움 역시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우열을 가릴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즉, 색깔에 따라 무엇이 더 아름다운지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개나리', '진달래'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아름다움'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논지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13 (가)의 글쓴이는 아름다움에는 우열이 없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지만, ㉡은 음악의 우열을 가리고 있다는 점에서 글쓴

이의 관점과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다)의 글쓴이는 모든 인간은 존엄성을 지니고 있다는 관점을 지니고 있지만, ㉢는 인성이 좋은 사람을 인간으로서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에서 글쓴이의 관점과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②, ④ ㉢와 ㉣는 모든 인간이 가치 있는 존재이며, 존엄한 인간이라고 여기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글쓴이의 관점과 같다.

③ ㉢는 우리가 모두 저마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는 의미이다.

⑤ ㉣는 다른 사람 역시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이므로, 글쓴이의 관점과 같다.

14 (가)는 '아름다움에는 우열이 없다. → 음악은 아름답다. → 음악에는 우열이 없다.'와 같은 연역의 논증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나)~(다)는 '인간은 모두 존엄성을 지니고 있다. → 나 자신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은 인간이다. → 나 자신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은 존엄성을 지니고 있다.'와 같은 연역의 논증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15 **서술형** (나)에서는 보편적 원리로 인간은 모두 존엄성을 지니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대전제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16 <보기>는 놀이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므로 놀이를 추구하는 경향을 전 인류로 확대할 수 없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놀이를 인간의 공통된 속성으로 제시한 (나)에 반대 의견을 제기할 때 뒷받침하는 자료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성급한 일반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란 몇 개의 사례나 경험으로 전체 또는 전체의 속성을 단정짓고 판단하는 데서 발생하는 오류이다. 이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자료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성급하게 일반화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참고 자료

17 (가)~(다)의 글쓴이는 청소년에게 놀이 공간을 확대하여 제공하면 그들이 건전한 놀이를 통해 유익한 관계를 형성하고 행복한 성장을 이어 가도록 이끌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18 (라)에서는 통일을 대비하여 공통의 국어사전을 편찬하는 이유에 대해 말하면서 남북 학자들이 함께 『겨레말 큰사전』을 편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마)의 처음 부분에서 분단으로 인해 남북한의 언어생활에 많은 차이가 발생했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보고서를 참고했다고 볼 수 있다.

19 (라)에는 남북한 공통 국어사전의 편찬 작업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오답인 이유 ① 학자들이 모이는 것은 (라)의 중심 내용과 거리가 멀다.

③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어사전 편찬을 주장하고 있다.

④ 어휘에 담긴 민족 문화 연구는 본문의 내용과 관련이 없다.

⑤ 남북이 각각 다른 국어사전을 만드는 것은 (라)의 입장과 반대된다.



- 01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방해 받는지의 여부 02 ㉔
 03 ⑤ 04 ④ 05 ① 06 ㉔: 혀의 (최고점) 위치, ㉔: 혀의 높낮이 07 ④ 08 ② 09 ⑤
 10 ② 11 ② 12 ④ 13 ③ 14 ③
 15 ④ 16 귀납 논증을 활용했다. 청소년들의 놀이 공간을 확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들의 구체적 사례를 근거로 들며 청소년들의 놀이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일반화 된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17 ④ 18 ②
 19 청소년 놀이 공간 20 ③ 21 ① 22 ①
 23 ③ 24 ② 25 남북 간의 언어 차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01 **서술형** ㉔ ‘ㄱ, ㄴ, ㄷ, ㄹ’ 등의 자음은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방해 받으며 나오는 소리이고, ‘ㅏ, ㅑ, ㅓ, ㅕ’ 등의 모음은 공기가 그대로 흘러나오는 소리이다. 이처럼 음운은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방해 받는지의 여부에 따라 크게 자음과 모음으로 나눌 수 있다.

음운의 개념과 종류

개념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종류	- 자음: 공기가 방해 받으며 나오는 소리(모음을 만나야 소리 낼 수 있음.) -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ㆁ, ㄷ, ㅌ, ㅍ, ㅎ - 모음: 공기가 그대로 흘러나오는 소리(자음 없이 홀로 소리 낼 수 있음.) [단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이중 모음: ㅗ, ㅛ, ㅜ, ㅠ,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02 ㉔ ‘ㄷ’, ‘ㄸ’, ‘ㄹ’의 첫소리와 가운데소리는 ‘ㄷ’과 ‘ㄹ’로 동일하지만, 끝소리는 각각 ‘ㄷ’, ‘ㄸ’, ‘ㄹ’으로 서로 다르다. 즉, ‘ㄷ’, ‘ㄸ’, ‘ㄹ’의 끝소리가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오답인 이유 ①, ③ ㉔ ‘산’, ‘선’, ‘손’과 ㉔ ‘설’, ‘술’, ‘실’은 첫소리와 끝소리는 같지만, 가운데소리는 서로 다르다. 즉, 가운데소리가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역할을 한다.

④ ㉔에서 ‘ㄷ’과 ‘ㄹ’은 가운데소리와 끝소리는 같지만, 첫소리가 서로 다르다. ‘ㄷ’과 ‘ㄹ’은 첫소리와 끝소리는 같지만, 가운데소리가 서로 다르다. 즉, ‘ㄷ’, ‘ㄹ’의 첫소리와 ‘ㄷ’, ‘ㄹ’의 가운데소리가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역할을 한다.

⑤ ㉔~㉔은 첫소리나 가운데소리, 끝소리 중 하나만 바뀌어도 말의 뜻이 바뀌게 되는 예에 해당한다.

03 ㉔의 ‘ㄱ, ㄴ, ㄷ, ㄹ’은 여린입천장소리로, 혀의 뒷부분과 입천장 뒤쪽의 부드러운 부분 사이에서 나는 소리이다. ㉔의 ‘ㅈ, ㅊ, ㅋ’은 센입천장소리로, 혀바닥과 입천장 앞쪽의 단단한 부분 사이에서 나는 소리이다.

소리 나는 위치에 따른 자음의 분류

참고 자료

입술소리	- 두 입술이 닿았다가 떨어지며 나는 소리 - 해당하는 자음: ㅁ, ㅂ, ㅃ, ㅍ
잇몸소리	- 혀끝과 윗니의 뒷부분, 윗잇몸 사이에서 나는 소리 - 해당하는 자음: ㄴ, ㄷ, ㄸ, ㄹ, ㄷ, ㄷ, ㄷ
센입천장 소리	- 혀바닥과 입천장 앞쪽의 단단한 부분 사이에서 나는 소리 - 해당하는 자음: ㄱ, ㅋ, ㆁ
여린입천장 소리	- 혀의 뒷부분과 입천장 뒤쪽의 부드러운 부분 사이에서 나는 소리 - 해당하는 자음: ㄱ, ㄴ, ㄷ, ㄹ
목청소리	- 목청 사이에서 나는 소리 - 해당하는 자음: ㅎ

04 ‘ㄷ’의 ‘ㄷ’은 잇몸소리로, 혀끝과 윗니의 뒷부분, 윗잇몸 사이, 즉 ㉔에서 나는 소리이다. ㉔의 위치에서 나는 소리는 ‘ㄱ, ㄴ, ㄷ, ㄹ’과 같은 여린입천장소리이다.

오답인 이유 ① ‘보’의 ‘ㅂ’은 입술소리로, ㉔의 위치에서 소리 나는 자음이다.

② ‘누’의 ‘ㄴ’은 잇몸소리로, ㉔의 위치에서 소리 나는 자음이다.

③ ‘주’의 ‘ㅈ’은 센입천장소리로, ㉔의 위치에서 소리 나는 자음이다.

⑤ ‘하’의 ‘ㅎ’은 목청소리로, ㉔의 위치에서 소리 나는 자음이다.

05 제시된 단어는 첫소리와 가운데소리가 각각 ‘ㅂ, ㅍ’로 같지만 중성이 다른 단어들이다. 중성에 사용된 자음 중 ‘ㄴ, ㄹ, ㅁ, ㅇ’은 발음할 때 입안이나 코안이 울려서 소리가 부드럽고 이어지는 느낌을 주지만, ‘ㅂ, ㅌ, ㄱ’은 발음할 때 입안이나 코안이 울리지 않아 소리가 딱딱하고 막힌 느낌을 준다.

오답인 이유 ② 혀의 최고점 위치에 따라 분류하는 것은 자음이 아니라 모음이다.

③ 두 입술이 닿았다가 떨어지며 나는 소리는 입술소리로, ‘ㅁ, ㅂ, ㅃ, ㅍ’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보기>는 ‘ㅂ’과 ‘ㅃ’이 분류되어 있어, 이를 기준으로 나누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입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는 콧소리로, ‘ㄴ, ㅁ, ㅇ’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보기>는 ‘ㅂ’이 함께 분류되어 있어, 이를 기준으로 나누었다고 보기 어렵다.

⑤ 혀끝을 잇몸에 댄 채 공기를 그 양옆으로 흘려보내면서 내는 소리는 흐름소리로, ‘ㄹ’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보기>는 ‘ㅂ’이 ‘반, 밤, 방’과 함께 분류되어 있어, 이를 기준으로 나누었다고 보기 어렵다.

06 **서술형** 단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는 발음할 때의 입술 모양, 혀의 최고점 위치, 혀의 높이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입천장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하여 혀가 그 앞쪽에 있을 때 발음되는 모음이 전설 모음(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이고, 뒤쪽에 있을 때 발음되는 모음이 후설 모음(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이다. 따라서 ㉔은 혀의 위치에 따라 분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발음할 때에 입이 조금 열려서 혀의 위치가 높은 모음을 고모음(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입이 더 열려서 혀의 위치가 중간인 모음을 중모음(ㅑ, ㅕ,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입이 크게

열려서 혀의 위치가 낮은 모음을 저모음(ㅓ, ㅗ)이라고 한다. 따라서 ㉠은 혀의 높낮이에 따라 분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07 ‘선비’에 포함된 음운은 순서대로 ‘ㅅ, ㅓ, ㄴ, ㅂ, ㅣ’이다. 이 중, ‘ㅅ, ㄴ’은 잇몸소리, ‘ㅂ’은 입술소리이다. 따라서 여린 입천장소리를 포함하라는 ④의 조건은 적절하지 않다. 여린 입천장소리는 ‘ㄱ, ㅋ, ㆁ, ㅇ’이다.

오답인 이유 ① 원순 모음은 ‘ㅜ, ㅠ, ㅡ, ㅝ’이며, ‘모’에 ‘ㅇ’가, ‘통’에 ‘ㄱ’가 쓰였다.

② 된소리는 ‘ㄲ, ㄸ, ㅃ, ㅆ, ㅈ’이며, ‘쑤’에 ‘ㅆ’이 쓰였다.

③ 콧소리는 ‘ㄴ, ㄹ, ㅇ’이며, ‘천’에 ‘ㄴ’이 쓰였다.

⑤ 평순 모음은 ‘ㅏ, ㅗ, ㅓ, ㅕ, ㅡ, ㅣ’이며, ‘비’에 ‘ㅣ’, ‘극’에 ‘ㄱ’이 쓰였다.

08 ‘ㄹ’은 혀끝과 윗니의 뒷부분, 윗잇몸 사이에서 나는 잇몸 소리이다. 이외에도 ‘ㄴ, ㄷ, ㅌ, ㅍ, ㅊ, ㅍ, ㅆ’이 잇몸소리에 속하는 자음이다.

오답인 이유 ① ‘ㅅ’은 잇몸소리이다.

③ ‘ㅌ’은 잇몸소리이다.

④ ‘ㅎ’은 목청소리이다.

⑤ ‘ㄷ’은 잇몸소리이다.

09 제시된 상황에서는 ‘김의민’이 자기 이름의 ‘의’를 ‘ㄱ’로 발음하였거나 직원이 ‘ㄱ’을 ‘ㄱ’로 들어서 오해가 생겼다. ‘ㄱ’은 이중 모음이므로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를 처음과 나중에 서로 달라지게 하여 ‘ㄱ → ㄴ’로 발음해야 한다. 이를 ‘ㄱ’나 ‘ㄱ’과 같은 단모음으로 발음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밝고 가볍고 작은 느낌은 이중 모음의 발음과 관련되지 않는다.

② 혀의 최고점을 앞쪽에서 뒤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이중 모음의 발음과 관련이 없다.

③ 입술이나 혀를 고정하면 이중 모음을 발음할 수 없다.

④ 입술 모양은 원순, 평순 모음의 발음과 관련 있다.

10 연설은 화자가 청중들의 행동이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고자 하는 설득적 말하기의 하나이다. 제시된 연설에서는 화자가 실패를 극복했던 경험과 세네카의 격언을 통해 청중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① 미래의 일을 가정하고 있지 않다.

② 자신의 글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지 않았다.

③ 전문성이 드러나는 성과를 나열하고 있지 않다.

⑤ 공간의 이동은 이 연설의 전개 방식과 거리가 멀다.

11 감성적 설득 전략은 연설자가 청중의 욕망이나 자긍심, 동정심, 분노와 같은 감정에 호소하여 청중을 설득하는 것을 말한다. 연설자는 청중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나 상황 등을 제시하여 청중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는데, 학생은 (나)를 읽고 연설자에게 공감을 느낀 것이다.

오답인 이유 ① (가)는 인사 및 연설한 내용을 소개하는 부분이다.

③ (다)는 실패를 통해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음을 밝히는 부분으로 실패 경험보다 그 이후에 깨달은 바를 이야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④ (라)는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게 하는 상상력의 중요성’을 깨달았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

⑤ (마)에서는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을 당부하고 있을 뿐, 연설자의 경험이 나타나 있지 않다.

12 (다)에서 연설자는 실패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헤쳐 나갈 수 있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었다고 하였다.

오답인 이유 ① 실패가 삶의 군더더기를 없애 주는 역할을 한다는 내용은 (다)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상상력에 대해서는 (라)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③ 연설자가 실패를 통해 얻은 혜택 중 하나이지만, (다)에 제시된 내용은 아니다.

⑤ 상상력이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게 해 준다는 내용은 (라)에 제시되어 있다.

13 이 연설자는 이야기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세네카의 말을 인용하여, 내면이 충만한 삶,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을 당부하고 있다. 즉, ㉠은 내면이 충만한 삶, 가치 있는 삶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오답인 이유 ① 물질적으로 충만한 삶(이야기의 길이가 긴 것)이 아닌 내면이 충만한 삶(이야기의 내용이 훌륭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② 실패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조건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④ 연설자가 ‘실패’와 ‘상상력’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각각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 둘이 하나라고 말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내용이 훌륭한 것’은 국제 기구에서 하는 일을 아는 것과 관련이 없다.

14 (라)에서 글쓴이는 청소년의 강력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놀이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놀이 공간 부족 문제가 청소년 범죄율의 증가로 이어진 것이지, 청소년 범죄율이 증가하면서 청소년 놀이 공간이 부족해진 것은 아니다.

오답인 이유 ① (가)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다.

② (나)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다.

④ (다)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다.

⑤ (나)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다.

15 (가)는 서론 부분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나), (다), (라)는 본론 부분으로, 청소년 놀이 공간을 확대했을 때의 긍정적 효과를 병렬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마)는 결론 부분으로 글쓴이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구조화하면 ④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6 **서술형** 이 글은 ‘청소년 놀이 공간 확대의 효과’라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근거로, ‘청소년 놀이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라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귀납 논증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귀납 논증 방식을 사용하였다고 썼다.	☐
귀납 논증 방식을 사용하였다고 판단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썼다.	☐

17 ㉔은 권위 있는 기관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를 인용하여 소년 범죄자 수가 상당하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만큼 청소년 범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주제와 관련된 현실의 상황을 제시하여 독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을 뿐, 그에 대한 글쓴이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② '사회성'을 익히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말하고 있을 뿐, '사회성'이 뜻하는 바를 알기 쉽게 풀이하고 있지는 않다.

③ 청소년 놀이 공간을 확대했을 때의 긍정적 효과만 언급하고 있을 뿐, 부정적 효과와 대조하고 있지 않다.

⑤ 이 글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근거로 하여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다. ㉔은 여러 근거를 종합하여 도출해 낸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결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8 (나)에서 글쓴이는 놀면서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는 인간의 일반적 특성을 설명한 다음, 이를 근거로 청소년의 사회성을 기르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청소년 놀이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는 질문을 통해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한편,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있다.

③ (다)에서 글쓴이는 놀이의 긍정적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을 뿐, 청소년과 성인의 특성을 대조하고 있지는 않다.

④ (라)에서 글쓴이는 청소년 놀이 공간을 확대함으로써 청소년의 일탈과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사회적 측면에서 문제 해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이야기하고 있다. 개인적 측면에서 청소년 놀이 공간 확대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⑤ (마)에서 글쓴이는 '놀이하는 인간'으로 진화한 인간의 특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을 뿐, '진화'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있지 않다.

19 **서술형** (가)~(마)를 통해 글쓴이는 청소년 놀이 공간을 확대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빈칸에는 '청소년 놀이 공간'과 같은 중심 소재를 넣는 것이 적절하다.

20 ㉔에서 글쓴이는 질문 형식을 통해 청소년 놀이 공간을 확대하면 청소년의 일탈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보기>는 이러한 글쓴이의 생각이 타당해지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㉔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놀이 공간과 청소년 일탈 행위 간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는 연구 결과나 통계 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즉, ③과 같이 청소년 놀이 공간의 확대에 청소년들의 일탈 행위가 감소했음을 보여주는 통계 자료를 제시하여야 ㉔을 적절하게 뒷받침할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청소년들이 놀고자 하는 본능이 진화론적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은 ㉔의 내용과 관련이 없다.

② 청소년 놀이 공간의 확대와 청소년들의 사회성 발달 간의 관계는 ㉔의 내용과 관련이 없다.

④ 청소년들의 놀이 공간이 일탈 행위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은 ㉔의 주장과 반대되는 내용이다.

⑤ 청소년 놀이 공간이 자아 실현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은 ㉔의 주장과 관련이 없다.

21 문맥을 고려할 때 ㉔은 무엇에서 시작되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와 바꾸어 쓸 수 있는 단어는 '사물이 처음으로 생김, 도는 그런 근원'을 뜻하는 '기원(起源)'이다.

오답인 이유 ② '발견(發見)'은 '미처 찾아내지 못하였거나 아직 알려지지 아니한 사물이나 현상, 사실 따위를 찾아냄'을 뜻한다.

③ '촉발(觸發)'은 '어떤 일을 당하여 감정, 충동 따위가 일어남. 또는 그렇게 되게 함'을 뜻한다.

④ '추출(抽出)'은 '전체 속에서 어떤 물건, 생각, 요소 따위를 뽑아냄'을 뜻한다.

⑤ '표출(表出)'은 '겉으로 나타냄'을 뜻한다.

22 (가)는 '계획하기' 단계이다. 글의 주제와 목적, 예상 독자 등에 따라 글의 구성이나 내용이 달라지므로 글을 쓰기 전 계획하기 단계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설정해 두어야 한다.

오답인 이유 ② 구조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항목별로 정리하는 것은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한다.

③ 자료를 선별하는 것은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한다.

④ 틀린 부분이나 어색한 부분을 수정하는 것은 '평가하고 고쳐 쓰기' 단계에서 한다.

⑤ 정확하고 분명한 단어를 활용하여 표현하는 것은 '초고 쓰기' 단계에서 한다.

23 ㉔에서는 민간 교류와 관련된 내용이 적절하다. 따라서 <보기>의 국제 친선 탁구 대회를 사례로 들어 민간 교류의 예시로 제시할 수 있다.

24 결론은 글의 내용을 정리하고 자신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부분으로, 본론의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주장을 강조하는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인용하기, 용어 정의하기, 개인적인 경험 쓰기, 사회 현상 설명하기'는 주로 서론을 쓰는 방법에 해당한다.

25 **서술형** ㉔에는 이 글의 결론이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서론, 본론 부분의 내용을 고려할 때, 남북 간의 언어 차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서술하는 것이 적절하다.



- 01 ② 02 ④ 03 ② 04 울림소리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소리가 부드럽고 이어지는 느낌이 든다. 05 ④
 06 ④ 07 ① 08 ① 09 ⑤ 10 ⑤
 11 ③ 12 ③ 13 ③ 14 상상력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이기 때문이다. 15 ⑤ 16 ③
 17 ② 18 ④ 19 ③ 20 ② 21 ①
 22 ④ 23 ② 24 ① 아름다움에는 우열이 없다.
 ① 음악에는 우열이 없다. ② 연역 25 ④

01 자음은 공기가 방해를 받으며 나오는 소리로, 홀로 소리 낼 수 없으며 모음을 만나야만 소리 낼 수 있다. 반면 모음은 공기가 그대로 흘러나오는 소리로, 자음 없이 홀로 소리 낼 수 있다.

02 자음은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 입술소리, 잇몸소리, 셴입천장소리, 여린입천장소리, 목청소리로 나뉜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셴입천장소리'이다. 그리고 해당 자음에는 '즈, 썈, 츠'가 있다.

03 두 입술이 닿았다가 떨어지며 나는 소리는 입술소리이다. 입술소리에 해당하는 자음에는 'ㅁ, ㅂ, ㅃ, ㅍ'이 있으며, 제시된 문장에서는 '모'에서 'ㅁ'이, '봉'에서 'ㅂ'이 쓰였다.

04 **서술형**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에서는 'ㄹ'과 'ㅇ' 자음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ㄹ'은 혀끝을 잇몸에 대었다 떼거나, 잇몸에 댄 채 공기를 그 양옆으로 흘러보내면서 내는 '흐름소리'이고, 'ㅇ'은 입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콧소리'이다. 둘 모두 발음할 때 입안이나 코안이 울리는 소리(울림소리)로, 소리가 부드럽고 이어지는 느낌이다.

평가 기준	확인 ☒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알맞게 썼다.	☐
그 이유를 '울림소리'와 연관 지어 썼다.	☐

05 우리말의 단모음에는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가 있다. 'ㅑ'는 소리를 낼 때 입술이나 혀가 움직이므로 이중 모음에 해당한다.

06 단모음은 발음할 때 입천장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하여 혀의 최고점이 그 앞쪽에 있으면 전설 모음, 그 뒤쪽에 있으면 후설 모음으로 나뉜다. 전설 모음에는 'ㅏ, ㅑ, ㅓ, ㅕ, ㅣ'가 있고, 후설 모음에는 'ㅗ, ㅛ, ㅜ, ㅠ, ㅡ'가 있다. '제거'에서 'ㅑ'는 전설 모음이며, 'ㅓ'는 후설 모음이다.

07 단모음은 혀의 높이에 따라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발음할 때에 입이 조금 열려서 혀의 위치가 높은 모음은 고모음이다. 고모음에는 'ㅣ, ㅓ, ㅕ, ㅡ'가 있으며, 제시된 단어 중 이를 포함한 단어는 '김'이다.

오답인 이유 ② '공'에서 'ㅇ'는 중모음이다.

③ '방'에서 'ㅏ'는 저모음이다.

④ '해'에서 'ㅑ'는 저모음이다.

⑤ '계'에서 'ㅑ'는 중모음이다.

08 모음은 소리의 밝기에 따라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양성 모음은 밝고 가볍고 작은 느낌을 주는 모음으로,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등이 있다. 음성 모음은 양성 모음과 비교하여 어둡고 무겁고 큰 느낌을 주는 모음으로,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등이 있다. 제시된 단어 중 '겨울'에만 음성 모음 'ㅓ'와 'ㅕ'가 쓰였다.

09 잇몸소리이자 된소리인 것은 'ㅃ', 'ㅆ'이다. 후설 모음이자 평순 모음인 것은 'ㅏ, ㅓ, ㅕ'이다. 여린입천장소리이자 콧소리인 것은 'ㅇ'이다. 이들 자음으로만 조합된 단어는 '땅'이다.

오답인 이유 ① '쌀'은 초성과 중성의 조건만 충족한다. 중성 'ㄹ'은 잇몸소리이자 흐름소리이다.

② '꿈'은 세 가지 조건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 초성 'ㄱ'은 여린입천장소리이자 된소리이며, 중성 'ㅍ'는 후설 모음이자 원순 모음이다. 중성 'ㅁ'은 입술소리이자 콧소리이다.

③ '뽕'은 중성과 중성의 조건만 충족한다. 초성 'ㅍ'은 입술소리이자 된소리이다.

④ '쪽'은 세 가지 조건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 초성 'ㅍ'은 셴입천장소리이자 된소리이며, 중성 'ㅓ'는 후설 모음이자 원순 모음이다. 중성 'ㅓ'는 여린입천장소리이자 예사소리이다.

10 이 글은 연설문으로 다수의 청중을 대상으로 한 공적 말하기로서 영어체를 사용하며, 명확한 내용 전달을 위해 간결한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11 연설자는 실패가 주는 혜택으로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에 온 힘을 쏟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 앞으로 다시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실패의 경험을 통해 앞으로 실패를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과 힘을 얻게 된다고 하였다.



쌤의 풀이

연설자는 '실패가 주는 혜택'과 '상상력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할 것을 밝히고, 그중 먼저 실패가 주는 혜택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있어,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찾으면서 실패가 주는 혜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 파악하도록 해 보.

12 '한 줄기 빛'이 희망을 의미한다는 것은 맞으나, '터널'은 도전적인 삶이 아니라 '절망적인 삶'을 의미한다.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연설자가 말하고자 하는 '실패가 주는 혜택'과 '상상력의 중요성'은 이 글의 주제에 해당한다.

② (나)에서 연설자는 '제가 여러분 나이 때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한 후 7년 동안, 저는 계속 실패만 했

습니다.'라고 말하며, 실패를 두려워했으나 실패만 겪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였던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④ (다)에서 연설자는 '저는 실패한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저에게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 일에 에너지를 모두 쏟기 시작했습니다.'라고 말하며, 자신이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이야기하고 있다.

⑤ (마)에서 연설자는 '실패를 극복하며 강인하고 현명해지면, 어떤 일이 있어도 헤쳐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라고 말하며, 실패를 통해 얻은 이로운 점을 이야기한다.

13 인성적 설득 전략은 청중이 아닌 연설자의 됴됨이나 전문성을 바탕으로 연설의 신뢰성을 높이는 설득 방법에 해당한다. ㉔은 청중의 자긍심을 이끌어 내는 감성적 설득 전략에 해당한다.

오답인 이유 ① ㉔은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작가이자 국제 사면 위원회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는 '조앤 K. 롤링'이라는 연설자의 전문성과 됴됨이를 바탕으로 연설의 신뢰성을 높이는 인성적 설득 전략이 나타난다.

② ㉔에서는 연설자가 직접 체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상상력이 중요한 까닭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이성적 설득 전략이 나타난다.

④ ㉔에서는 연설자가 청중에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상상할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청중의 동정심을 일으키는 감성적 설득 전략이 나타난다.

⑤ ㉔은 청중에게 우리에게 이미 세상을 바꿀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며 청중의 욕망을 불러일으켜 설득하려는 감성적 설득 전략이 나타난다.

14 **서술형** (다)에서 연설자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미 세상을 바꿀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상상하고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이를 바탕으로 상상력이 중요한 궁극적인 이유가 상상력의 힘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상상력의 힘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15 연설자는 고대 로마의 현인이었던 '세네카'의 말을 인용하여 가치 있는 삶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또한 유명인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글의 신뢰도를 높이고 인상적으로 연설을 마무리하고 있다.

16 다양한 자료 중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을 선별하는 것은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 해당한다.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는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여 주장하는 글의 구조인 '서론 - 본론 - 결론'에 맞게 개요를 작성한다.

17 '주장 1'의 '근거 2'에서는 '남북한 공통 국어사전 편찬 작업을 통해 민족 문화 공동체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고 진정한

통일을 준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남북한 공통 국어사전 편찬 작업은 남북한이 공통으로 힘을 합쳐 이루어 내야 할 일임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남한이 주도해서 국어사전의 편찬 작업을 이어 가야 한다.'는 '주장 1'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인 이유 ① 쓰고자 하는 글의 주제는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이다. 이와 관련한 글의 제목으로, 남과 북의 언어 차이를 좁혀 하나되는 언어를 만들자는 ㉔의 내용은 적절하다.

③, ④ 본론에서 제시할 주장으로,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줄이기 위해 기술을 이용한 방법을 모색하자는 ㉔의 내용은 적절하다. 그리고 ㉔에 대한 근거로, 북한의 언어를 남한의 언어로 번역해 주는 앱을 개발하여 탈북 학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㉔의 내용은 타당하며,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도 적절하다.

⑤ 쓰고자 하는 글의 주제와도 연관성이 있으며, 제목인 '통일 시대의 남과 북, 하나되는 언어'와도 일맥상통하므로, ㉔의 내용은 결론으로 적절하다.

샘의 풀이

글을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은 이와 같은 문제는 제시된 내용 안에서 연계성과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해. 글의 목적에 맞는 글의 제목을 선정하였는지, 본론에서 언급하는 주장의 내용은 타당한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설득력이 있으며 주장과의 연계성이 높은지, 결론의 내용은 글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에 적합한 내용인지 등을 따져 보도록 해.

18 <보기>의 첫 번째 문단의 내용으로 볼 때, 서론에서는 무엇에 대해 쓰려고 하는지, 왜 쓰는지 제시해야 하며, 글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독자의 주의를 끌어야 한다. '인용하기', '개인적인 경험 쓰기', '용어 정의하기', '사회 현상 설명하기'는 모두 서론에서 활용하기에 적절한 방법이다. 그러나 <보기>의 두 번째 문단의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쳐야 해요.'로 볼 때, '타당한 근거 들기'는 본론에서 활용하기에 적절한 방법이다.

19 주장하는 글은 글쓴이가 어떤 주제에 관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체계적으로 밝혀 쓴 글이다. 따라서 주장하는 글은 글쓴이의 주관적인 의견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사실만을 서술하여 신뢰감을 주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샘의 풀이

주장하는 글에서 설명하는 글의 특징과 관련된 내용이 오답으로 나오는 경우는 빈번해. 둘 다 비문학의 대표적인 갈래이고, 글의 짜임이나 전개 방식이 유사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혼동하기 쉽기 때문이지. 따라서 오답 내용으로 객관적이라거나 설명적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꼭 확인해서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해.

20 (나)는 이 글의 본론에 해당하며, 사회성을 익히기 위해서는 다양한 만남과 소통 그리고 시행착오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 사회성을 체득해야 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청소년 놀이 공간의 긍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기 위함이므로 (나)의 중심 내용은 '청소년의 사회성을 기르는 데 도움을 주는 청소년 놀이 공간'이 적절하다.

21 (나)에서 청소년의 사회성은 책상에 앉아 공부를 통해 습득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사회성은 지식이 아닌 경험을 통해 체득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사회성 향상을 위해서는 학문적 지식 습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22 이 글은 세 가지의 구체적 사실을 바탕으로, 마지막 문단인 (마)에서 일반적 원리를 이끌어 내어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귀납'의 논증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귀납의 논증 방법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주장을 이끌어 낸다. ④ 역시 '이순신 장군은 죽었다. 세종 대왕도 죽었다.', '이순신 장군과 세종 대왕은 사람이다.'라는 구체적 사실에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일반적 원리를 이끌어 내고 있으므로 귀납 논증이 사용되었다. 나머지 선지에는 이미 알려진 일반적 원리나 법칙에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어 주장을 내세우는 방법인 연역 논증이 사용되었다.

23 (라)에서는 통계청의 객관적인 통계 자료의 내용을 활용하고 있을 뿐,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인 이유 ① '돈을 쓰지 않고도, 어른들의 간섭이 없이도 자신들의 문화가 보장되는 청소년 놀이 공간이 확대된다면 왜 구태여 가지 말라는 곳에 가며,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하겠는가?'에서 글쓴이는 의문문 형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③ '청소년 놀이 공간을 확대하면 청소년의 일탈이 줄게 되므로 범죄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에서 예상되는 결과의 긍정적인 측면을 언급하며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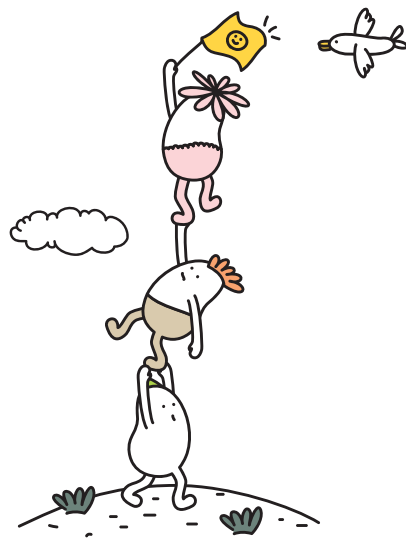
④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소년 범죄자 수는 76,000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전체 범죄자 중 3.8 퍼센트에 이르는 높은 수치이다.'에서 통계 수치를 제시하여 현상의 심각성을 밝히고 글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⑤ '학교 폭력을 비롯한 청소년 범죄가 날로 심각해져 사회 문제가 된 지 오래다.', '또한 청소년의 강력 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에서 과거보다 더 심각해진 오늘날의 상황을 밝혀 현실적 문제를 객관적으로 집어내고 있다.

24 **서술형** 이 글에는 연역의 논증 방법이 사용되었다. 대전제로는 글의 첫 문장인 '아름다움에는 우열이 없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우리가 음악을 듣고 감동을 받는 것은 음악이 아름답기 때문이다.'에서 '음악은 아름답다.'는 소전제를 도출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따라서 음악에는 우열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 대전제를 '아름다움에는 우열이 없다.'는 내용으로 썼다.	☐
㉡ 결론을 '음악에는 우열이 없다.'는 내용으로 썼다.	☐
㉢ 글에 '연역'의 논증 방법이 사용되었음을 밝혔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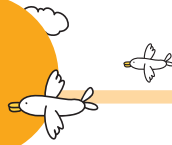
25 이 글은 주장하는 글이다. 논증 방법을 파악하며 주장하는 글을 읽으면 글쓴이가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글의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여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주장에 대한 근거의 타당성을 판단하기에도 용이하다.





정답친해





(1) 능동적으로 해결하며 읽기



알짜 요약정리

● 02~03쪽

- ① 잘 썬지 않음. ② 동물 ③ 일회용 플라스틱
- ④ 항아리 냉장고 ⑤ 물통 ⑥ 대류 현상
- ⑦ 고체 ⑧ 실내

* 어휘 시험

04~05쪽

- | | | | | |
|---------|-----------|--------|---------|---------|
| 1 ㉠ | 2 ㉡ | 3 ㉢ | 4 ㉣ | 5 ㉤ |
| 6 문맥 | 7 합리적 | 8 단서 | 9 능동적 | 10 배경지식 |
| 식 | 11 ㉥ | 12 ㉦ | 13 ㉧ | 14 ㉨ |
| 15 절연성 | 16 중합체 | 17 경화제 | 18 합성수지 | 19 고분자 |
| 20 소탐대실 | 21 적정 기술 | 22 정화 | 23 단열 | |
| 24 응고열 | 25 대류, 기화 | | | |

- 1 '감안하다'는 '여러 사정을 참고하여 생각하다.'라는 뜻이다. '나이를 감안하면 이번 여행은 무리다.'와 같이 쓸 수 있다.
- 2 '부검하다'는 '해부하여 검사하다.', '사인(死因) 따위를 밝히기 위하여 사후(死後) 검진을 하다.'라는 뜻이다. '사체를 부검하다.'와 같이 쓸 수 있다.
- 3 '타당하다'는 '일의 이치로 보아 옳다.'라는 뜻이다. '아버지의 주장은 논리가 타당하다.'와 같이 쓸 수 있다.
- 4 '탐구하다'는 '진리, 학문 따위를 파고들어 깊이 연구하다.'라는 뜻이다. '월명사는 누이의 죽음을 계기로 삶의 근원을 탐구하다.'와 같이 쓸 수 있다.
- 5 '홍물스럽다'는 '모양이 흉하고 괴상한 데가 있다.'라는 뜻이다. '뒷마당에는 해묵은 짚단이 홍물스럽게 쌓여 있다.'와 같이 쓸 수 있다.
- 6 '글월에 표현된 의미의 앞뒤 연결.'을 뜻하는 단어는 '문맥'이다. '상황'은 '일이 되어 가는 과정이나 형편.'이라는 뜻이다.
- 7 '이론이나 이치에 합당한. 또는 그런 것.'을 뜻하는 단어는 '합리적'이다. '이론적'은 '이론에 근거한. 또는 그런 것', '실증성'이 희박하고 순 관념적으로 조직된. 또는 그런 것.'이라는 뜻이다.
- 8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일의 첫 부분.'을 뜻하는 단어는 '단서'이다. '근거'는 '근본이 되는 거점.', '어떤 일이나 의논, 의견에 그 근본이 됨. 또는 그런 까닭.'이라는 뜻이다.

9 '다른 것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일으키거나 움직이는. 또는 그런 것.'을 뜻하는 단어는 '능동적'이다. '수동적'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다른 것의 작용을 받아 움직이는. 또는 그런 것.'이라는 뜻이다.

10 '어떤 일을 하거나 연구할 때, 이미 머릿속에 들어 있거나 기본적으로 필요한 지식.'을 뜻하는 단어는 '배경지식'이다. '상식'은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이라는 뜻이고, '상식'에는 일반적 견문과 함께 이해력, 판단력, 사리 분별 따위가 포함된다.

11 '알을 낳을 시기.'를 뜻하는 단어는 '산란기'이다. 한편 '번식기'는 '동물이 새끼를 치는 시기.'라는 뜻이고, '사춘기'는 '육체적·정신적으로 성인이 되어 가는 시기.'라는 뜻이고, '포란기'는 '조류의 암컷이 알을 품는 시기.'라는 뜻이다.

12 '생물의 한 종류가 아주 없어짐. 또는 생물의 한 종류를 아주 없애 버림.'을 뜻하는 단어는 '멸종'이다. '멸망'은 '망하여 없어짐.'이라는 뜻이고, '멸문'은 '한집안을 다 죽여 없앴. 또는 한집안이 망하여 없어짐.'이라는 뜻이고, '파종'은 '곡식이나 채소 따위를 키우기 위하여 논밭에 씨를 뿌림.'이라는 뜻이다.

13 '불순물 따위를 제거하기 위하여 액체를 일시적으로 저장하여 두는 수조.'를 뜻하는 단어는 '정화조'이다. '수족관'은 '물 속에 사는 생물을 모아 놓고 기르는 설비.'라는 뜻이고, '저수조'는 '상수도, 소화(消火) 따위에 쓰기 위하여 물을 담아 두는 큰 통.'이라는 뜻이고, '하수관'은 '수체에 버린 물이 흘러가도록 땅속에 묻은 통(수체통).''이라는 뜻이다.

14 '나무로 네모지게 짜서 만든 그릇.'을 뜻하는 단어는 '함지'이다. '함지'는 그릇의 높이가 조금 깊으며 밑은 좁고 위는 넓다. '공기'는 '위가 넓게 벌어지고 밑이 좁은 작은 그릇.'이라는 뜻이고, 주로 밥을 담아 먹는 데에 쓴다. '대접'은 '위가 넓적하고 높이가 낮으며 뚜껑이 없는 그릇.'이라는 뜻이고, 국이나 물 따위를 담는 데 쓴다. '쟁반'은 '높이가 얇고 둥글납작하거나 네모난, 넓고 큰 그릇.'이라는 뜻이고, 목재, 금속, 사기 따위로 만들며 보통 그릇을 받쳐 드는 데에 쓴다.

15 '전기가 통하지 아니하는 성질.'을 뜻하는 단어는 '절연성'이다.

16 '분자가 기본 단위의 반복으로 이루어진 화합물.'을 뜻하는 단어는 '중합체'이다.

17 '경도를 높이거나 경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가하는 물질.'을 뜻하는 단어는 '경화제'이다.

18 '유기 화합물의 합성으로 만들어진 수지 모양의 고분자 화합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을 뜻하는 단어는 '합성수지'이다.

19 '화합물 가운데 분자량이 대략 1만 이상인 분자. 또는 화학 결합으로 거의 무한 개수의 원자가 결합하여 있는 분자.'를 뜻하는 단어는 '고분자'이다.

20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음.'을 뜻하는 한자 성어는 '소탐대실(小貪大失)'이다.

21 '한 공동체의 문화·정치·환경적인 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된 기술'을 일컫는 용어는 '적정 기술'이다.

22 문맥상 '불순하거나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함.'을 뜻하는 '정화'가 들어가는 것이 알맞다.

23 문맥상 '물체와 물체 사이에 열이 서로 통하지 않도록 막음. 또는 그렇게 하는 일.'을 뜻하는 '단열'이 들어가는 것이 알맞다.

24 문맥상 '액체나 기체 따위가 고체로 될 때 내는 열량.'을 뜻하는 '응고열'이 들어가는 것이 알맞다.

25 문맥상 순서대로 '기체나 액체에서, 물질이 이동함으로써 열이 전달되는 현상.'을 뜻하는 '대류', '액체가 기체로 변함. 또는 그런 현상.'을 뜻하는 '기화'가 들어가는 것이 알맞다.

꼭지 시험

06쪽

- 1 플라스틱, 플라스틱 2 소탐대실 3 사용, 일회용
4 × 5 ○ 6 × 7 × 8 플라스틱
9 미세 플라스틱 10 ② 11 ② 12 ④

1 이 글의 서론에서 인류 역사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를 거쳐 오늘날에는 '플라스틱 시대'라고 불린다고 하였다. 이렇게 불리는 이유는 다양한 물건에 플라스틱이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2 이 글에서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음.'을 뜻하는 한자 성어 '소탐대실(小貪大失)'을 사용하여, 플라스틱을 편하게 쓰고 쉽게 버리다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3 이 글의 결론에서 글쓴이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은 선택하지 말자.'라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4 이 글에서는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의 양은 그리 많지 않다는 내용을 제시하여, 플라스틱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반박하고 있다.

5 이 글에서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의 양이 그리 많지 않은 이유로 페트병, 요구르트병, 블록, 비닐봉지, 스티로폼 등 그 종류가 다양해서 재질별로 선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6 이 글에서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세척되지 않은 채 버

러지는 플라스틱 용기류가 많아 재활용을 하더라도 플라스틱 함지나 정화조처럼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또한 재활용률이 70 퍼센트 정도인 페트병도 다시 페트병이 되지 못하고 화학 솜이나 노끈 등으로 만들어 진다고 하였다.

7 이 글에서 수거되지 않은 플라스틱은 산과 들에 아무렇게나 묻히거나 어딘가를 떠돌아다니다 바다로 흘러들어 간다고 하였으며, 그 예로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미드웨이섬에 세계 곳곳에서 버려진 쓰레기들이 휩쓸려 온다고 하였다.

8 이 글에서 해양 쓰레기의 60에서 80 퍼센트는 플라스틱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해양 쓰레기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플라스틱임을 알 수 있다.

9 이 글에서 제시한 배경지식의 내용에서 5 밀리미터 미만의 작은 플라스틱을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람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작은 플라스틱 조각은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할 수 있다.

10 이 글에서 플라스틱은 매우 가볍고, 모양을 변형하기 쉽고, 다양한 빛깔로 만들 수 있으며, 절연성이 뛰어나다고 하였다.

11 이 글에서 플라스틱은 잘 썩지 않는 물질이기 때문에 일상 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플라스틱이 문제가 된다고 하였다.

12 이 글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는 자연 경관을 해쳐 관광 산업에 피해를 주고,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며, 미세 플라스틱은 동물에 유입되어 우리의 식탁에 올라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한다고 하였다. 또한 동물들이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하여 삼키기 때문에 동물의 생명을 위협한다고 했지만, 인간이 음식으로 착각하여 먹는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꼭지 시험

07쪽

- 1 문화·정치·환경 2 대류 3 과학적인 사고, 적정 기술 4 × 5 ○ 6 ○ 7 라이프 스타일 8 향아리 냉장고 9 큐 드럼 10 ②
11 ①

1 이 글에서 적정 기술의 개념을 '한 공동체의 문화·정치·환경적인 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된 기술'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2 대류 현상은 '기체나 액체에서, 물질이 이동함으로써 열이 전달되는 현상.'이라는 뜻이고, 이러한 대류 현상 중의 하나는 기체가 부분적으로 가열되면 가열된 부분이 팽창하면서 밀도가 작아져 위로 올라가는 것이다. 서남아시아의 흠뻑돌 집은 이런 대류 현상을 이용하여 위쪽으로 올라간 더운 공기가 꼭 대기에 있는 창문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가게 하였다.

3 이 글의 끝부분에서 글쓴이는 '과학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우리의 삶을 위한 적정 기술을 개발하여, 현대 사회의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라는 제안을 하였다.

4 이 글은 다양한 적정 기술을 소개하면서 적정 기술의 긍정적인 면만을 제시했으며, 부정적인 면은 제시하지 않았다.

5 이 글에서 적정 기술은 유한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모색한 다양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하였다.

6 이 글에서 적정 기술은 인간이 끊임없이 과학적으로 사고하고 탐구한 결과물로, 아주 오래전부터 세계 곳곳에서 활용되어 왔다고 하였다. 이러한 예로 서남아시아의 흙벽돌 집과 이글루를 제시하고 있다.

7 이 글에서 오염된 물을 정화할 수 있는 휴대용 물 정화 장치로, 빨대처럼 생긴 '라이프 스트로'를 소개하고 있다.

8 이 글에서 음식물 보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한 발명품으로 '항아리 냉장고'를 소개하고 있다. 보관 기간이 짧은 토마토나 후추 같은 식품을 '항아리 냉장고'에 보관하면 21일 정도까지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다고 하였다.

9 이 글에서 힘이 약한 아이들도 많은 양의 물을 담아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물통으로 '큐 드럼'을 소개하고 있다. '큐 드럼'은 자동차 바퀴처럼 생긴 통으로, 가운데 뚫린 구멍에 줄을 엮어서 끝면 물통을 굴리듯이 운반할 수 있다고 하였다.

10 이 글에서 적정 기술의 장점으로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고, 자본을 적게 투자하면서도,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현지인이 직접 개발한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11 이 글에서 이글루 내부 벽에 물을 뿌리면 물이 얼면서 응고열을 방출하고, 그 결과 내부 기온이 올라가면서 실내가 따뜻해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원리는 액체인 물이 고체인 얼음으로 변하면서 열을 밖으로 내보내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알짜 시험



08~11쪽

- 01 ⑤ 02 ① 03 • 수거된 플라스틱 쓰레기 중 재활용되지 않은 것은 태우거나 매립장에 묻는다. • 수거되지 않은 플라스틱 쓰레기는 산과 들에 아무렇게나 묻히거나 바다로 흘러들어 간다. 04 ④ 05 플라스틱이 동물에게 해를 끼친 사례 06 ③ 07 ④ 08 ④
09 ⑤ 10 ② 11 적정 기술을 개발하자. 12 ②

01 (가)의 '플라스틱은 석유에서 추출한 원료를 결합하여 만

든 고분자 화합물의 한 종류이다.'에서 플라스틱은 석유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나)의 '이렇듯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플라스틱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플라스틱이 잘 썩지 않는 물질이라는 데 있다.'에서 플라스틱이 잘 분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답안이유 ① (가)의 '플라스틱이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처럼 보인다.'에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다)의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의 양은 그리 많지 않다.'에서 사람들은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의 양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다)의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세척되지 않은 채 버려지는 용기류가 많아, 재활용을 하더라도 플라스틱 함지나 정화조처럼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만들 수밖에 없다. 재활용률이 70 퍼센트 정도로 비교적 높은 편인 페트병도 다시 페트병이 되지는 못하고 화학 솜이나 노곤 등으로 만들어진다.'에서 재활용된 플라스틱은 원래의 제품으로 다시 만들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가)의 '플라스틱은 매우 가벼운 데다 모양을 변형하기도 쉽고 다양한 빛깔로도 만들 수 있다.'에서 플라스틱의 장점을 제시하고 있다.

02 (라)에서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새와 바다거북, 돌고래와 같은 동물에게 해를 끼치고, 자연 경관을 해쳐 관광 산업에 피해를 주며, 선박의 안전도 위협한다고 하였다. 또한 미세 플라스틱은 동물의 몸 속에 유입되어 그것을 먹는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한다고 하였다.

03 **서술형** (다)의 '재활용되지 않은 플라스틱 쓰레기는 태우거나 매립장에 묻는데, 이는 그나마 수거된 플라스틱 쓰레기에 국한된 이야기이다. 수거되지 않은 플라스틱은 산과 들에 아무렇게나 묻히거나 어딘가를 떠돌아다니다 바다로 흘러들어 간다.'에서 재활용되지 않은 플라스틱 쓰레기의 처리 실태를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다)를 참고하여 재활용되지 않은 플라스틱 쓰레기의 처리 실태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썼다.	☐
각각 완결된 한 문장으로 썼다.	☐

04 ①은 플라스틱 제품을 편하게 쓰고 쉽게 버리는 것이 큰 문제를 가져올 것임을 강조하는 문장이므로,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사람들이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아닌 플라스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이야기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답안이유 ①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사전적 의미는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음'이다.

② '그것이' 가리키는 내용은 바로 앞 문장의 '플라스틱 제품을 편하게 쓰고 쉽게 버린다.'이다.

③, ⑤ (라)의 내용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면, ⑦은 플라스틱 사용이 결국 동물의 생명, 환경과 관광 산업, 선박의 안전, 사람의 건강 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또한 플라스틱 사용의 부작용을 인식하지 못한 채 편하다는 이유로 플라스틱을 무분별하게 쓰고 버리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다.

05 (나)의 ‘플라스틱이 동물에게 해를 끼친 사례는 해외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에서 (가)와 (나)의 중심 내용을 나타내는 구절을 찾을 수 있다. (가)는 플라스틱이 동물에게 해를 끼친 해외의 사례, (나)는 플라스틱이 동물에게 해를 끼친 국내의 사례에 해당한다.

평가 기준	확인 ☒
본문에 제시된 구절을 이용하여, 중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썼다.	☐
15자 내외로 썼다.	☐

06 ㉠에서는 플라스틱 사용의 문제점을 자원 낭비의 측면에서 지적하고 있으나, 비용 상승의 측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오답인 이유 ① 앞에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동물에게 해를 끼친 해외 사례를 제시하고, 뒤이어 국내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독자에게 우리나라에서도 플라스틱 쓰레기가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② 뱀머리줄고래는 위 속에 있던 비닐과 영근 끈 뭉치 같은 이물질 때문에 먹이를 제대로 먹지 못해 영양 부족으로 죽은 것임을 알 수 있다.

④ 플라스틱은 여러 가지 장점도 있으나, 썩지 않는다는 특성 때문에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단점도 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만들어 낸 모든 플라스틱이 썩지 않고 이 지구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것은 플라스틱의 문제를 단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거나,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다.

07 글을 읽다가 의미가 모호한 문장이 나오면, 글에 나타난 다른 정보나 글의 내용과 관련된 배경지식을 활용하며 읽는 것이 도움이 된다.

오답인 이유 ① 글쓴이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가 논리적이고 타당한지 판단하며 읽고 글쓴이의 의도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② 글 전체의 내용을 한꺼번에 이해하기보다는, 구성 단계로 나누어 각각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글쓴이의 생각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판단하거나 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는 것이 적절하다.

⑤ 글을 읽다가 뜻을 추측하기 어려운 단어가 나올 경우에는 그때마다 사전을 찾거나 앞뒤 문맥을 고려하여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

08 이 글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적정 기술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는 글이다.

오답인 이유 ①, ③ 이 글은 적정 기술의 긍정적 측면을 소개한 설명문으로, ‘처음 – 가운데 – 끝’의 구성 단계를 취하고 있다.

② 적정 기술을 소개하기 위해 (나)에서는 향아리 냉장고, (다)에서는 라이프 스트로와 큐 드럼, (라)에서는 서남아시아 지역의 흙벽돌 집, (마)에서는 이글루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⑤ (라)와 (마)에서 적정 기술이 적용된 건축물인 서남아시아의 흙벽돌 집과 이글루의 구조 및 사용 원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09 (나)에서 ‘향아리 냉장고’는 냉장고가 없거나 전기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식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고안된 발명품이라고 하였다.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적정 기술은 유한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하였다.

② 이 글에서는 적정 기술의 개념과 장점, 적정 기술이 적용된 발명품과 건축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적정 기술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③ (다)에서 ‘라이프 스트로’는 오염된 물을 정화할 수 있는 휴대용 물 정화 장치이고, ‘큐 드럼’은 자동차 바퀴처럼 동글게 생긴 통으로 멀리까지 가서 식수를 길어 와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였다.

④ (마)에서 이글루의 내부 벽(고체)에 물(액체)을 뿌려 주면, 물이 얼음이 되면서 응고열을 방출하는 원리에 의해 실내가 따뜻해진다고 하였다.

10 (가)의 ‘한 공동체의 문화·정치·환경적인 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된 기술’에서 적정 기술의 개념을,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고 자원을 적게 투자하면서도,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다.’에서 적정 기술의 장점을 알 수 있다. ‘페트병 전구’는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쉽게 만들 수 있고, 사용하기에도 간단하므로 적정 기술의 성공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③ 적정 기술의 사례라기보다는 첨단 기술의 사례로 적절하다.

④, ⑤ 적정 기술로 개발되었으나 현지 사정과 맞지 않아 실제로는 잘 사용되지 못한 사례이다.



쌤의 풀이

이 글에서 제시한 적정 기술의 개념과 장점을 먼저 확인해 보자. 그러면 어떤 것이 적정 기술로 개발된 것인지, 또 그중에서도 어떤 것이 성공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거야. 적정 기술은 최첨단 기술이 아니라, 현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저렴한 재료로 간단히 만들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야. 무엇보다도 현지에서 널리 사용되는 적정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사용할 공동체의 여러 상황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11 글쓴이의 제안은 (바)의 ‘우리도 과학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우리의 삶을 위한 적정 기술을 개발하여, 현대 사회의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 보자.’에 나타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글쓴이의 제안은 (바)에서 찾아 썼다.	☐
10자 이내의 한 문장으로 썼다.	☐

12 서남아시아의 흙벽돌 집에는 물질이 직접 이동하면서 열이 이동하는 대류 현상과, 액체가 열에너지를 흡수하면서 기체로 상태가 변하는 기화의 원리가 사용되었다.

(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배경지식

참고 자료

- 대류: 물질이 직접 이동하면서 열이 이동하는 것
 (예) 물을 가열하면 뜨거워진 물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물은 아래로 내려온다.
- 기화: 액체가 열에너지를 얻으면 기체로 상태가 변하는 것
- 액화: 기체가 열에너지를 잃으면 액체로 상태가 변하는 것
- 응고: 액체가 열에너지를 잃으면 고체로 상태가 변하는 것
- 융해: 고체가 열에너지를 얻으면 액체로 상태가 변하는 것
- 승화: 기체가 열에너지를 잃으면 고체로 상태가 변하는 것 또는 고체가 열에너지를 얻으면 기체로 상태가 변하는 것

(2) 설득의 힘을 기르는 토론



알짜 요약정리

12~13쪽

- | | | | |
|-------|-------|------|-------|
| 1 반박 | 2 입론 | 3 쟁점 | 4 자율화 |
| 5 논리적 | 6 타당성 | 7 신뢰 | 8 근거 |

어휘 시험

14쪽

- | | | | | |
|------|--------|-------|-------|------|
| 1 토론 | 2 논박하기 | 3 ㉠ | 4 ㉡ | 5 ㉢ |
| 6 ㉣ | 7 공정성 | 8 신뢰성 | 9 타당성 | 10 ㉤ |
| 11 ㉥ | | | | |

1 어떤 주제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규칙에 따라 자기주장을 정당화하여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듣기·말하기 활동은 '토론'이다.

2 토론에서 상대방의 주장과 근거를 분석하여, 상대방의 주장과 근거가 지닌 논리적 허점이나 오류에 대해 타당한 근거를 들어 조리 있게 비판하고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말하기는 '논박하기'이다.

3 '논제'는 토론 용어로, '토론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선정하는 어떤 제안이나 주장'이라는 뜻이다. 예를 들면 '교실에서의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해야 한다.'가 논제에 해당한다.

4 '반론'은 토론 용어로, '상대측의 주장을 조리 있게 비판하면서 자기 측 주장을 변호하는 단계'라는 뜻이다.

5 '입론'은 토론 용어로, '양측의 토론자가 자기 쪽의 주장을 밝히는 단계'라는 뜻이다.

6 '쟁점'은 토론 용어로, '토론에서 논제와 관련하여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이 엇갈리는 내용'이라는 뜻이다. 예를 들면 '교실에서의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해야 한다.'라는 논제에

대해 쟁점은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해야 한다.'나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해야 한다.' 등이 될 수 있다.

7 '공평하고 올바른 성질'을 뜻하는 단어는 '공정성'이다. '정확성'은 '바르고 확실한 성질, 또는 그런 정도'라는 뜻이다.

8 '굳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성질'을 뜻하는 단어는 '신뢰성'이다. '사실성'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그려 내려고 하는 경향을 띤 특성'이라는 뜻이다.

9 '사물의 이치에 맞는 옳은 성질'을 뜻하는 단어는 '타당성'이다. '보편성'은 '모든 것에 두루 미치거나 통하는 성질'이라는 뜻이다.

10 '어떤 모임이나 일에 같이 참가하다'를 뜻하는 단어는 '동참하다'이다. '동감하다'는 '어떤 견해나 의견에 같은 생각을 가지다'라는 뜻이고, '동반하다'는 '일을 하거나 길을 가는 따위의 행동을 할 때 함께 짝을 하다.',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 함께 생기기'라는 뜻이다. '동의하다'는 '의사나 의견을 같이하다.', '다른 사람의 행위를 승인하거나 시인하다'라는 뜻이다.

11 '어떤 일을 구속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 하도록 함'을 뜻하는 단어는 '자율화'이다. '방식화'는 '일정한 방법이나 형식을 갖추어 어떤 틀에 맞게 됨, 또는 맞게 함'이라는 뜻이다. '합리화'는 '이론이나 이치에 합당하게 함.', '낭비적 요소나 비능률적 요소를 없애 더 능률적으로 체제를 개선함.', '어떤 일을 한 뒤에, 자책감이나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것을 정당화함, 또는 그런 방어 기제'라는 뜻이다. '활성화'는 '사회나 조직 등의 기능이 활발함, 또는 그러한 기능을 활발하게 함'이라는 뜻이다.



꼭지 시험

15쪽

- | | | | |
|----------|------|------|-----|
| 1 고전적 토론 | 2 입론 | 3 반론 | 4 ㉠ |
| 5 ㉡ | 6 ㉢ | 7 ㉣ | 8 ㉤ |
| 9 ㉥ | | | |

1 고전적 토론은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각각 두 번의 입론과 반론을 펼치며 진행된다.

2 입론은 양측의 토론자가 자기 쪽의 주장을 밝히는 단계이다. 이때 토론자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나 사례를 들어 설득력을 높인다.

3 반론은 상대측의 주장을 조리 있게 비판하면서 자기 측 주장을 변호하는 단계이다. 상대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주장에 논리적 허점이나 오류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4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에어컨 사용 자율화에 찬성하는

입장이므로, 미국의 한 경제 연구소의 분석 결과 온도가 낮을 때 학생들의 시험 점수가 높았다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

5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에어컨 사용 자율화에 반대하는 입장이므로, 전 세계의 환경 문제가 심각하므로 학교도 환경을 지키는 일에 동참해야 함을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적절하다.

6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에어컨 사용 자율화에 반대하는 입장이므로, 한정된 학교의 운영 예산에서 전기 요금의 비율이 커지면, 학생들을 위한 교육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드는 것이 적절하다.

7 학생들의 행복 추구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에어컨 사용 자율화에 찬성하는 입장이므로,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의 행복 추구권을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8 학교 누리집 자유 게시판에 게시된 학생의 견해는 개인의 의견에 불과하므로, 주장에 대한 타당한 근거로 볼 수 없다.

9 토론 사회자는 토론의 쟁점을 확인하면서 토론자의 발표 내용을 정리하는 역할을 하지만, 토론자의 발표 내용을 평가하지는 않는다.

알짜 시험



16~17쪽

- 01 ②** **02 ③** **03 ④** **04 • ㉠: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해야 한다. • ㉡: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해야 한다.**
05 ② **06** 논제와 관련 없는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01 이 글에서는 찬성 측인 '나현'과 '미르', 반대 측인 '현중'과 '정은'이 각각 두 번의 입론을 펼치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① (가)에 제시된 사회자의 "우리 학교는 전체 학급의 냉방 상태를 중앙에서 제어하는데요, 최근에 중앙 냉방 방식에 불만이 있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학생들 스스로 에어컨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라는 발언에 토론을 하게 된 동기가 드러나 있다.

③ (나)와 (다)의 토론 내용을 통해서 첫 번째 쟁점이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와 (바)의 토론 내용을 통해서 두 번째 쟁점이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가)에 제시된 사회자의 "오늘은 '교실에서의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을 하겠습니다."라는 발언에 토론의 논제가 직접 드러나 있다.

⑤ 제시된 토론의 내용으로 볼 때, 양측의 토론자가 자기 쪽의 주장을 밝히는 입론 단계에 해당한다. 상대방의 주장을 조리 있게 비판하면서 자기 측 주장을 변호하는 단계는 반론 단계이다.

02 (다)의 '현중'은 "물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은 중

요합니다. 그래야 학습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테니까요."에서 상대의 의견을 일부 동의함으로써 자신이 경청하고 있음을 드러낸 후, 이어지는 내용에서 상대방과 반대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① (나)의 '나현'은 주장에 대한 근거로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의 결과와 헌법의 조항을 제시하였다.

② (다)의 '현중'은 "학교를 운영하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에어컨을 자율적으로 사용하면 전기 요금이 더 올라갈 것이고, 그만큼 학생들을 위한 교육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에서 에어컨을 자율적으로 사용했을 때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④ (마)의 '미르'는 권위 있는 기관인 미국의 경제 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다.

⑤ (바)의 '정은'은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 점점 앞당겨지고 있으며 이는 자원 소모가 빨라짐을 의미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 세계가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원을 아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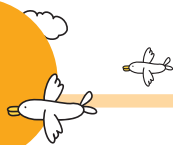
03 <보기>는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면 전기 요금 문제와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다)의 '현중'이 지적한 전기 요금 문제, (바)의 '정은'이 지적한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다.

04 서술형 (나)의 '나현'은 학생들의 행복 추구권을 근거로 에어컨 사용 자율화에 찬성하고 있고, (다)의 '현중'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근거로 에어컨 사용 자율화에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에는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마)의 '미르'는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에어컨 사용 자율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바)의 '정은'은 학교에서는 교과서에 수록된 지식뿐 아니라, 환경을 소중히 아끼고 가꾸어 가는 자세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에는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평가 기준	확인 ☒
㉠에 들어갈 내용을 정확하게 썼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정확하게 썼다.	☐
㉠과 ㉡을 각각 한 문장으로 썼다.	☐

05 (1)에서 토론자는 실내 온도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따라서 찬성 측의 주장이 공평하지 않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2)에서 토론자는 학교의 설립 목적을 근거로 들고 있다. 따라서 반대 측의 주장이나 근거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3)에서 토론자는 또 다른 실험 결과를 근거로 들고 있다. 따라서 찬성 측의 주장과 근거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06 서술형 <보기>의 내용은 논제와 관련이 없는 찬성 측 토론자의 평소 학습 태도를 근거로 들어 그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비난하고 있다.



(1) 마음을 나누는 문학



알자 요약정리

● 18~19쪽

- 1 불교 2 제사 3 재회 4 송고한 아람
다움 5 큰 거미 6 보드라운 종이
7 일제 강점기 8 수라

어휘 시험

20~21쪽

- 1 ㉠ 2 ㉡ 3 ㉢ 4 ㉣ 5 서러움
6 추모 7 메다 8 ㉤ 9 ㉥ 10 ㉦
11 ㉧ 12 아물거린다 / 아물거렸다 13 일러
14 머뭇거리는 15 차디찬 16 ㉨ 17 ㉩
18 ㉪, ㉫

1 '무상(無常)'은 '모든 것이 덧없음.'이라는 뜻이다. '오늘에 서야 인생의 허무와 무상을 느꼈다.'와 같이 쓸 수 있다.

2 '생사(生死)'는 '삶과 죽음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라는 뜻이다. '생사를 같이한 친구.', '생사가 걸린 문제.'와 같이 쓸 수 있다.

3 '수라(修羅)'는 '싸움 따위로 혼잡하고 어지러운 상태에 빠진 곳이나 그런 상태를 말함.'이라는 뜻이다.

4 '미타찰(彌陀刹)'은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서방 극락세계.'라는 뜻이다.

5 '서럽게 느껴지는 마음.'을 뜻하는 단어는 '서러움'이다. '서글픔'은 '쓸쓸하고 외로운 감정.'이라는 뜻이다.

6 '죽은 사람을 그리며 생각함.'을 뜻하는 단어는 '추모(追慕)'이다. '사모(思慕)'는 '애뜻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함.'이라는 뜻이다.

7 '어떤 감정이 복받쳐 목소리가 잘 나지 않다.'를 뜻하는 단어는 '메다'이다. '매다'는 '끈이나 줄 따위의 두 끝을 엮고 잡아당기어 풀어지지 아니하게 마디를 만들다.'라는 뜻이다.

8 '아미타불이 살고 있는 정토(淨土)로, 괴로움이 없으며 지극히 안락하고 자유로운 세상.'을 뜻하는 단어는 '극락세계'이다. '이승'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뜻이고, '무릉도원'은 '이상향', '별천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유토피아'

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를 갖춘 완전한 사회.'라는 뜻이다.

9 신라 때에,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국어 문장 전체를 적은 표기법은 '향찰'이다. '구결'은 '한문을 읽을 때 그 뜻이나 독송(讀誦)을 위하여 각 구절 아래에 달아 쓰던 문법적 요소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는 뜻이고, '언문'은 '예전에, 한글을 이르던 말.'이라는 뜻이고, '이두'는 '한자를 국어의 문장 구성법에 따라 고치고 이에 토를 붙인 것.'이라는 뜻이다.

10 '쉬이'는 '어렵거나 힘들지 아니하게.', '가능성이 많게.', '멀지 아니한 가까운 장래에.'라는 뜻이다. 제시된 문장에서는 '어렵거나 힘들지 아니하게.'라는 뜻으로 쓰였다. '맞부딪쳐 견디어 내거나 해결하기가 어렵게.'를 뜻하는 단어는 '난감히'이다.

11 '혼란'은 '뒤죽박죽이 되어 어지럽고 질서가 없음.'이라는 뜻이다. '걱정이나 탈이 없음.'을 뜻하는 단어는 '평강'이고, '여럿이 한데 뒤섞이어 어수선했다.'를 뜻하는 단어는 '혼잡'이고, '말이나 일 따위를 서로 다르게 파악하여 혼란이 생김.'을 뜻하는 단어는 '혼선'이다.

12 제시된 문장은 봄이 되어 산에 아지랑이가 핀다(꺾다)는 맥락이므로, '작거나 희미한 것이 보일 듯 말 듯 하게 조금씩 자꾸 움직이다.'를 뜻하는 단어인 '아물거린다'를 활용하여 쓰는 것이 적절하다.

13 제시된 문장은 아이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모두 알려 주었다는 맥락이므로, '무엇이라고 말하다.'를 뜻하는 단어인 '이르다'를 활용하여 쓰는 것이 적절하다.

14 제시된 문장은 그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고 주저하다가 어떤 행동을 했다는 맥락이므로, '말이나 행동 따위를 선뜻 결단하여 행하지 못하고 자꾸 망설이다.'를 뜻하는 단어인 '머뭇거리다'를 활용하여 쓰는 것이 적절하다.

15 제시된 문장은 장돌뱅이가 매우 찬 방에서 숨을 거두었다는 맥락이므로, '매우 차다.'를 뜻하는 단어인 '차디차다'를 활용하여 쓰는 것이 적절하다.

16 '가제'는 '갯', '방금'을 뜻하는 평안도 방언이다. '고이'는 '겉모양 따위가 보기에 산뜻하고 아름답게.'라는 뜻이고, '아리다'는 '마음이 몹시 고통스럽다.'라는 뜻이고, '울고불고'는 '소리 내어 야단스럽게 부르짖으며 우는 모양.'이라는 뜻이다. '고이', '아리다', '울고불고'는 모두 표준어에 해당한다.

17 <보기>에 쓰인 '예'는 '여기'의 준말이다. '여기'는 '말하는 이에게 가까운 곳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라는 뜻이다. ㉡의 '예'는 '본보기가 될 만한 사물.'이라는 뜻이다.

18 ‘ㄷ’의 ‘무서우이’는 ‘무서워하며’, ‘ㄹ’의 ‘나린’은 ‘내린’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 시적 허용에 해당하는 표현이다.

꼭지 시험

22쪽

1 추모

2 향찰

3 윤희 사상

4 아아

5 ×

6 ×

7 ○

8 ×

9 ②

10 ②

1 이 시가는 신라 경덕왕 때의 승려인 월명사가 죽은 누이를 추모하기 위해 제사를 지내며 부른 추모가이다.

2 이 시가는 신라 경덕왕 때의 승려 월명사가 지은 10구체 향가로,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국어 문장 전체를 적는 향찰로 기록되었다.

3 이 시가의 말하는 이는 죽은 누이와 미타찰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러한 믿음은 불교의 윤희 사상을 바탕으로 한다.

4 이 시가는 감탄사 ‘아아’를 전후로 하여 시상이 전환되고 있다. 말하는 이는 1~8구에서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삶의 허무함을 표현하고 있었지만, 9~10구에서는 슬픔을 극복하고 누이와 재회할 것을 기약하고 있다.

5 이 시가의 말하는 이는 누이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으로 작품을 끝맺지 않고, 불교의 윤희 사상을 바탕으로 누이와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6 향가는 신라 시대에 생겨나 고려 시대까지 이어진 노래로, 주로 향찰로 기록되었다. 향찰은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국어 문장 전체를 적은 표기법이다.

7 이 시가의 말하는 이는 한 부모 밑에서 나고 자란 누이가 세상을 떠난 것을, ‘한 가지’에서 난 ‘나뭇잎’들이 여기저기에 떨어지는 모습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8 이 시가의 말하는 이는 죽은 누이를 ‘이른 바람’에 떨어진 ‘나뭇잎’에 비유하여 표현하고는 있지만, 자연과 인간의 삶을 대조하고 있지는 않다.

9 1~4구에서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안타까움의 정서를, 5~8구에서는 삶의 무상함과 허무함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또한 9~10구에서는 종교적 힘으로 슬픔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이 시가에는 희망을 버리고 아주 단념하는 체념의 정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10 이 시가의 말하는 이는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극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말하는 이의 태도에서 숭고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꼭지 시험

23쪽

1 의인화

2 심화

3 붕괴(해체)

4 거미 가족

5 ○

6 ×

7 ○

8 문밖

9 차디찬 밤

10 ③

11 ③

1 이 시는 방 안에 들어온 ‘거미’를 의인화하여 표현함으로써, 가족 공동체가 해체된 우리 민족의 비극적 현실을 표현하고 있다.

2 이 시는 1연에서 3연으로 시상이 전개되면서 행의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말하는 이의 정서를 표현하는 시어의 수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이 시는 시상이 전개됨에 따라 행과 시어의 수를 늘리면서 슬픔의 정서를 심화시키고 있다.

3 이 시는 일제 강점기에 가족 공동체가 붕괴(해체)된 우리 민족의 비극적 현실을 뿔뿔이 흩어진 ‘거미 가족’의 모습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그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을 전하고 있다.

4 이 시는 1930년대에 창작되었으며, 일제의 수탈로 가족 공동체가 해체된 우리 민족의 비극적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을 표현한 작품이다. 시인은 이러한 우리 민족의 현실을 문밖으로 내몰린 ‘거미 가족’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5 이 시는 일제의 수탈이 극심해지던 1930년대에 창작되었으며, 일제의 수탈로 가족 공동체가 해체된 우리 민족의 현실을 표현하고 있다.

6 이 시의 말하는 이는 1연에서 방바닥에 나린 ‘거미 새끼’를 아무 생각 없이 문밖으로 쓸어 버렸을 뿐, 문밖으로 내보낸 ‘거미 새끼’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7 이 시의 말하는 이는 방에 들어온 ‘거미’들을 모두 ‘문밖’으로 내보내면서 ‘거미’들이 가족과 다시 만나기를 바라고 있다. 이는 가족 공동체가 붕괴된 우리 민족이 다시 공동체적 삶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시인의 소망을 담아낸 것이라 할 수 있다.

8 이 시의 말하는 이는 ‘거미’들을 모두 ‘문밖’으로 내보낸다. ‘문밖’은 차디찬 밤이라는 점에서 ‘거미’들에게 닥칠 시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거미 가족’이 다시 모일 수 있는 장소라는 점에서 재회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9 이 시의 말하는 이는 방에 들어온 ‘거미’를 ‘문밖’으로 내보낸다. 하지만 ‘문밖’은 차갑고 어둡기만 하다. 즉, ‘차디찬 밤’은 아무런 생각 없이 ‘거미’를 ‘문밖’으로 내보낸 말하는 이의 차가움을 부각하는 동시에, 일제의 수탈이 극심해지던 당시의 현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10 ‘서사’란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진행되는 과정, 인물의 행동이나 성격이 변화되는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차례대로

로 이야기하는 서술 방법이다. 이 시는 1연에서 3연으로 시상이 전개되면서 ‘거미 가족’에 대한 말하는 이의 행동과 이에 따라 심정이 변화하는 과정을 그리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사적 성격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11 이 시의 말하는 이는 1연에서 ‘거미 새끼’를 무심히 쓸어 문밖으로 버린다. 2연에서는 어미인 듯한 ‘큰 거미’를 문밖으로 버리면서 가슴이 찢어지면서 서러움을 느낀다. 3연에서는 ‘무척 작은 새끼 거미’를 문밖으로 버리면서 서러움과 슬픔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부끄러워하는 느낌이나 마음은 나타나지 않는다.

알짜 시험



24~27쪽

01 ④	02 ①	03 ④	04 ②	05 미타
찰	06 ①	07 ③	08 ③	09 ⑤
10 ②	11 차디찬 밤	12 ②	13 ②	
14 ②	15 ②	16 ②		

01 이 시가는 신라 시대에 생겨서 고려 초기까지 창작되고 불려졌던 향가이다(ㄷ). 향가는 신라 시대의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승려와 화랑이 주로 창작하였으며(ㄱ), 『삼국유사』에 수록된 14수와 『균여전』에 수록된 11수가 지금까지 전하고 있다(ㄴ).

오답인 이유 ㄱ. 향가는 향찰로 기록된 노래를 말한다. ‘향찰’은 우리말을 표기할 수 있는 문자가 없던 시절에, 한자의 뜻과 소리를 빌려 국어 문장 전체를 적은 표기법이다.

ㄴ. 향가의 주된 창작층은 승려와 화랑으로, 불교적 세계관을 표현하거나 신성에 대한 경외심, 나라에 대한 걱정, 송고한 이상 등을 주로 표현하였다.

향찰

향찰은 하나의 표기 체제로서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 국어 문장 전체를 적은 표기법으로, 특히 향가에 많이 표기되었기 때문에 향가식 표기법이라고도 일컫는다.

언문

‘언문’은 ‘한글’을 속되게 이르던 말이다. 한글을 평민이나 상민, 부녀자들이 쓰는 저급한 문자라고 여긴 양반이나 선비들이 주로 ‘훈민정음’을 ‘언문’이라고 낮추어 불렀다.

02 이 시가는 세상을 일찍 떠난 누이를 ‘이른 바람’에 ‘떨어질 잎’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감각적인 표현을 통해 작품의 서정성을 높이고 있다.

03 이 시가의 말하는 이는 누이가 일찍 세상을 떠난 것에 슬퍼하였지만, ‘미타찰’에서 다시 만날 것이기에 도를 닦으며 기다리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불교의 윤회 사상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현재의 슬픔과 고뇌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을 바탕으로 현재의 슬픔과 고뇌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말하는 이는 누이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상황에 만족한다고 볼 수 없다.

② 말하는 이는 누이의 죽음에 슬퍼하고 있을 뿐, 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③ 이 시가에 과거를 회상하거나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말하는 이가 ‘미타찰’에서 누이와 만날 것을 기약한 것은, 현실의 어려움을 피해 극락세계로 도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불교의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재회에 대한 믿음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윤회 사상

수레바퀴가 끊임없이 구르는 것과 같이, 중생이 생사를 거듭하며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삼계육도를 떠돈다고 보는 사상. 윤회 사상은 업과 더불어 불교의 세계관의 이론적 준거라 할 수 있다. 불교의 윤회 사상은 동양인들은 물론 『싯다르타』, 『데미안』 등을 저술한 헤르만 헤세를 비롯한 서구의 작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04 이 시가의 말하는 이는 ‘기(1~4구)’에서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고뇌를 표현하고 있고, ‘서(5~8구)’에서는 유한한 삶에 대한 허무함과 무상함을 표현하고 있다. ‘결(9~10)’에서는 불교의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누이와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슬픔을 극복하고 있다.

05 **서술형** <보기>에서 ‘극락세계가 있다고 알려진 서쪽’은 누이가 죽은 뒤에 떠나간 사후 세계임을 짐작할 수 있다. ‘미타찰’은 이 시가의 말하는 이가 죽은 누이와 다시 만나게 될 곳으로 여기는 곳이자, 말하는 이가 추구하는 이상적 세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비슷하다.

06 <보기>의 말하는 이(㉞)는 먼 미래에 자신을 떠난 ‘당신’과 다시 만나게 될 것을 가정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 시가의 말하는 이(㉞)는 죽은 누이와 ‘미타찰’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고 있다. 이로 보아 ㉞와 ㉞는 모두 시적 대상과의 재회를 바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② ㉞는 죽은 누이와 다시 만날 때까지 도를 닦으며 기다리겠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미래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말하기 어렵다. 또한 ㉞ 역시 사랑하는 당신과 다시 만나게 될 순간을 가정하고 있을 뿐, 회의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③ ㉞와 ㉞는 모두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실수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 않다.

④ ㉞는 비유 표현을 활용하여 죽은 누이에 대한 슬픔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 자신의 속마음과 반대로 말하고 있지는 않다. 반면에 ㉞는 당신과 다시 만나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으면서도 당신을 잊었다면서 속마음과 반대로 말하고 있다.

⑤ ㉞는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종교적 신념으로 극복하고 있다. 반면에 ㉞는 당신이 부재한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하고 있지 않다.

참고 자료

김소월, 「먼 후일」

- 갈래: 현대 시, 자유시, 서정시
- 성격: 서정적, 민요적, 애상적
- 제재: 사랑하는 임과의 이별
- 주제: 떠난 임을 잊을 수 없는 마음
- 특징:
 - 같거나 비슷한 시어 및 시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함.
 - 반어 표현을 사용하여 의미를 강조함.
- 해제: 이 시는 떠난 임을 잊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말하는 이는 먼 훗날 언젠가 '당신'이 다시 자신을 찾아올 상황을 가정하여, 그때에 '당신'을 잊었다고 말하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잊고'라는 구절에서, 말하는 이가 사실은 '당신'을 잊지 못했으며, 언제까지고 '당신'을 그리워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이 시는 가정법과 반복법, 반어법을 활용하여 '당신'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말하는 이의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07 이 시가를 감상한 학생은, 말하는 이가 종교의 힘으로 슬픔을 극복하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인간이 아무리 추구해도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경지나 현실 세계를 초월한 것에서 느끼는 아름다움을 숭고미라고 한다.

08 이 시의 3연에 거미 가족의 재회를 바라는 말하는 이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지만, 차갑고 어려웠던 과거와 따뜻하고 안락한 현재를 대비함으로써 말하는 이가 추구하는 세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인 이유 ①, ④ 이 시의 말하는 이는 1연에서부터 3연에 이르기까지 방 안에 들어온 거미를 문밖으로 쫓아 버리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 또한 시상이 전개되면서 행의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말하는 이의 정서를 표현하는 시어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 시는 말하는 이의 반복된 행동을 통해 시상이 전개되면서, 말하는 이의 정서가 점차 심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② 이 시는 '거미 가족'을 사람처럼 표현함으로써, 일제 강점기에 가족 공동체가 해체된 우리 민족의 비극적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

⑤ 말하는 이의 정서는 '가슴이 찢긴다', '서러워한다',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 '서럽게 한다', '슬퍼한다'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09 이 시의 말하는 이는 2연에서 방 안에 들어온 '큰 거미'를 '문밖'으로 쫓아 버리면서 새끼 있는 데로 가라고 한다. 이를 통해 말하는 이가 2연의 '큰 거미'를 1연에서 무심히 쫓아 버린 '거미 새끼'의 어미로 여겼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즉, 말하는 이는 자신이 아무 생각 없이 '거미 새끼'를 문밖으로 쫓아 버린 행동 때문에 '어미 거미'와 '새끼 거미'가 헤어지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가슴이 찢긴함을 느끼면서 서러워한 것이다.

오답인 이유 ① 이 시의 말하는 이는 자신이 '문밖'으로 쫓아 버린 '거미 가족'이 다시 만나기를 바라고 있다. 이를 통해 해체된 가족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② 이 시의 말하는 이가 '거미 가족'의 생명력을 긍정적으로 인식한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이 시의 말하는 이가 3연에서 '무척 작은 새끼 거미'를 바라보면서 가슴이 메이는 듯한 것은, 가족을 잃어 버린 '새끼 거미'에 대한 안타까움과 연민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새끼 거미'를 자신과 동일시한 것은 아니다.

④ 이 시의 말하는 이가 '큰 거미'를 거칠게 다루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10 이 시는 일제의 수탈이 극심해지면서 우리 민족의 공동체적인 삶이 파괴되던 시절이었던 일제 강점기인 1930년대에 창작된 작품이다. 이를 고려할 때 '헤어져 서로를 찾고 있는 거미 가족'은 가족 공동체가 해체된 우리 민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11 **서술형** 1연에서 말하는 이가 방 안에 들어온 '거미 새끼'를 무심히 쫓아 버린 '문밖'은 차갑고 어둡지만 하다. 즉, 그 공간은 '거미 새끼'에게 혹독한 시련을 안겨 주는 곳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차디찬 밤'은 시련의 공간으로 '거미 새끼'를 내몬 말하는 이의 무심함과 차가움을 부각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창작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일제의 수탈과 탄압으로 인한 우리 민족의 시련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12 3연에서 말하는 이가 방 안에 들어온 '무척 작은 새끼 거미'를 '문밖'으로 쫓아 버리면서 '이것의 엄마와 누나나 형이 가까이 이것의 걱정을 하며 있다가 쉬이 만나거나 했으면 좋으련만'이라고 생각한 것에서, '문밖'은 '거미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13 말하는 이가 방 안에 들어온 거미들을 모두 '문밖'으로 쫓아 버린 것은, 자신이 무심코 한 행동 때문에 흩어진 '거미 가족'이 다시 만나기를, 더 나아가 일제의 수탈로 가족 공동체가 붕괴된 우리 민족이 다시 공동체적 삶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 민족이 느꼈을 좌절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감상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14 (나)에게 '아전'이 '홍부'에게 "아니 백씨장이 만석 거부인 데 박 생원이 환자 얻는단 말이 어쩐 말이요?"라고 한 것에서, '홍부'의 형이 '홍부'의 막한 상황을 외면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다)에서 '홍부'가 "여보 마누래 어디 갔소? 대장부 한 번 걸음에 엽전 서른댓 냥이 들어온다네. 거저문 여소 돈 들어가요."라고 한 것에서, '홍부'가 돈을 벌게 되어 의기양양해졌음을 알 수 있다.

③ (가)에서 '홍부'가 양반 체면에 '아전'에게 존댓말을 쓸 수 없다며 꾀를 내는 장면에서, '홍부'가 가난하여 환자를 빌리러 가는 처지에도 양반 체면을 세우려 했음을 알 수 있다.

④ (라)에서 '홍부 아내'가 '홍부'에게 매품을 팔지 말라고 간곡하게 권유하는 데에서 '홍부'가 매품 파는 일을 그만두기를 바랐음을 알 수 있다.

⑤ (라)에서 '홍부'가 '홍부 아내'에게 돈을 벌게 된 경위를 말하면서 "여보, 이게 비밀이니 말을 내면 안 돼요. 만약 뒷집 피수 아비가 알면 발등거리를 할 테니, 쉬-."라고 한다. 이를 통해 '홍부'는 자신이

매품을 팔게 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비밀로 하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5 ㉠은 ‘아전’이 “아니 백씨장이 만석 거부인데 박 생원이 환자 얻는단 말이 어쩐 말이요?”라고 말하면서 의문을 품자, ‘홍부’가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형을 감싸주기 위해 말한 것이다.

16 (나)의 ‘홍부’가 ‘아전’에게 존댓말을 쓰지 않기 위해 피를 내는 장면, (라)의 ‘홍부’가 걱정하는 아내를 달래기 위해 농담을 건네는 장면에서 ‘홍부’의 말과 행동을 익살스럽게 표현하여 해학적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다.

(2) 삶을 말하는 문학



알짜 요약정리

● 28~29쪽

- 1 연탄 배달 2 노새 3 당혹감 4 대뽀집
- 5 생계 6 문화 주택 7 도시 하층민
- 8 (육이오) 전쟁

* 어휘 시험

30~31쪽

- 1 ㉠ 2 ㉠ 3 ㉠ 4 시망스럽다
- 5 아랑곳하다 6 수소문 7 오기 8 ㉡
- 9 ㉡ 10 ㉣ 11 낭패 12 인파 13 경황
- 14 ㉢ 15 ㉡ 16 (1) × (2) ○ 17 (1) × (2) ○

1 ‘변연히’는 ‘어떤 일의 결과나 상태 따위가 환하게 들여다보이듯이 분명하게.’라는 뜻이다. ‘변연히 잘못된 일인 줄을 알면서, 우리는 그 일을 하고야 말았다.’와 같이 쓸 수 있다.

2 ‘불현듯’은 ‘갑자기 어떠한 생각이 겹잡을 수 없이 일어나는 모양.’이라는 뜻이다. ‘불현듯 어린 시절이 떠오르다.’와 같이 쓸 수 있다.

3 ‘황망히’는 ‘마음이 몹시 급하여 당황하고 허둥지둥하는 면이 있게.’라는 뜻이다. ‘그는 인사할 겨를도 없이 황망히 떠났다.’와 같이 쓸 수 있다.

4 ‘몹시 짓궂은 데가 있다.’를 뜻하는 5음절 단어는 ‘시망스럽다’이다. ‘그는 말을 시망스럽게 해 다른 사람을 당황스럽게 한다.’와 같이 쓸 수 있다.

5 ‘일에 나서서 참견하거나 관심을 두다.’를 뜻하는 5음절 단어는 ‘아랑곳하다’이다. ‘그는 그녀의 기분 따위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마주 앉았다.’와 같이 쓸 수 있다.

6 ‘세상에 떠도는 소문을 두루 찾아 살핌.’을 뜻하는 3음절 단어는 ‘수소문’이다. ‘수소문 끝에 우리는 그 지역 사람들만 다니는 식당을 찾을 수 있었다.’와 같이 쓸 수 있다.

7 ‘능력은 부족하면서도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마음.’을 뜻하는 2음절 단어는 ‘오기’이다. ‘오기로 버티다.’, ‘오기가 나다.’와 같이 쓸 수 있다.

8 ‘사람이 많이 살고 상공업이 발달한 번잡한 지역.’을 뜻하는 단어는 ‘대저’이다. ‘교외’는 ‘도시의 주변 지역.’이라는 뜻이고, ‘마을’은 ‘주로 시골에서,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이라는 뜻이고, ‘변두리’는 ‘어떤 지역의 가장자리가 되는 곳.’이라는 뜻이다.

9 ‘많은 사람이 야단스럽게 부산을 떨며 법석이는 일.’을 뜻하는 단어는 ‘북새’이다. ‘깼새’는 ‘어떤 일을 알아차릴 수 있는 눈치. 또는 일이 되어 가는 야릇한 분위기.’라는 뜻이고, ‘분쟁’은 ‘갈라져 다툼.’이라는 뜻이고, ‘추세’는 ‘어떤 현상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이라는 뜻이다.

10 ‘먼저 자리를 잡은 사람이 뒤에 들어오는 사람에 대하여 가지는 특권 의식. 또는 뒷사람을 업신여기는 행동.’을 뜻하는 단어는 ‘뒷세’이다. ‘권세’는 ‘권력과 세력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라는 뜻이고, ‘위세’는 ‘지위와 권세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라는 뜻이고, ‘유세’는 ‘자랑삼아 세력을 부림.’이라는 뜻이다.

11 제시된 문장은 벌써 기차가 떠난 사실에 대한 어떤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맥락이므로, 빈칸에는 ‘계획한 일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기대에 어긋나 매우 딱하게 됨.’을 뜻하는 단어인 ‘낭패’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2 제시된 문장은 아버지가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무엇인가를 헤치고 앞으로 나아갔다는 맥락이므로, 빈칸에는 ‘사람의 물결이란 뜻으로, 수많은 사람을 이르는 말.’을 뜻하는 단어인 ‘인파’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3 제시된 문장은 그가 어떤 사정 때문에 무엇 하나 가져오지 못했다는 맥락이므로, 빈칸에는 ‘정신적·시간적인 여유나 형편.’을 뜻하는 단어인 ‘경황’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4 제시된 문장은 점심을 제대로 먹지 못해 배가 몹시 곪았다는 맥락이다. 따라서 ‘설치다’는 ‘필요한 정도에 미치지 못한 채로 그만두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구 날뛰어서’, ‘찬찬하지 못하고 조급하게 행동하여서.’를 뜻하는 단어는 ‘설쳐서’이다. ‘숨이 막힐 듯이 갑작스럽게 겁을 내며 놀라서.’를 뜻하는 단어는 ‘기겁해서’이다.

15 제시된 문장은 ‘나’가 그가 한 말을 마음속에서 거듭 떠올려 보았다는 맥락이다. 따라서 ‘뇌다’는 ‘지나간 일이나 한 번 한 말을 여러 번 거듭 말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걱정이나 근심, 긴장 따위가 사라지거나 풀리고.’를 뜻하는 단어는 ‘놓이고’이다. ‘여러 사람이 모여 소란스럽게

떠드는 소리가 자꾸 나고.’를 뜻하는 단어는 ‘웅성거리고’이다. ‘굵은 체에 찐 가루를 더 곱게 하려고 가는 체에 다시 치고’를 뜻하는 단어는 ‘뇌고’이다.

16 (1) 제시된 문장은 생각의 갈피를 잡지 못해 잠을 못 잤다는 맥락이다. 따라서 ‘궁싯거리다’는 ‘잠이 오지 아니하여 누워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거리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제시된 문장은 면접관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다가 인사를 했다는 맥락이다. 따라서 ‘궁싯거리다’는 ‘어찌할 바를 몰라 이리저리 머뭇거리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17 (1) 제시된 문장은 그의 어떠한 성질 때문에 그가 자주 실수를 저지른다는 맥락이다. 따라서 ‘데면데면하다’는 ‘성질이 꼼꼼하지 않아 행동이 신중하거나 조심스럽지 않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제시된 문장은 그들 간의 관계가 좋지 않아 서로의 시선을 피했다는 맥락이다. 따라서 ‘데면데면하다’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친밀감이 없이 예사롭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꼭지 시험

32~33쪽

- | | | |
|-----------------------|-----------------------|--------------|
| 1 1970, 변두리 | 2 어린아이(소년) | 3 구동네 |
| 4 × 5 × | 6 ○ 7 나 | 8 아버지 |
| 9 칠수 어머니 | 10 동물원 | 11 눈발 |
| 나그네 13 ① | 14 ① | 15 ④ |

1 이 소설은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여, 도시 변두리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하층민의 애환을 그린 작품이다.

2 이 소설은 연탄 배달을 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어린아이(소년)인 ‘나’의 눈을 통해 그리고 있다.

3 구동네 사람들은 연탄 배달, 뽕튀기 장사, 번데기 장사, 시장 경비, 포장마차 장사 등을 하며 대부분 그날그날 벌어들여 사는 가난한 도시 하층민이다.

4 ‘아버지’는 삼륜차가 등장하여 자신의 일감을 빼앗아 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휘발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자동차만 많으면 뭘 해.”라고 말하면서, ‘연탄 마차’ 끄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 이처럼 ‘아버지’는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옛것만을 고집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5 구동네 사람들은 새 동네가 들어선 것을 반기기는 하였지만, 새 동네 사람들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누가 다가오는 것을 거절하고 있었다. 이로 보아 구동네 사람들과 새 동네 사람들이 사이좋게 어울리며 살아갔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6 하루 종일 ‘노새’를 찾다가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낮에 순경이 찾아와 ‘노새’가 입힌 피해 때문에 ‘아버지’를 체포하려 왔었다는 소식을 듣고 집을 나간다.

7 ‘아버지’가 말과 ‘노새’를 바꾼 뒤, ‘나’는 ‘노새’와 가까이 생활하면서 ‘노새’를 정성껏 돌보아 주었다.

8 ‘아버지’가 “휘발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자동차만 많으면 뭘 해.”라고 말한 것에서 ‘아버지’가 자신이 평생 동안 해 왔던 마차 끄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버지’가 ‘노새’를 찾지 못한 뒤 “이제부터 내가 노새다. 이제부터 내가 노새가 되어야지 별수 있니?”라고 말한 것에서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 순경이 집에 찾아왔었다는 말을 듣고 집을 나서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나’는 ‘칠수 어머니’가 했다는 말을 떠올린다. ‘칠수 어머니’는 “최소한도 자동차는 굴러야지 지금이 어느 켜 노새를 부려.”라고 말하면서, 산업화 시대에 ‘노새’를 부리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10 ‘나’와 ‘아버지’는 ‘노새’를 찾아 헤매다가 해가 질 무렵에 ‘동물원’에 들어갔다.

11 ‘눈발’은 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며, 을씨년스러우며 외롭고 쓸쓸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소재이다. 또한 ‘나’와 ‘아버지’가 ‘노새’를 찾는 일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

샘의 풀이

소설의 배경이란 작품 속에서 등장인물이 행동하거나 사건이 벌어지는 시간과 장소, 사회적인 분위기 등을 말해, 이러한 배경은 작품 속 내용이 사실처럼 느껴지도록 현실성과 생동감을 부여하고, 인물의 심리나 사건을 암시해서 이어질 내용을 예측하게 하는 역할을 해. 또한 배경 자체가 작품의 주제를 드러내기도 하지. ‘나’와 ‘아버지’가 ‘노새’를 찾으러 다닐 때 흘날리는 ‘눈발’은 이 글의 계절적 배경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을씨년스럽고 쓸쓸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해. 또 ‘나’와 ‘아버지’가 ‘노새’를 찾는 일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암시하는 역할도 하고 있어. 이처럼 배경은 작품에서 특정한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배경들 덕분에 사건이 더욱 흥미진진하게 전개될 수 있단다.

12 ‘노새’를 찾을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암담한 상황에서 ‘나’는 “나는 그런 우리가 옛날얘기에 나오는 길 잃은 나그네 같다.”라고 하였다.

13 ‘구멍가게’는 ‘조그맣게 차린 가게’라는 뜻으로, 오늘날에도 사용되는 말이다. ‘문화주택’, ‘통행금지’, ‘슬래브 집’은 1970년대의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소재이다.

14 ‘아버지’는 ‘대포집’에서 술을 마시며 “이제부터 내가 노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자신이 노새처럼 살겠다는 결심을 내비치고 있다.

15 ‘얼룩말’은 동물원에서 ‘나’가 ‘노새’를 떠올리게 하는 존재로, ‘나’로 하여금 ‘아버지’와 ‘노새’를 비슷하다고 인식하게 하는 소재이다.

꼭지 시험

33쪽

- 1 ○ 2 ○ 3 × 4 폭격 5 인민군
6 우정 7 낯설고 두려움 8 옥수수

1 이 수필은 유년 시절에 육이오 전쟁을 겪었던 글쓴이의 추억이 담겨 있다.

2 이 수필의 끝부분에서 전쟁이라는 상황 탓에 ‘인민군’ 소년병이 다시 일선으로 가게 되자 충을 잡고 울면서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었다고 하였다.

3 글쓴이는 유년 시절을 추억하고 있을 뿐, 그 당시에 만났던 ‘인민군’ 소년병과의 재회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4 이 수필에서 당시는 전쟁 중이라 폭격이 자주 있었고, 폭격으로 아이들이 다치기도 했다고 하였다.

5 글쓴이는 처음 부분에서 6월이 되면 육이오 전쟁 당시에 만났던 ‘인민군’의 낯선 얼굴을 떠올리게 된다고 하였다.

6 이 수필은 육이오 전쟁 당시 만났던 ‘인민군’ 병사와 아이들의 우정을 주제로 한 작품이다.

7 아이들은 어느 날 갑자기 성당 수위실에 보초를 서기 시작한 ‘인민군’을 보면서, 처음에는 ‘인민군’을 낯설어하고 두려워하였다.

8 삶은 옥수수와 고구마를 먹고 있을 때 ‘인민군’이 다가오는 것을 본 아이들은 두려움을 느낀다. 하지만 ‘인민군’이 옛된 목소리로 “강냉이 맛있니?” 하고 묻자 아이들은 옥수수를 ‘인민군’에게 건네고, ‘인민군’은 옥수수를 크게 한 입 먹는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이들은 ‘인민군’ 역시 평범한 소년임을 깨닫고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된다.

알짜 시험

34~37쪽

- 01 ⑤ 02 ② 03 ① 04 ⑤ 05 가엾게도 노새가, 변해 갔다. 06 ⑤ 07 검은 물 08 ②
09 ④ 10 ④ 11 ④ 12 ⑤ 13 • 인물: 아버지 • 인물의 의미: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된 존재

01 (가)를 통해 도시 변두리에도 문화 주택이 들어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 주택은 1950년대 후반부터 등장한 새로운 형식의 주택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택이 도시 변두리에도 생겼다는 것을 통해 도시화의 영향으로 도시 변두리도 변하고 있었던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알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나)를 통해 구동네 사람들이 동네에 문화 주택이 들어선 것을 은근히 반겼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보아 산업화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글에서 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1970년대에는 오히려 지방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③ 이 글의 배경인 1970년대에는 ‘삼륜차’와 같은 새로운 운송 수단이 등장하면서 ‘마차’와 같은 과거의 운송 수단은 점차 사라지고 있었다.

④ ‘아버지’가 연탄 배달 일을 하고 있는 것에서 사람들이 연탄을 많이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지만, 가스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는지는 이 글을 통해 알기 어렵다.

02 (나)에서 서술자인 ‘나’가 “다만 그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구동네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조금 달라지기는 했는데 …… 새 동네가 생긴 것을 은근히 싫어하지는 않는 눈치였지만”이라고 한 것에서 구동네 사람들이 문화 주택이 들어선 것을 은근히 반겼음을 짐작할 수 있다.

03 (다)에서 새 동네 아이들이 ‘노새’에 관심을 보이면, ‘나’는 자신의 물골도 생각하지 않고 어깨가 으쓱해졌다고 말하면서, ‘아버지’ 역시 그런 심정인지 괜히 “이랴 이랴!”이라고 하면서 고삐를 잡아끌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아버지’ 역시 자신이 부리던 ‘노새’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04 (라)를 통해 ‘나’와 ‘아버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노새’가 힘을 쓰지 못해 연탄 마차 끄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나’의 가족이 ⑤와 같이 반응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05 **서술형** (마)에서 ‘나’의 집에 들어온 ‘노새’는 연탄 배달을 하면서 차츰 연탄 때가 묻어 점점 ‘검은빛’으로 변해 갔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탄 때는 ‘노새’가 연탄을 나르는 고된 노동에 찌들어 가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는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이런 ‘노새’를 털어 주고 닦아 주면서 ‘노새’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06 이 소설은 1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어린아이인 ‘나’의 눈을 통해 도시에서 고달프게 살아가는 ‘아버지’의 삶을 관찰하여 전달하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① 이 소설은 작품 안의 서술자인 ‘나’가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또한 ‘나’가 살고 있는 동네의 분위기, 도시의 모습 등을 묘사하여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을 뿐, 직접적으로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

②, ③ 이 소설은 등장인물인 '나'가 '아버지'의 삶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전달하고 있다. 또한 '나'가 '아버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을 뿐, '아버지'를 논평하고 있지는 않다.

④ 이 소설에 등장하는 '나'는 주인공인 '아버지'를 관찰하는 서술자이자, 주변 인물이다.

07 서술형 (라)에 나타난 '나'의 꿈속에서 '노새'는 온몸에 '검은 물'이 흐르는데도 멈추지 않고 달리고 있다. 이 '검은 물'은 '노새'가 연탄 배달 일을 하면서 몸에 찌든 연탄 때로, 도시에서 힘겹게 살아야 했던 '노새'의 고된 노동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다.

08 마차가 내박쳐지면서 '노새'가 도망치자 '아버지'는 얼굴이 새하얘졌다. 이는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아버지'의 심리를 나타내기에는, '멍하니 정신을 잃음.'을 뜻하는 '망연자실'이 적절하다.

오답인 이유 ① '기사화생'은 '거의 죽을 뻔하다가 도로 살아남.'을 뜻한다.

③ '망운지정'은 '자식이 객지에서 고향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을 뜻한다.

④ '오매불망'은 '자나 깨나 잊지 못함.'을 뜻한다.

⑤ '호사다마'는 '좋은 일에는 흔히 방해되는 일이 많음. 또는 그런 일이 많이 생김.'을 뜻한다.

09 과거의 삶이 반영된 문학 작품을 감상하면 과거의 삶과 오늘날의 삶을 서로 비교해 보면서, 시대에 따른 인식의 변화 속에서도 오늘날까지 변하지 않는 가치나,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새롭게 평가될 수 있는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문학 작품을 바탕으로 과거와 오늘날의 삶을 비교할 때에는 사실과 진실에 기반해야 한다. (라)에는 '나'의 꿈속에서 '노새'가 고속 도로를 달리는 장면이 제시된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꿈속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동물이 고속 도로를 달리기도 했다고 일반화하는 것은 적절한 감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답인 이유 ① (다)에서 '아버지'가 통행금지 시간이 거의 되어서 돌아왔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그러한 제도가 없는 오늘날과 비교해 볼 수 있다.

② (나)와 (다)에는 연탄 마차를 끌고 가파른 골목길을 오르기 위해 찢쩍대는 '아버지'와 '나'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과 도망치는 '노새'를 구경거리 삼아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과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을 비교해 볼 수 있다.

③ 이 소설의 시대적 배경은 1970년대이다. 당시에는 '삼륜차'와 같은 새로운 운송 수단이 '마차'와 같은 과거의 운송 수단을 점차적으로 대체하였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삼륜차'를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당시와 오늘날을 비교해 볼 수 있다.

⑤ 예나 지금이나 휘발유가 생산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오늘날에는 자동차의 수가 더 많아졌으므로, 당시와 오늘날의 모습을 비교해 볼 수 있다.

10 (다)에서 '아버지'가 술을 거꾸 마시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만, 술을 마시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인 이유 ① (나)에서 '나'는 얼룩말을 보면서 '노새'를 떠올리고는, '노새'와 '아버지'가 닮았다고 생각하여 '아버지'와 '얼룩말'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다.

② (가)를 통해 '나'와 '아버지'가 거리에서 '노새'를 찾아 헤매고 있던 중에 '눈발'이 비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③, ⑤ (라)에서 '아버지'는 순경이 찾아와 '노새'가 입힌 피해 때문에 자신을 잡아가겠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 절망한 채 집을 나가고 있다. 하지만 '아버지'의 절망감을 아무 말 없이 소적소적 문밖으로 걸어 나가는 모습으로 절제하여 표현하고 있다. 또한 '나'는 집을 나가는 '아버지'를 걱정하여 '아버지'의 뒤를 따르고 있다.

11 '아버지'가 ㉠처럼 행동한 것은, '노새'가 일으킨 절망스러운 상황 때문에 망연자실하였기 때문이지, '노새'가 입힌 피해를 보상할 방법을 찾으려고 고민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인 이유 ① '아버지'와 '나'는 '노새'를 찾아 헤매고 다녔지만, '노새'를 찾을 방법을 몰라 막막한 처지에 몰려 있다. 이러한 상황을 '나'는 '길 잃은 나그네'에 비유한 것이다.

② '나'는 '얼룩말'을 보면서 '노새'와 '아버지'의 형상이 닮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나'가 '얼룩말'과 '아버지'의 모습을 번갈아 보는 행동은, '나'가 '아버지'와 '노새'의 동질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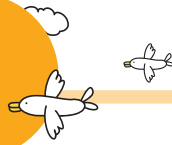
③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노새'가 사라지자 '아버지'는 자신이 '노새'가 되겠다고 다짐한다. 이것은 '노새'를 대신해서 자신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겠다는 '아버지'의 의지가 담긴 말이다.

⑤ '나'는 이 소설의 서술자로, 작가의 시선과 태도를 대변하고 있다. ㉠에는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아버지'에 대한 '나'의 안타까운 심정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도시화·산업화라는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된 존재에 대한 작가의 안타까움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12 ㉡는 이 소설의 계절적 배경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을씨년스럽고 암울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노새'를 찾아 헤매고 있는 '나'와 '아버지'를 더욱 힘겹게 만든다는 점에서, '노새'를 찾는 일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암시하는 역할을 한다.

13 서술형 '또 한 마리의 노새'는 자신이 기르던 '노새'가 일으킨 피해 때문에 절망한 채 집을 나가는 '아버지'를 의미한다. '나'가 "우리 같은 노새는 어차피 …… 생각이 들었다."라고 표현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버지'는 도시에서 어떻게든 살아 보려고 노력하였지만 결국 좌절하고 만다. 즉, '아버지'는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한 채 소외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가 의미하는 인물을 정확하게 썼다.	☐
㉡가 의미하는 인물의 상징적인 의미를 한 문장으로 썼다.	☐



(1) 음운의 세계



알자 요약정리

● 38~39쪽

- | | | | |
|------------|-------|---------|-------|
| 1 자음 | 2 ㄹ | 3 파열음 | 4 된소리 |
| 5 소리 나는 위치 | 6 콧소리 | 7 이중 모음 | |
| 8 후설 모음 | | | |

어휘 시험

40쪽

- | | | | | |
|-------|------|------|-------|-------|
| 1 ㉠ | 2 ㉡ | 3 ㉢ | 4 ㉣ | 5 개념 |
| 6 체계 | 7 특성 | 8 확보 | 9 단면도 | 10 추진 |
| 11 소외 | | | | |

1 '분류하다'는 '종류에 따라서 가르다.'라는 뜻이다. '식물을 형태에 따라 몇 가지로 분류하다.'와 같이 쓸 수 있다.

2 '발음하다'는 '음성을 내다.'라는 뜻이다. '영어 철자를 하나 하나 또박또박 발음해 보아라.'와 같이 쓸 수 있다.

3 '유의하다'는 '마음에 새겨 두어 조심하며 관심을 가지다.'라는 뜻이다. '건강에 유의하다.'와 같이 쓸 수 있다.

4 '신설하다'는 '새로 설치하거나 설비하다.'라는 뜻이다. '신도시에는 초등학교를 더 많이 신설해야 한다.'와 같이 쓸 수 있다.

5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뜻하는 말은 '개념'이다. '의의'는 '어떤 사실이나 행위 따위가 갖는 중요성이나 가치.'를 뜻하는 말이다.

6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낱말의 부분이 짜임새 있게 조직되어 통일된 전체.'를 뜻하는 말은 '체계'이다. '규칙'은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지키기로 작정한 법칙. 또는 제정된 질서.'를 뜻하는 말이다.

7 '일정한 사물에만 있는 특수한 성질.'을 뜻하는 말은 '특성'이다. '성분'은 '사물이나 현상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을 뜻하는 말이다.

8 '확실히 보증하거나 가지고 있음.'을 뜻하는 말은 '확보'이다. '확대'는 '모양이나 규모 따위를 더 크게 함.'을 뜻하는 말이다.

9 '물체를 평면으로 잘랐다고 가정하여 그 내부 구조를 나타낸 그림.'을 뜻하는 말은 '단면도'이다. '투시도'는 '어떤 시점에

서 본 물체의 형태를 평면상에 나타낸 그림.'을 뜻하는 말이다.

10 '목표를 향하여 밀고 나아감.'을 나타내는 말은 '추진'이다. '추징'은 '부족한 것을 뒤에 추가하여 징수함.'을 뜻하는 말이다.

11 '어떤 무리에서 기피하여 따돌리거나 멀리함.'을 나타내는 말은 '소외'이다. '주시'는 '어떤 목표물에 주의를 집중하여 봄.'을 뜻하는 말이다.

꼭지 시험

41쪽

- | | | | | |
|------|-------|-----------|-----|------|
| 1 음운 | 2 콧소리 | 3 거센소리 | 4 ㉠ | 5 ㉡ |
| 6 ㉢ | 7 × | 8 ㅅ, ㅆ, ㅈ | 9 ㅎ | 10 ㉣ |
| 11 ㉤ | 12 ㉥ | | | |

1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는 '음운'이다.

2 자음에서 입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는 '콧소리'이다.

3 자음에서 성대 주위의 근육을 긴장시켜 내는 소리 중, 숨이 거세게 터져 나오는 소리는 '거센소리'이다.

4 자음에서 성대 주위의 근육을 긴장시켜 내는 소리 중, 숨이 적게 터져 나오는 소리는 '된소리'이다.

5 소리를 낼 때 입술이나 혀가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모음을 '단모음'이라고 한다.

6 우리말의 단모음은 10개, 이중 모음은 11개이므로 합하면 총 21개이다.

7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을 나누는 기준은 발음할 때 '입술의 모양'이 아니라 '혀의 최고점의 위치'이다. 즉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입천장의 중간점보다 앞쪽에 있느냐 뒤쪽에 있느냐에 따라 나뉜다.

8 센입천장소리에 해당하는 자음은 'ㅅ, ㅆ, ㅈ'이다.

9 목청소리에 해당하는 자음은 'ㅎ'이다.

10 'ㄷ, ㄴ, ㅅ'은 잇몸소리, 'ㅈ'은 센입천장소리이다.

11 콧소리에 해당하는 자음은 'ㅁ, ㄴ, ㅇ'이다.

12 원순 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는 모음으로 'ㅜ, ㅠ, ㅡ, ㅝ'가 있다. 'ㅔ'는 입술을 평평하게 하는 평순 모음에 해당한다.

알짜시험

42~43쪽

01 ①	02 ③	03 ③	04 ②	05 ④
06 ②	07 ④	08 ③	09 ③	10 ③
11 ④	12 ④	13 ②		

01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이다.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는 '형태소'이다.



샘의 풀이

'음운'의 개념은 이번 단원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한다. 따라서 개념을 묻는 문제들이 출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음운의 개념을 잘 알아 두어야 해. 또한 음운, 형태소, 단어, 음절, 문장 등의 기본 개념도 알아 두면 오답을 골라내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참고 자료

음운, 형태소, 단어, 음절, 문장의 개념

- 음운: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 형태소: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 단어: 분리해서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
- 음절: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소리의 마디
- 문장: 생각이나 감정을 말로 표현할 때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는 최소 단위

02 국어의 음운은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으며 소리 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자음과 모음으로 나뉜다. 목청과 목 안을 통과해 온 공기의 흐름이 입안 어느 위치에서 방해를 받는다면 자음, 그렇지 않다면 모음이다.

03 국어의 자음은 '소리의 밝기'가 아니라 '소리의 세기'에 따라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나눌 수 있다.

04 입술소리는 두 입술이 닿았다가 떨어지며 나는 소리이다. 국어의 자음 중 입술소리에는 'ㅁ, ㅂ, ㅃ, ㅍ'이 있다. 이 음운이 포함된 단어는 '가뭄, 백조, 앞날'이다.

05 제시된 설명은 안울림소리에 대한 것이다. 'ㄴ, ㄹ, ㅁ, ㅇ'은 울림소리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자음은 모두 안울림소리이다.

06 흐름소리는 혀끝을 잇몸에 대었다 떼거나, 잇몸에 댄 채 공기를 그 양옆으로 흘려보내면서 내는 소리로, 해당 음운은 'ㄹ'이다. 제시된 단어 중 'ㄹ'이 사용된 것은 '라면'이다.

07 ㉠은 'ㄱ, ㅌ, ㅊ, ㅍ'으로, 발음할 때 입안이나 코안이 울리지 않는 안울림소리이다. 또한 성대 주위의 근육을 긴장시켜 내는 소리 중, 숨이 거세게 터져 나오는 거센소리에 해당한다.

08 소리를 낼 때 입술이나 혀가 움직이는 모음은 이중 모음이다. 이중 모음은 총 11개로, 'ㅟ, ㅞ, ㅟ, ㅠ, ㅡ, ㅢ, ㅣ, ㅤ, ㅥ, ㅦ, ㅧ'가 있다.

09 제시된 그림은 입천장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하여 혀가 그 앞쪽에 있을 때 발음되는 전설 모음이 혀가 뒤쪽에 있을 때 발음되는 후설 모음으로 바뀌는 과정을 보여 준다. 전설 모음에는 'ㄱ, ㅋ, ㆁ, ㄷ, ㅌ, ㄴ'이 있고, 후설 모음에는 'ㅈ, ㅊ, ㅍ'가 있다. 제시된 단어 중 첫 번째 글자는 전설 모음, 두 번째 글자에는 후설 모음이 쓰인 것은 '위로'이다.

10 <보기>에서 입술이나 혀가 고정되어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단모음이다. 그리고 발음할 때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는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원순 모음(ㅁ, ㅂ, ㅃ, ㅍ)이다. 또한 발음할 때 혀의 높이가 중모음인 'ㅓ'보다 높은 것은 고모음(ㅏ, ㅑ, ㅕ, ㅗ, ㅛ)이며,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쪽인 것은 전설 모음(ㄱ, ㅋ, ㆁ, ㄷ, ㅌ, ㄴ)이다.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모음은 'ㄱ'이다.

11 밝고 가볍고 작은 느낌을 주는 모음은 양성 모음이다. 양성 모음에는 'ㅏ, ㅑ, ㅕ, ㅗ, ㅛ, ㅜ, ㅠ, ㅡ, ㅣ' 등이 있다. 이러한 양성 모음으로만 이루어진 단어는 '야광'이다.

12 ㉡의 모음 'ㅓ'는 소리를 낼 때 입술이나 혀가 움직이는 이중 모음이다.

- 오답인 이유** ① ㉠의 자음 'ㅈ'은 섹입천장소리이면서 예사소리이다.
 ② ㉡의 모음 'ㅡ'는 평순 모음이면서 고모음이다.
 ③ ㉢의 자음 'ㄴ, ㄹ'은 발음할 때 입안이나 코안이 울리는 소리이다. 'ㄴ'은 콧소리에 해당하고, 'ㄹ'은 흐름소리에 해당한다.
 ⑤ ㉤의 모음 'ㅓ'는 후설 모음이면서 평순 모음이다.

13 제시된 만화는 일상생활에서 잘못된 발음으로 인해 오해가 발생한 상황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한다. ㄹ에서 단모음인 'ㄴ'을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를 바꾸지 않고 발음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ㄴ'은 이중 모음이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발음하기 위해서는 처음과 나중의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를 바꾸어 'ㄴ → ㄴ'로 발음해야 한다.

(2) 설득 전략이 담긴 연설



알짜 요약정리

44~45쪽

- | | | | |
|---------|-------|------|--------|
| ① 연설(문) | ② 청중 | ③ 실패 | ④ 상상력 |
| ⑤ 인성적 | ⑥ 감성적 | ⑦ 개요 | ⑧ 준언어적 |

어휘 시험

46~47쪽

1 ㉠	2 ㉡	3 ㉢	4 ㉣	5 ㉤
6 현명	7 공감	8 설득	9 관심	10 공약
11 검증	12 경험	13 교훈	14 전략	15 의지
16 성향	17 개요	18 인성	19 ①	20 ①
21 ③	22 ②	23 ④		

1 '감정'은 '어떤 현상이나 일에 대하여 일어나는 마음이나 느끼는 기분.'이라는 뜻이다. '복받치는 감정을 억누른다.'와 같이 쓸 수 있다.

2 '혜택'은 '은혜와 덕택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라는 뜻이다. '이번 조치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와 같이 쓸 수 있다.

3 '암흑'은 '1. 어둡고 캄캄함. 2. 암담하고 비참한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는 뜻이다. '밤이 되면 천지는 암흑 속에 잠긴다.'와 같이 쓸 수 있다.

4 '성취'는 '목적한 바를 이룸.'이라는 뜻이다. '그는 피나는 노력 끝에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성취했다.'와 같이 쓸 수 있다.

5 '겸허'는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비우는 태도가 있음.'이라는 뜻이다. '선생에게는 항상 겸허의 자세가 배어 있었다.'와 같이 쓸 수 있다.

6 '어질고 슬기로우 사리에 밝음.'을 뜻하는 말은 '현명'이다.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을 뜻하는 말이다.

7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낌. 또는 그렇게 느끼는 기분.'을 뜻하는 말은 '공감'이다. '동감'은 '어떤 견해나 의견에 같은 생각을 가짐. 또는 그 생각.'을 뜻하는 말이다.

8 연설의 목적이 청중의 행동이나 태도를 변화하게 한다는 맥락이므로, '상대편이 이쪽 편 이야기를 따르도록 여러 가지로 깨우쳐 말함.'을 뜻하는 '설득'이 빈칸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9 연설자가 연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중의 주의를 시선을 끌고 주목도를 높여야 한다는 맥락이므로,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 주의를 기울임. 또는 그런 마음이나 주의.'를 뜻하는 '관심'이 빈칸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0 선거에서 후보자가 내세우는 것이고,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실현 가능성이라는 맥락이므로, '정부,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하여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함. 또는 그런 약속.'을 뜻하는 '공약'이 빈칸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1 선거에서 후보자를 판단할 때에는 주관적인 기준이 아닌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맥락이므로, '검사하여 증명함.'을 뜻하는 '검증'이 빈칸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2 연설자가 실패를 거듭하고 고난을 겪었던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는 맥락이므로, '자신이 실제로 해 보거나 겪어 봄. 또는 거기서 얻은 지식이나 기능.'을 뜻하는 '경험'이 빈칸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3 연설자가 실패를 극복하면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긍정적 가르침을 말한다는 맥락이므로, '앞으로의 행동이나 생활에 지침이 될 만한 것을 가르침. 또는 그런 가르침.'을 뜻하는 '교훈'이 빈칸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4 '전쟁을 전반적으로 이끌어 가는 방법이나 책략.'을 뜻하는 말은 '전략'이다. '계략'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꾀나 수단.'을 뜻하는 말이다.

15 '어떠한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뜻하는 말은 '의지'이다. '목표'는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지향하는 실제적 대상으로 삼음. 또는 그 대상.'을 뜻하는 말이다.

16 '성질에 따른 경향.'을 뜻하는 말은 '성향'이다. '취향'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방향. 또는 그런 경향.'을 뜻하는 말이다.

17 '간결하게 추려 낸 주요 내용.'을 뜻하는 말은 '개요'이다. '목차'는 '목록이나 제목, 조항 따위의 차례.'를 뜻하는 말이다.

18 '사람의 성품.'을 뜻하는 말은 '인성'이다. '본성'은 '일정한 사물에만 있는 특수한 성질.'을 뜻하는 말이다.

19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현상이나 사물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그려 보는 힘.'을 뜻하는 말은 '상상력'이다. '환상력'은 '현실적인 기초나 가능성이 없는 생각이나 공상을 하는 능력.'을, '추진력'은 '물체를 밀어 앞으로 내보내는 힘.'을, '주도력'은 '주동적인 위치에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을 뜻하는 말이다.

20 '어떤 행위나 권리의 행사를 자유로이 하지 못하도록 강압적으로 얹어매거나 제한함.'을 뜻하는 말은 '속박'이다. '압박'은 '강한 힘으로 내리누름.'을, '구박'은 '못 견디게 괴롭힘.'을, '타박'은 '허물이나 결함을 나무라거나 핀잔함.'을 뜻하는 말이다.

21 '어질고 총명하여 성인에 다음가는 사람.'을 뜻하는 말은 '현인'이다. '정인'은 '마음씨가 올바른 사람.'을, '위인'은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을, '귀인'은 '사회적 지위가 높고 귀한 사람.'을 뜻하는 말이다.

22 '한껏 차서 가득함.'을 뜻하는 말은 '충만'이다. '희망'은 '어떤 일을 이루거나 하기를 바램.'을, '만족'은 '마음에 흡족함.'을, '기쁨'은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을 뜻하는 말이다.

23 ‘어떤 사물의 효과나 작용이 다른 것에 미치는 힘. 또는 그 크기나 정도.’를 뜻하는 말은 ‘영향력’이다. ‘관성력’은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고자 하며, 움직이고 있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고자 하는 힘.’을 뜻하는 말이다. ‘추동력’은 ‘물체에 힘을 가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을, ‘행동력’은 ‘몸을 움직여 동작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는 힘.’을 뜻하는 말이다.



꼭지 시험

48~49쪽

- 1 조앤 K. 롤링 2 실패 3 세네카 4 상상력
5 × 6 × 7 × 8 ○ 9 ×
10 ○ 11 준언어적 표현 12 비언어적 표현
13 • ㉠: 인성적 설득 전략 • ㉡: 이성적 설득 전략 • ㉢: 감성적 설득 전략 14 ㉡ 15 ㉠

1 이 연설의 연설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인 ‘조앤 K. 롤링’이다.

2 이 연설의 연설자가 청중의 나이 때에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실패’였다.

3 연설자는 고대 로마의 현인 ‘세네카’의 말을 인용하며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연설의 신뢰성을 높이며 연설을 마무리하고 있다.

4 이 연설의 주제는 ‘실패를 통해 배우는 긍정적인 삶의 자세와, 상상력을 통해 타인을 헤아리는 마음의 중요성’이다.

5 연설의 궁극적인 목적은 청중을 설득하는 것이다.

6 인성적 설득 전략, 감성적 설득 전략은 연설의 설득 전략에 해당하나, 개성적 설득 전략은 해당하지 않는다.

7 예상 청중을 분석할 때는 청중의 나이, 지식수준, 관심과 요구 등을 고려해야 한다. 반면 경제적 수준과 성공 가능성 여부는 예상 청중을 분석할 때 필요한 일반적인 요소는 아니다.

8 이 연설문은 인사를 하고 연설할 내용을 소개하는 서론, 본격적으로 연설의 주제를 다루는 본론, 연설의 핵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9 이 연설의 청중은 대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다.

10 이 연설문은 자신의 경험담을 통해 청중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자문자답의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11 목소리의 크기와 말의 속도, 어조와 같은 표현을 의미하는 말은 ‘준언어적 표현’이다.

12 표정이나 시선, 손짓, 몸동작과 같은 표현을 의미하는 말은 ‘비언어적 표현’이다.

13 ㉠에 들어갈 설득 전략은 연설자가 자신의 됴됨이나 전문성을 바탕으로 청중이 연설에 신뢰를 갖게 하는, ‘인성적 설득 전략’이다. ㉡에 들어갈 설득 전략은 주장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청중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이성적 설득 전략’이다. ㉢에 들어갈 설득 전략은 청중의 감정에 호소하여 설득하는, ‘감성적 설득 전략’이다.

14 ㉠에서는 청중의 자긍심을, ㉡에서는 청중의 동정심을, ㉢에서는 청중의 욕망을 불러일으켜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성적 설득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15 이 연설의 끝부분에서는 고대 현인 ‘세네카’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연설 내용을 압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격언이므로 강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연설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알짜 시험



50~53쪽

- 01 ㉢ 02 ㉤ 03 ㉡ 04 ㉣ 05 ㉣
06 이성적 설득 전략. 연설자는 실패했던 경험 속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실패가 주는 혜택’ 세 가지를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 물질적으로 성공하는 삶, 자신만 생각하는 삶 / • ㉤: 내면이 충만한 삶, 타인을 생각하는 삶 15 ㉤

01 연설문 쓰기를 계획할 때에는 청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 방법이나 다양한 설득 전략 등을 구상해야 한다. 또한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간결한 표현을 써야 하며, 공적인 말하기이므로 경어체를 써야 한다. 무엇보다 다수의 청중을 설득하기 위해 쓰는 글이므로 청중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쉽고 명료하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

02 (가)를 통해 연설자가 대학 졸업을 앞둔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내용의 연설을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연설자는 청중의 나이, 지식수준, 공통적으로 처한 상황이나 관심사를 고려했을 것이다. 반면 청중의 전공이나 선호하는 직업에 대한 것은 고려했을 만한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다.

03 이 글은 연설자 조앤 K. 롤링이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설자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얻은 교훈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 것이다.

04 (다)~(마)에서는 연설자가 실패를 경험하면서 느낀 깨달음을 서술하고 있다.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실패가 주는 혜택

을 논리적으로 서술하여 설득력을 높이고 있을 뿐, 유명인의 다양한 사례를 인용하고 있지는 않다.

05 (바)에서 연설자는 ‘뭔가를 얻고 성취하는 것이 삶의 전부’가 아님을 깨달아야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① (나)의 ‘대학을 졸업한 후 7년 동안, 저는 계속 실패만 했습니다.’에서 알 수 있다.

② (마)의 ‘실패를 극복하며 강인하고 현명해지면, 어떤 일이 있어도 헤쳐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에서 알 수 있다.

③ (라)의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보다 성실하고 의지가 강하며, 제 주변에 보석보다 훨씬 더 값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에서 알 수 있다.

⑤ (다)의 ‘저는 실패한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저에게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 일에 에너지를 모두 쏟기 시작했습니다.’에서 알 수 있다.



샘의 풀이

제시된 글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문제, 즉 내용 일치를 확인하는 문제는 선지 옆에 해당 내용이 서술된 문단을 적으면서 풀면 실수를 줄일 수 있어, 지문에 직접 해당 부분에 밑줄을 치면서 검토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06 **서술형** (다)~(마)에서는 연설자가 자신이 실패했던 경험 속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실패가 주는 혜택’ 세 가지를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성적 설득 전략’이 활용되었다.

평가 기준	확인 ☒
이성적 설득 전략을 활용하였음을 밝혀 썼다.	☐
연설자의 경험을 통해 얻은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실패가 주는 혜택’ 세 가지를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근거를 밝혀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07 ㉔은 연설자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작품으로 쓰일 제재의 구상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연설자는 이러한 ‘어떤 아이디어’에 에너지를 모두 쏟으면서 실패를 극복해 낼 수 있었다.



샘의 풀이

단어 혹은 구절의 의미를 묻는 문제를 풀 때에는 기호 앞뒤의 문맥적 의미를 따져 보아야 해. 앞뒤의 내용을 읽어 보면서 어떠한 의미가 숨겨져 있는지, 지시하는 바는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연습을 평소에도 하도록 하렴.

08 이 광고는 ‘가까이하다’와 ‘떨어지다’라는 반대의 뜻을 지닌 표현을 사용해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즉, ‘언어 표현으로 강조하기’의 설득 전략을 사용한 것이다.

09 (다)에서는 국제 사면 위원회에서 일을 하며 깨달은 바로, 타인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이를 돕기 위해 행동하는 일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상상력은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다.

10 (다)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제 사면 위원회 본부에서 일하던 연설자의 동료들은 편안하고 안정된 삶이 보장되어 있는데도, 알지도 못하고 평생 만날 일도 없을 사람들을 돕기 위해 애를 썼다. 그리고 연설자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이 바로 상상력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11 연설자가 연설의 끝부분에서 ‘세네카’의 말을 인용한 까닭은 그 말이 자신이 청중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잘 표현하고 있으며, 유명인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청중에게 연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격언을 인용함으로써 연설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12 예상되는 청중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뒤이어 이를 반박함으로써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에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㉔에서 자신의 전문성과 통찰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13 이성적 설득 전략은 화자가 자신의 됴됨이나 전문성을 바탕으로 청중이 연설에 신뢰를 갖게 하는 것을 말한다. 연설자가 국제 사면 위원회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주제를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이성적 설득 전략을 사용한 것이다.

14 **서술형** ‘세네카’의 말은, 한 편의 이야기는 그 분량이 아니라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의 가치가 중요한 것처럼 사람도 가치 있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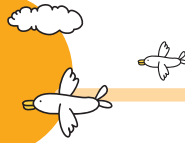
평가 기준	확인 ☒
‘이야기의 길이’의 의미를 정확하게 썼다.	☐
‘(이야기의) 내용’의 의미를 정확하게 썼다.	☐

15 연설은 글이 아닌 말로 주제를 전달하므로, 연설자는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접하면서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쉽고 정확한 어휘를 사용해야 하며, 너무 긴 문장 표현은 지양해야 한다. 해당 분야의 전문 용어를 사용하여 불필요하게 연설의 내용을 어렵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참고 자료

준언어적 표현·비언어적 표현

준언어적 표현	의사소통에서, 언어적 요소와 분리할 수 없으나 발화된 음성과는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는 요소이다. 비언어적 표현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나, 음성적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구별된다. 발화에 수반되는 억양이나 세기, 강세를 두는 위치, 말하기의 빠르기나 음의 고저 따위가 이에 해당한다.
비언어적 표현	언어가 아닌, 의사나 감정을 표현하거나 전달하는데 쓰이는 몸짓, 손짓, 표정 따위의 신체 동작을 통틀어 이른다.



(1) 논리적으로 읽기



알짜 요약정리

● 54~55쪽

- | | | | |
|------|-------|---------|------|
| 1 귀납 | 2 사회성 | 3 범죄 예방 | 4 연역 |
| 5 흥미 | 6 설득력 | 7 존엄성 | 8 연역 |



어휘 시험

56~57쪽

- | | | | | |
|------|-------|-------|-------|-------|
| 1 ㉠ | 2 ㉡ | 3 ㉢ | 4 ㉣ | 5 분주 |
| 6 본분 | 7 사회성 | 8 규율 | 9 ㉤ | 10 ㉥ |
| 11 ㉦ | 12 간섭 | 13 보장 | 14 유익 | 15 욕구 |
| 16 ㉧ | 17 ㉨ | | | |

1 '일탈'은 '사회적인 규범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라는 뜻이다. '청소년들의 일탈이 늘고 있다.'와 같이 쓸 수 있다.

2 '일련'은 '하나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뜻이다. '일련의 문제', '그녀는 최근 발표한 일련의 작품들로 비평가들의 주목을 받았다.'와 같이 쓸 수 있다.

3 '오류'는 '그릇되어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는 뜻이다. '논리적 오류', '오류를 범하다.'와 같이 쓸 수 있다.

4 '논증'은 '옳고 그름을 이유를 들어 밝힘. 또는 그 근거나 이유.'라는 뜻이다. '논증을 펼치다.', '구체적인 논증을 거쳐야 한다.'와 같이 쓸 수 있다.

5 '분주'는 '몹시 바쁘게 뛰어다님.'을 의미한다. '활기'는 '활동력이 있거나 활발한 기운.'을 의미한다.

6 '본분'은 '사람이 저마다 가지는 본디의 신분.'을 의미한다. '소명'은 '까닭이나 이유를 밝혀 설명함.'을 의미한다.

7 '사회성'은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는 인간의 근본 성질.'을 의미한다. '독립성'은 '남에게 의지하거나 속박되지 아니하고 홀로 서려는 성질이나 성향.'을 의미한다.

8 '규율'은 '질서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정하여 놓은, 행동의 준칙이 되는 본보기.'를 의미한다. '규제'는 '규칙이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음.'을 의미한다.

9 '우열'은 '나옴과 못함.'을 의미한다. '비호'는 '편들어서 감

싸 주고 보호함.'을, '선호'는 '여럿 가운데서 특별히 가려서 좋아함.'을, '서열'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순서대로 늘어섬. 또는 그 순서.'를 의미한다.

10 '호소'는 '억울하거나 딱한 사정을 남에게 간곡히 알림.'을 의미한다. '고지'는 '게시나 글을 통하여 알림.'을, '보고'는 '일에 관한 내용이나 결과를 말이나 글로 알림.'을, '보도'는 '대중 전달 매체를 통하여 일반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알림. 또는 그 소식.'을 의미한다.

11 '해소'는 '어려운 일이나 문제가 되는 상태를 해결하여 없애 버림.'을 의미한다. '개방'은 '문이나 어떠한 공간 따위를 열어 자유롭게 드나들고 이용하게 함.'을, '봉착'은 '어떤 처지나 상태에 부닥침.'을, '해방'은 '구속이나 억압, 부담 따위에서 벗어나게 함.'을 의미한다.

12 부모님 무엇에서 벗어나려 한다는 말이므로, '직접 관계가 없는 남의 일에 부당하게 참견함.'이라는 의미의 '간섭'이 빈칸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3 인권을 보호받아야 한다는 말이므로, '어떤 일이 어려움 없이 이루어지도록 조건을 마련하여 보증하거나 보호함.'이라는 의미의 '보장'이 빈칸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4 숙제를 대신 해 주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므로, '이롭거나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음.'이라는 의미의 '유익'이 빈칸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5 청소년기는 자기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강해지는 시기라는 말이므로, '무엇을 얻거나 무슨 일을 하고자 바라는 일.'이라는 의미의 '욕구'가 빈칸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6 제시문에서 설명한 단어는 '시행착오'이다. '시행착오'는 시행과 착오를 되풀이하여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는 원리이므로, 슬한 잘못을 겪고 자리를 잡은 것이 그 사례로 가장 유사하다.

17 <보기>의 '길'은 '방법이나 수단.'을 의미한다. ㉢은 표현할 방법이 없는 감동이 밀려왔다는 뜻이므로, <보기>의 '길'과 마찬가지로 '방법이나 수단.'을 의미한다. ㉠의 '길'은 '사람이나 동물 또는 자동차 따위가 지나갈 수 있게 땅 위에 낸 일정한 너비의 공간.'을, ㉡의 '길'은 '건거나 탈것을 타고 어느 곳으로 가는 노정(路程).', ㉣의 '길'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의 삶이나 사회적·역사적 발전 따위가 전개되는 과정.', ㉤의 '길'은 '어떤 행동이 끝나자마자 즉시.'를 의미한다.

꼭지 시험

58쪽

- 1 놀이 공간 2 근거 3 스트레스 4 × 5 ○
6 ○ 7 ○ 8 사회성 9 귀납 10 ④

1 이 글은 청소년 놀이 공간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한 글이다. 청소년 놀이 공간 확대의 여러 긍정적인 측면들을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청소년 놀이 공간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2 이 글의 글쓴이는 청소년 놀이 공간을 확대했을 때 발생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효과들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 놀이 시설을 확대해야 한다.'라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을 주장으로 제시하고 있다.

3 글쓴이는 청소년 놀이 공간을 확대하면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가 늘어 청소년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2015년 통계청 조사를 들어 설명하였는데, 이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13~24세 청소년 중 61.4 퍼센트가 생활 속에서 우울, 압박,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안고 살아가며, 이로 인해 가슴 통증, 울렁증과 같은 증상을 호소하거나 급기야 학업까지 포기하는 학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청소년들은 생활 속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해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하였다.

4 글쓴이는 오이시디(OECD) 조사 결과를 제시하여 가입국 중 한국 학생들의 학습량은 최상위권을, 반대로 삶의 만족도는 최하위권을 차지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는 권위 있는 기관의 통계 결과를 제시하여 글쓴이의 생각을 뒷받침한 것인데, 출처가 명확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은 자료이다.

5 우리는 태어나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평생 공동체 안에 머무르며 다른 구성원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사회 속에서 자신의 소질과 재능을 발견하고, 타인과 어울리고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익히는 등 삶에 필요한 많은 것을 배운다고 하였다.

6 2015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3~24세 청소년 중 61.4 퍼센트가 생활 속에서 우울, 압박,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안고 살아가며, 이로 인해 가슴 통증, 울렁증과 같은 증상을 호소하거나 급기야 학업까지 포기하는 학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하였다.

7 글쓴이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신체 활동과 예술 활동을 하며 휴식과 여가를 즐길 기회를 제공해 줄 놀이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하면서, 음악, 미술, 무용, 연극, 체육, 문학 등도 따지고 보면 놀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였다.

8 글쓴이는 '청소년 놀이 공간을 확대하면 청소년의 사회성

을 기를 수 있다.'고 말하면서, '청소년 놀이 공간에서는 다양한 경험과 만남의 기회가 제공되며, 이는 청소년의 공감 능력, 관계 형성 능력, 협동 능력, 사회 규율에 대한 이해력 등 일련의 사회성을 기르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라며 그 긍정적 효과를 설명하였다.

9 이 글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으므로 귀납 논증이 사용되었다.

10 글쓴이는 청소년 놀이 공간을 확대하면 청소년의 사회성을 기르는 효과가 있고, 청소년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며, 청소년의 일탈과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근거를 들어 청소년 놀이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진로 희망 분야를 미리 체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꼭지 시험

59쪽

- 1 존엄성 2 자연 3 대한민국 헌법 4 ×
5 ○ 6 ○ 7 × 8 ① 9 ④

1 이 글은 인간이라면 모두 존엄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우리 모두는 존엄한 존재임을 주장하고 있다. 글쓴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교실에서 생길 수 있는 일 등의 다양한 사례를 들어 모든 인간은 존엄하기에 나와 타인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2 글쓴이는 인간의 존엄성은 자연적으로 부여된 것이며,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당연히 존엄성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3 글쓴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여 나 자신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은 존엄성을 지니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4 글쓴이는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는 이들을 선불리 비난하지 않고 그 자체를 인정한다는 것을 사례로 제시하였다.

5 고유한 정체성은 존엄성과 결부된 것이므로, 그것을 인정받지 못하면 존엄성을 존중받지 못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6 글쓴이는 인간은 모두 존엄한 존재이며, 인간의 존엄성은 서로의 존엄성을 존중할 때 구현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7 글쓴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를 근거로 들어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고 스스로 훼손하는 일을 하지 말고, 스스로의 존엄성을 지키고 타인을 존중하자고 하였다.

8 이 글의 주된 논증 방법은 연역이다. 글쓴이는 ‘인간은 모두 존엄성을 지니고 있다.’를 대전제, ‘나 자신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은 인간이다.’를 소전제, ‘나 자신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은 존엄성을 지니고 있다.’를 결론으로 하여 주장하였다. 따라서 귀납 논증에 해당하는 ‘일반화’는 연역 논증과 관련된 용어로 볼 수 없다.

9 글쓴이는 인간의 존엄성은 자연적으로 부여된 것이므로, 인간은 모두 존엄하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알짜 시험



60~63쪽

01 ③ 02 ③ 03 ④ 04 (가), ‘언제부터인가 평일 방과 후나 주말에 학교 운동장에서 노는 학생들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다.’에서 주제와 관련된 현실의 상황을 제시하면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05 ⑤ 06 ⑤ 07 정신적 창조 활동이며 인간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놀이의 특성을 바탕으로, 청소년 놀이 공간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08 ④

09 [B], <보기>는 ‘가수들은 노래를 잘한다.’라는 일반적인 원리를 대전제로 하여 ‘여름이는 노래를 잘한다.’와 같은 구체적 결론을 이끌어 낸 연역 논증 방법을 활용하였다. [B] 역시 ‘아름다운에는 우열이 없다.’라는 일반적인 원리를 대전제로 하여 ‘음악에는 우열이 없다.’와 같은 구체적 결론을 이끌어 내었다.

10 ⑤ 11 ③ 12 ⑤

01 이 글은 글쓴이가 자신의 주장을 내세워 독자를 설득하기 위해 쓴 글이다. 글쓴이는 청소년 놀이 공간을 확대해야 하며, 우리 사회가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①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이다.

② 청소년 놀이 공간이 부족한 실재를 지적하며 청소년 놀이 공간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④ 인간은 ‘놀이하는 인간’으로 진화해 왔다는 근거를 제시하여 청소년 놀이 공간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⑤ 주장하는 글의 목적은 설득이다. 삶의 반성과 성찰을 이끌어 내기 위함이 아니다.

02 글쓴이는 평생 공동체 안에서 다른 구성원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사회성이 중요하며, 이를 기르기 위해서라도 놀이 공간의 확보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성이 저절로 형성된다면 이는 노력이 필요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글쓴이의 의견에 부합하지 않는다.

① (라)의 ‘놀이를 통한 휴식과 재충전은 삶에 활력을 준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② (가)의 ‘언제부터인가 평일 방과 후나 주말에 학교 운동장에서 노는 학생들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④ (마)의 ‘청소년이 마음 놓고 모일 수 있는 마땅한 공간이 없는 현실은 청소년들을 유해 환경으로 내몬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⑤ (가)의 ‘그 결과 오이시디(OECD) 가입국 중 한국 학생들의 학습량은 최상위권을, 반대로 삶의 만족도는 최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03 청소년들의 문화와 어른들의 문화를 융합할 수 있다는 점은 청소년 놀이 공간 확대의 효과가 아니고, 이 글에서도 찾을 수 없는 내용이다.

① (다)에서 놀면서 나와 타인을 이해하고 나아가 타인과 타협하는 것이 곧 사회성을 익히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② (다)에서 청소년 놀이 공간에서는 다양한 경험과 만남의 기회가 제공된다고 하였다.

③ (사)에서 다양한 신체 활동과 예술 활동을 하며 휴식과 여가를 즐길 기회를 제공해 줄 놀이 공간의 확대가 절실하다고 하였다.

⑤ (바)에서 청소년들은 청소년 놀이 공간에서 자신의 욕구를 바르게 표현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다고 하였다.

04 <보기>는 서론에서 글의 주제와 목적을 밝히고, 독자의 주의를 끌 수 있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가)의 첫 번째 문장은 방과 후나 주말에 운동장에서 노는 학생들이 없다는 현실 상황을 제시하면서 이 글의 주제와 목적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문단을 정확하게 밝혔다.	☐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썼다.	☐

05 글쓴이는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최하위권임을 제시하며 청소년의 놀이 공간 확보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삶의 만족도가 떨어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글쓴이는 청소년들이 많이 공부하는 만큼 많이 불행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① 오이시디(OECD)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학생들의 학습량은 매우 많은 편이다. 이처럼 많은 학습량 때문에 한국 학생들의 학습 스트레스는 높을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해 삶의 만족도가 떨어졌다고 볼 수는 있다. 하지만 글쓴이는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만한 마땅한 놀이 공간이 없다는 점을 문제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학습량을 줄이지 않기 때문에 ①과 같이 판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글쓴이가 청소년을 나라의 미래이며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잠재적 인재라고 생각하는 것은, 글쓴이가 ①과 같이 판단한 것과 관련이 없다.

③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 사회 속에서 타인과 어울리고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지만, 이는 글쓴이가 ①과 같이 판단한 것과 관련이 없다.

④ 청소년들이 유해 환경에 노출되는 것은, 자신들의 욕구를 긍정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마땅한 놀이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학습량이 많아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06 ㉠은 ‘……구태여 가지 말라는 곳에 가지 않을 것이고, 하지 말라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와 같이 이미 알고 있는, 글쓴이가 결론을 내린 사실에 대해 의문문의 형식으로 강조하고 있는 설의적 표현이다.

- 오답인 이유** ① 특정한 상황을 가정하고 있지 않다.
 ② 비유적 표현이나 어려운 용어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③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가 나타나 있지 않으며, 새로운 화제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④ 질문의 형식을 활용하고 있으나, 독자에게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게 하고 있지는 않다. 글쓴이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는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07 **서술형** <보기>는 ‘호모 루덴스’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보기>를 통해 ‘놀이’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정신적 창조 활동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이 글의 글쓴이가 ㉡과 같은 내용을 제시한 것은, 청소년들이 놀이 공간에서 더욱 창조적인 활동을 하면서 자신들을 성장시키게 될 것임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놀이의 긍정적 효과를 근거로 들기 위해서임을 밝혀 썼다.	☐
청소년 놀이 공간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임을 밝혀 썼다.	☐

08 청소년들의 놀이 공간 혁신과 학습 효과 간의 인과성은 본문을 통해 드러나지 않으며, 주제와도 어울리지 않는다.

- 오답인 이유** ① (나)의 ‘놀이는 재미있다. 놀이 그 자체가……자신이 좋아서 하는 행동이다.’를 통해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다)의 ‘2016년 기준 소년 범죄자 수는……달한다고 한다.’를 통해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가)의 ‘언제부터인가 평일 방과 후나 주말에……찾아보기가 어려워졌다.’를 통해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⑤ (가)의 ‘그 결과 오이시디(OECD) 가입국 중 한국 학생들의……차지하고 있다.’를 통해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09 **서술형** <보기>는 ‘가수들은 노래를 잘한다.’라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여름이는 가수다.’라는 소전제, ‘여름이도 노래를 잘한다.’라는 결론을 이끌어 낸 연역 논증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B] 역시 ‘아름다움에는 우열이 없다.’라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음악은 아름답다.’라는 소전제, ‘음악에는 우열이 없다.’라는 결론을 이끌어 냈으므로 연역 논증 방법을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B]임을 정확히 썼다.	☐
<보기>와 [B] 모두 연역의 논증 방법을 활용했기 때문임을 밝혀 썼다.	☐

10 이 글의 글쓴이는 인간은 누구나 존엄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부여받은 것이라고 하였다. 타인이 인정을 하지 않더라도 각자가 지닌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인간이라면 모두 존엄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② (가)에서 우리 모두가 이 지구상에 하나뿐인 존재로서 저마다 고유한 정체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③ (라)에서 자신을 낮게 평가하여 자신의 존엄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경우도 많이 벌어진다고 하였다.
 ④ (라)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10조가 인간의 존엄성을 선언하고 있다고 하였다.

11 <보기>에는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지 않아서 전학생의 정체성 및 존엄성을 지켜 주지 못한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다)에서 존엄성을 지켜 주지 못한 경우의 사례로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인 이유** ① <보기>에는 인성의 좋고 나쁨에 따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평가했던 내용이 서술되어 있지 않다.
 ② <보기>를 독특한 개성의 사례로는 제시할 수는 있지만 독특한 개성이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자료는 아니다.
 ④ 대한민국 헌법 조항이 제정된 배경을 설명하기는 어려운 자료이다.
 ⑤ 자신을 존엄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내용과 관련이 없다.

12 본문에는 연역의 방법이 활용되었다. 결론에서 새로운 지식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지식을 넓힐 수 있는 것은 귀납의 특성 중 하나이다.

- 오답인 이유** ①, ② 연역에서 결론의 내용은 전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참이다.
 ③ 연역은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에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결론을 도출한다.
 ④ 연역은 대전제, 소전제, 결론으로 구성되는 논증 양상을 보인다.

(2) 주장하는 글 쓰기



알짜 요약정리

● 64~65쪽

- | | | | |
|------|-------|---------|------|
| ① 변화 | ② 설득력 | ③ 계획하기 | ④ 주제 |
| ⑤ 근거 | ⑥ 주의 | ⑦ 영상 매체 | ⑧ 근거 |



어휘 시험

66쪽

- 1 ㉞ 2 ㉠ 3 ㉡ 4 ㉢ 5 방대
6 교류 7 순화 8 대립 9 ㉡ 10 ㉡
11 ①

1 '퇴색'은 '무엇이 낡거나 몰락하면서 그 존재가 희미해지거나 불품없이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공산주의 이념의 퇴색' 등과 같이 쓸 수 있다.

2 '단일'은 '단 하나로 되어 있음.'이라는 뜻이다. '단일 상품'과 같이 쓸 수 있다.

3 '민간'은 '관청이나 정부 기관에 속하지 않음.'이라는 뜻이다. '민간 기업'과 같이 쓸 수 있다.

4 '편찬'은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책을 만들.'이라는 뜻이다. '사전 편찬'과 같이 쓸 수 있다.

5 '방대'는 '규모나 양이 매우 크거나 많음.'을 의미하고, '방임'은 '돌보거나 간섭하지 않고 제멋대로 내버려 둠.'을 의미한다.

6 '교류'는 '문화나 사상 따위가 서로 통함.'을 의미하고, '교환'은 '서로 바꿈.'을 의미한다.

7 '순화'는 '불순한 것을 제거하여 순수하게 함.'을 의미하고, '유화'는 '상대편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사이 좋게 지냄.'을 의미한다.

8 '대립'은 '의견이나 처지, 속성 따위가 서로 반대되거나 모순됨. 또는 그런 관계.'를 의미하고, '융화'는 '서로 어울려 갈등이 없이 화목하게 됨.'을 의미한다.

9 '이질적'은 '성질이 다른 것.'을 의미한다. '적극적'은 '대상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것.'을, '자주적'은 '남의 보호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것.'을, '반사회적'은 '사회의 규범이나 질서 또는 이익에 반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10 '분단'은 '동강이 나게 끊어 가름.'을 의미한다. '표준'은 '사물의 정도나 성격 따위를 알기 위한 근거나 기준.'을, '통합'은 '둘 이상의 조직이나 기구 따위를 하나로 합침.'을, '분열'은 '각각 갈라져서 늘어섬.'을 의미한다.

11 '선호'는 '여럿 가운데서 특별히 가려서 좋아함.'을 의미한다. '기호'는 '즐기고 좋아함.'을, '주관'은 '자기만의 견해나 관점.'을, '객관'은 '자기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제삼자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거나 생각함.'을 의미한다.



주지 시험

67쪽

- 1 서론, 본론, 결론 2 주장 3 타당 4 ○
5 × 6 × 7 ○ 8 본론 9 개요
10 ④ 11 ①

1 주장하는 글은 일반적으로 '서론 - 본론 - 결론'의 구조를 바탕으로 작성한다.

2 주장하는 글을 쓸 때는 수집한 자료를 모두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글의 주제, 독자, 목적 등을 고려하여 자료를 선별하여 활용한다.

3 글을 쓴 뒤에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보편적이고 타당한지, 신뢰성이 높은지 등을 점검한다.

4 글쓴이는 서론에서 평창 동계 올림픽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5 글쓴이는 언어는 문화의 일부이며, 민간 차원의 문화 교류를 이어 간다면 더 쉽게 서로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글쓴이는 언어와 문화는 서로 영향을 받는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

6 본문에서는 우리나라의 회사가 남한의 어휘를 북한의 어휘로 바꾸어 주는 앱을 개발하여 탈북 청소년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였다.

7 글쓴이는 남북한 언어의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공통의 국어사전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현재 남북한 학자들이 공통의 국어사전인 『겨레말 큰사전』을 편찬하고 있다고 하였다.

8 주장하는 글의 기본 구조는 '서론 - 본론 -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글의 중심이 되고,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부분은 본론이다.

9 글을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나 여러 가지 생각을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글을 쓰기 전에 내용을 먼저 조직하고 배열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은 '개요'이다.

10 글쓴이는 인쇄 매체인 신문, 영상 매체인 텔레비전 뉴스, 디지털 매체인 누리집 자료를 활용하였다. 광고 매체는 활용하지 않았다.

11 글쓴이는 남북한 언어의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살펴본 다음, 결론 부분에서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알짜 시험



68~69쪽

- 01 ⑤** **02 ③** **03 ④** **04** 민간 차원에서 폭넓게 교류하면 언어의 통합을 비롯한 남북의 통합도 앞당겨질 수 있다. **05 ③** **06 ④** **07** 글쓴이의 개인적인 선호를 주장의 근거로 삼은 것으로, 타당성과 객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08 ⑤**

01 주장하는 글을 쓰기 위해 인쇄 매체, 영상 매체, 인터넷 매체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내용의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최신의 인터넷 자료의 활용도를 더 높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인 이유 ① 자신의 주장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독자를 설득할 수 있다.

② 명료하고 정확한 문장과 단어로 표현해야 독자가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③ 주장하는 글은 일반적으로 '서론 - 본론 - 결론'으로 구성한다.

④ 보편적이고 타당한 근거로 주장을 뒷받침해야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02 (다)에서 글쓴이는 남북 간의 민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남북한의 통합도 앞당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을 뿐, 남한과 북한이 민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

오답인 이유 ① (나)에서 글쓴이는 남북 학자들이 모여 남북한 공통 국어사전인 『겨레말 큰사전』을 편찬하고 있다고 하였다.

② (라)에서 글쓴이는 우리나라의 한 회사가 남한의 어휘를 북한의 어휘로 바꾸어 주는 앱을 개발하였다고 하였다.

④ (마)에서 글쓴이는 분단이라는 역사적 상황으로 인해 남북한의 언어생활에 많은 차이가 생겼다고 하였다.

⑤ (가)에서 글쓴이는 평창 동계 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에 관한 뉴스를 보았다고 하면서, 선수들은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였다.

03 첫 문장인 '얼마 전 평창 동계 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에 관한 뉴스를 보았다.'를 통해 주제와 관련된 글쓴이의 경험을 제시하였다. 이는 서론을 쓰는 방법 중 '개인적인 경험 쓰기'에 해당한다.

오답인 이유 ① '인용하기'는 주제와 관련된 속담, 격언 등을 인용하는 방법이다.

② '문제에 답하기'는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 답하는 형식으로 정리하는 방법으로, 보통 '결론'에서 쓴다.

③ '용어 정의하기'는 글에 쓰이는 용어의 의미와 범위를 명확하게 밝히는 방법이다.

⑤ '해결 방안 제시하기'는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의 원인을 밝히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보통 '본론'에서 쓴다.

04 **서술형** 제시된 개요는 (다)의 '두 번째로 남북 간의 민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로 시작되는 문단에 해당한다. 이 문단의 첫 번째 문장이 주장이고, 이어지는 내용

에 민간 차원의 교류를 통해 서로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고 남북한 통합까지도 앞당길 수 있다는 근거가 제시되어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민간 차원의 교류를 통해 서로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밝혀 썼다.	☐
민간 차원의 교류를 통해 남북한 통합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밝혀 썼다.	☐

05 (가)는 이 글의 서론 부분으로, 무엇에 대해 쓰려고 하는지를 제시하고 독자의 주의를 이끌어 내고 있다. 특히 '이러한 언어의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와 같은 질문은 글의 전체 내용이 무엇일지에 대해 알려 주는 역할을 한다. (마)는 이 글의 결론 부분으로, 글을 마무리하며 자신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06 (라)에서 글쓴이가 "실제로 우리나라의 한 회사는 남한의 어휘를 북한의 어휘로 바꾸어 주는 앱을 개발하여 탈북 청소년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라고 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글쓴이는 이와 관련된 신문 기사나 텔레비전 뉴스 등을 참고하였다고 볼 수 있다.

07 **서술형** <보기>는 글쓴이가 ① 문장을 삭제해야 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 까닭으로 자신의 주장을 적절하게 뒷받침하는 근거를 사용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했는데, ①은 글쓴이 자신의 개인적 선호를 담은 문장으로 타당성과 객관성이 부족하여 주장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평가 기준	확인 ☒
자신의 개인적 선호를 주장의 근거로 삼은 문장이기 때문임을 밝혀 썼다.	☐
타당성과 객관성이 부족한 내용이기 때문임을 밝혀 썼다.	☐

08 <보기>는 주장하는 글의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는 외모 지상주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글쓴이는 <보기>에서 청소년들의 관심사 중 많은 부분이 외모와 관련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⑤와 같은 내용을 인용하면 <보기>를 적절하게 뒷받침할 수 있다.